#### KREI

## 농촌 청년 연구자문단 면담 조사 결과

마상진 · 이순미 · 박영구 · 최재현



### KREI

## 농촌 청년 연구자문단 면담 조사 결과

마상진·이순미·박영구·최재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 담당

**마상진** | 선임연구위원 | 연구총괄

이순미 | 부연구위원 | 청년 연구자문단 운영

**박영구** | 전문위원 | 청년 연구자문단 진행 관리

최재현 | 전문연구원 | 청년 연구자문단 조사

#### R962 연구자료-3 농촌 청년 연구자문단 면담 조사 결과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2.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지아이지인

ISBN | 979-11-6149-609-2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차 례

제1장	조사 개요 ·····	1
제2장	전북전남 지역 청년 조	사5
제3장	경북·경남 지역 청년 조	사43
제4장	경기·강원 지역 청년 조	<b>ሊ</b> ት ·······87
제5장	서울 경기 지역 청년 조	사123
제6장	충북·충남 지역 청년 조	사161
제7장	청년 여성 조사	199

## 표 차례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제1장

〈표 1-1〉 면담 조사(간담회) 진행 순서 ·	
〈표 1-2〉 면담 조사 순서 및 참가자 표기	

제1장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농촌과 청년' 연구에서는 관련 통계 및 설문 조사에서 파악하기 힘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청년 연구자문단을 운영하였다. 지역을 고려하여 농 촌 청년 50명, 도시 청년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간담회 및 일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부속 보고서에서는 청년 연구자문단을 대상 으로 5개 권역별 지역 순회 간담회와 여성 청년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를 그대로 담았다.1)

**〈표 1-1〉**면담 조사(간담회) 진행 순서

소요시간		내 용
20'	연구진 발표	- 연구 추진 의도 및 연구 중간 결과 - 간담회 목적 소개 및 논의할 사항
20'	청년	- 연구 의도 및 중간 결과에 대한 소감
40'	의견	- 농촌 생활 실태와 요구
40'	청취	- 청년이 바라는 농촌의 모습과 청년의 역할

자료: 저자 작성.

<sup>1)</sup> 간담회 결과의 주요 내용은 본보고서 부록 4에 제시하였다.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간담회를 녹음하였고 녹취전사 후 가독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윤문 작업을 거쳤다. 참석자 표기는 연구자 1, 연구자 2, 참가자 1, 참가자 2와 같이 표기하였고, 참가자 번호는 간담회 일정 순서 및 발언 순서대로 매겼다. 참석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지역명, 단체명, 사람 이름 등은 모두 기호로 표시하였다 (표 1-2).

⟨표 1-2⟩ 면담 조사 순서 및 참가자 표기

구분		간담회 일시	참석자 표기	
	전북·전남	2022. 7. 18.	참가자 1 ~ 참가자 8 (8명)	
노초 체크	경북·경남	2022. 7. 26.	참가자 9 ~ 참가자 17 (9명)	
농촌 청년	경기·강원	2022. 8. 2.	참가자 18 ~ 참가자 19 (2명)	
	충북·충남	2022. 8. 9.	참가자 26 ~ 참가자 32 (7명)	
도시 청년 서울경기 2022. 8. 3.		참가자 20 ~ 참가자 25 (5명)		
청년 여성		2022. 8. 17.	참가자 33 ~ 참가자 41 (9명)	

자료: 저자 작성.

## 제2장

# 전북·전남 지역 청년 조사

# 전북·전남 지역 청년 조사

연구자 1 :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연구 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농업인 관련한 연구는 많지만 농업 이외 분야 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청년 중에서도 한 95%가 비농업 부분에 종사하는 청년들이고 그런 청년들이, 농업 이외의 다양한 분야 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농촌에 있어야지 농촌도 풍요로워지고 여러 가 지 교류의 장도 많아지고, 농사만 짓는 사람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도 많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농촌이라는 것이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농촌의 청년들에 대한 정 착 지원과 관련한 그런 연구를, 기존에 이제 청년 관련 정책들은 많았 는데 농촌 청년들의 생활, 일자리, 주거, 문화,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방 면에서의 그런 정책들은 거의 그냥 도시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까 농촌의 청년정책이 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 서 저희가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현장 청년들의, 저희가 한 60여 명 선 정해서 자문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 2년 동안 그때그때 서면으로도 자료를 요청드리고 오늘처럼 이제 지역별로 간담회를 하

게 되는데 지역 간담회를 우선 전남·북을 먼저 하고 경남·북. 강원·경기 지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제 가단하게 저희 연구 결과 중에서 각종 국가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 를 통해서 농촌 청년들이 도시 청년하고 비교했을 때 대략 어떻더라 이 런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조사한 '청년들이 바라는 농촌'에 대한 조 사 결과를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 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참가자 1: NH군에서 축산업과 수도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2: 미니 밤호박이 품목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건..

참가자 1: 밤호박은 부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2 : 예, 저도 NH군에서 왔고요. 저는 이제 부모님은 축산업 하시고 저는 협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받으셨나요?

참가자 2 : 네.

연구자 1:1번 선생님도 받으셨어요?

참가자 1: 받았는데 지원 기간은 끝났어요.

참가자 6: 저는 JK시에서 왔고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1: 부부가 창농을 하신 경우네요.

참가자 6: 네. 부부농이에요.

참가자 7: 저는 다육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구자 1: 다육식물,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참가자 7 : 선인장이요.

참가자 8: 저도 IK시에서 왔고 파프리카랑 토마토 농사하고 있어요.

참가자 4: JY군에서 왔고요.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참가자 5 : 안녕하세요. 저도 IY군에서 왔고요. 저는 귀촌한 친구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요.

참가자 3: 저는 YB군에서 왔고요. 사슴을 사육 중이고 받작물하고 있습니다.

[연구내용 발표 - 생략]

연구자 1: 내용이 많아서 잘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참가자 1 : 저는 원래 시골에 살기는 했지만 강원도 SJ에서 살다가 17년도에 00으 로 내려왔거든요. 부모님은 아직 SI에 계시고 저만 내려왔는데 막상 내 려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살기에는 좀 부족한 시설도 있고 특히 제가 최근 들어서 면 소재지 쪽에다가 집을 마련해서 한 번 살아 보고자 집을 알아봤는데 막상 그 지역에 살고 있어도 빈집을 찾기가 힘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조차 집을 구하기가 힘 든데 외부에서 청년들이 들어오면 거주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가장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먹고 살기에는 제가 살아 보니까 청년들이 살기에 무궁무진한데 가장 큰 문제는 주거 같아요.

연구자 1: 먹고 살기 무궁무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가자 1 : 예를 들어 드론 방제도 있고요. 외국인 분들도 많이 있어도 외국인 일 손이 많이 딸리잖아요. 힘든 거를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연구자 1 : 외국인들 있어도 못 구하는 걸 이제 본인들이 그러니까 소일거리로 그때그때 할 수도 있고..

참가자 1: 3년 전에 드론 자격증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게 있어서 3년 전에 자격 증을 따서 작년에 처음으로 드론을 사서 드론 방제를 시작했는데 막상 날려보니까 기계값 한두 달 안에 나오고 또 작년에 운이 좋아서 한 순 이익으로 다 떼고 3천만 원도..

연구자 1:이게 얼마나 합니까?

참가자 1: 기계값이 2,500만 원요.

연구자 1: 워낙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또 NH 지역이 농지 규모가 또 넓고..

참가자 1 : 맨 처음에 드론 사려고 할 때는 주변 어르신들이 미쳤냐고 농사도 많지 않은 애가 갑자기 드론을 산다 하니까 "드론으로 약이 되겠냐"고 그런 말도 하시고 직접 날리는 거를 못 보셔서 "네가 잘하겠냐" 그런 말도 하셨는데 지금은 잘 샀다고 하시죠.

연구자 1 : 약 뿌리는 거는 이걸로 다 가능한 거죠?

참가자 1: 비료도 됩니다.

참가자 2: 저는 귀농한 지 12년 되었고요. 저 때는 청창농(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없었고 후계자가 있었는데, 후계자를 받았고요. 아까 발 표하신 내용 중에 청년이 바라는 20년 후 생계 활동에 보시면 안정적 인 소득과 평균 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을 하다 보면 한 번에 돈이 나오고 목돈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월 단위로 꾸준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소득을 관리하 는 소양, 능력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자기 역량을 개발을 하고, 청 년들이 이제 막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16년도 17년도에 4H 회장을 했을 때는 저희 YB군의 회원이 30명 정도였어요. 근데 20년 도 정도 때부터는 엄청 많은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회원들 의 가장 큰 고민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소득이에요. 소득 사업을 잘. 꾸준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 연구자 1: 거기서는 아까 얘기한 게 일거리 많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보다는 일 거리가 많다는데 그 소득 측면에서 이제 뭔가 그래도 나름 다 돌파구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거 아닐까요?
- 참가자 2 :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에 질문을 주셨던 게 사슴이 주 사업 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처음에 제가 귀농할 때가 사슴이 주였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사슴만 사육하다 보니까 여가 시간이 많이 남았었 어요. 쉬는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이제 시간이 5 년, 10년 되다 보니까 밭들이 이제 이렇게 주위에서 들어오게 되잖아 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지금 여 가 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소득은 많이 증가하더라요. 밭작물 하더라도 예전에는 막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단일 품목 으로 쭉 꾸준하게 밀어서 마늘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만 2천 평 정도 해서 2천, 4천 정도 벌었거든요. 그래서 단일 품목으로 꾸 준하게 하는 것도 여가 시간을 벌 수 있고 좀 쉬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 연구자 2 : 참가자 2 선생님은 꾸준한 소득을 위해서 밭작물을 나름 규모화를 하 신 거잖아요. 품목을 이렇게 딱 집약해가지고. 근데 그 주변에 그러면 다른 청년들도 그런 식으로 농업 경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농사 절차

대로 하고 다른 일거리 뭐 부업일거리를 하시나요?

- 참가자 2: 아까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도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버님 밑에서 이렇게 농사를 하는 청년들도 많아서 아직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계획을 못 짤 거예요. 아버님이 아예은퇴를 해버리시고 자기가 농장을 경영하면 계획을 가지고 이것저것할 수 있겠지만요.
- 참가자 3 : 저는 이제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후계농 자금을 받아서, 부모님 이 한 20년 전부터 수산업이랑 축산업을 같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 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같이 지내오면서 대학교 갔을 때도 농업 쪽으 로 가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농업 쪽으로 가서 이제 졸업하고 올해 처음 자금을 받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거를 샀는데 그 돈을 그것만 해서는 갚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그것만으로는 절대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하기는 힘들죠. 제가 16년도에 받았는데 지 금은 그때보다 거의 6천만 원을 더 줘야 그 정도의 땅을 살 수 있을 정 도로 그만큼 땅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 후계농이 3억을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3억도 실질적으로는 농촌에서는 큰돈이 아니에 요. 이제 실적으로 소득을 벌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주거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올해 결혼을 해서 읍에다가 집을 구했는데 생각보다 도시는 그래도 전세나 이런 것들이 물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시골 은 거의 없어요. 월세 전환된 것들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유입이 안 되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제 아파트값도 그전에 오르지 않았 던 데도 오른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거 같은 경우도 실질 적으로는 제가 농촌에 살더라도 그만큼 대출도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은 전세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도움

없이는 이제 청년들이 결혼해서 집 구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 고 제가 일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주 40시간, 일반인들처럼 일하는 회 사처럼 8시간,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최대한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연구자 2: 벼농사를요?

참가자 3 : 벼농사는 이제 농업이 좀 그런 게 심하니까 이제 근데 축산업도 많이. 하고 있어서 벼농사는 좀..

연구자 2: 벼농사는 부차적이고 지금 부모님 하시는 축산을 같이 하시는 게 지금 훨씬 더 주된 거네요.

참가자 3 : 네

연구자 2: 축산업은 출퇴근 개념이 생길 수 있나요?

참가자 3 : 있죠. 제가 지금 읍에서 출퇴근하는데 아침 6시 반에 출근하거든요. 그 러면 이제 도착하면 7시쯤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과를 시작하고 퇴 근하면 6시. 7시 그쯤에...

연구자 2: 노동 시간이 그래도 기네요.

참가자 3 : 그데 중간에 쉬어요. 계속 일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만큼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가자 4 : 저는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사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 이쪽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ZY읍인데 여기 는 솔직히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로 컬푸드라는 하나로마트 같은 느낌인데 거기로 납품을 하시니까 그 공 간에서 이제 모든 농민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DB읍 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고 하는데 DB읍에 가면 후계농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ZY는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DB에 있는 후계농 분들은 로컬푸드 안에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이렇게 세 분처럼 어떤 문화, 그 연락처도 얻고 하면서 만들 수 있는데 ZY 같은 경우에는 후계농이 들어온다 하면 아들 어디서 사업 실패해서 들어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까지도 보통읍 소재지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주실 수 없나 그거랑, 영화를 보고 싶으면 30~40분은 아마 차를 타고 나와야하는 상황이라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 다끝나니까 가을에는 논단 말이죠. 뭐할게 딱히, 다른 밭작물이나 그런 거에이렇게 치중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마을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영화를 틀어준다든지 그런 요소를 좀 해주실 수도 있지 않나..

연구자 1: 그런 걸로 충족이 되나요?

참가자 4: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근데 저희가 작게 영화관이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보통 영화 시작 시간이 7시 반이 최고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농사짓는 분들은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시잖 아요. 근데 이게 해 떨어지면 7시, 8시인데 어떻게 문화생활을 하시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10시, 11시까지 하든지 그렇게 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연구자 2: JY군이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근데 ZY읍에 청년들이 많이 안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새롭네요. 그 기반이 그래도 없는 게 아닌데 농사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없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참가자 4: ZY읍에는 제가 보기로는 거의 없고 근데 DB읍에는 되게 많아요. 생강을 많이 하시고 밭작물을 되게 많이 하세요. 밭작물이 가지 요만큼, 고

추 요만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 들. 딸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까운데 혁신도시에 농수산대학교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이제 자손들을 자식들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그걸 이어서 후계농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 고요.

참가자 5 : 그러니까 저도 JY에서 왔는데 참가자 4번 선생님은 토박이시고 저는 귀촌한 케이스라서 서로의 커뮤니티가 많이 달라요. 정보를 접하는 것 도 많이 다르고요. 저도 농촌 청년들의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고 주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귀촌하는, 저와 비슷한 케이스들이 좀 많고 지 금 청년공간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로컬푸드를 제가 처음에 와 서 봤을 때 되게 신기한 개념이긴 했는데요. 잘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많이 변화 보시고 물어도 보시는데 근데 결국 로 컬푸드도 어떤 면에서는 고이게 된다고 느껴지는 게 새로 신규로 들어 오 친구들이 로컬푸드에 등록해서 그걸 납품하기가 좀 힘든 구조예요. 로컬푸드가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당시에 등록하신 분들은 고령의 할 머니들이 오고, 작게 시작하자는 취지에 완전히 그거였지만 거기서도 이제 기득권이 생기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또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 서 좀 후계농 친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는 비율이 많고 귀농으로 완주에 와서 로컬푸드에 처음 들어가기에는 이제 점점 문이 좁아지고. 주거같은 부분은 청년정책팀에서 주거를 좀 잘 해놓은 부분 이 있어요. 그 셰어하우스 정책이 워낙 잘 돼 있어서 IY는 지금 최대 3 년간 월세 5만 원이면 셰어하우스 지원을 해주고 보증금이 없고 얼마 까지 살아야 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JY로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와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다음으로 저희가 가는 데가 LH 행복주택 을 많이 가요. 지역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많지가 않

아서 지금 LH 행복주택에, LS읍이랑 DB읍 사이에 BS라는 지구에 그 게 하나가 있어서 거의 IY군의 젊은 친구는 거기 다 살고 있는. 많이 살 고 있고. 그런데도 제가 이주민으로서 느끼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보는 관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달라요. 있는 것들 좀 고맙고 그 부족함을 얘기 하기보다는 이 존재 자체가 고마운 상황이 많아서 지역이 IY가 아무래도 처음에 들어오기 에 되게 진입 장벽이 낮다고 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저는 다른 지역 을 비교하고 알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요즘 귀촌하실 분들이 저희 공 간에 자주 많이 와서 어떻게 귀촌하게 됐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 요. 그럼 그분들이 나름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나 행 동이나. 근데 JY가 잘 돼 있다고 한 건 저는 오히려 그분들 통해서 알게 된 게 있고요. 셰어하우스 덕분에 아무래도 좀 쉽게 올 수 있었던 것 같 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SG 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분을 나가야 돼요. 전주시로 나가서 뭔가 영화를 본다거나 근데 읍내에 SG미디어센터라고 있어 요. 여기도 위탁 기관이고 사실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화 상영 늘 하고 있고 농번기 시즌에 맞춰서 대관이나 이런 것도 하 고 있는데, 문화 기관들이 완전히 없지 않거든요. 이게 오히려 지원은 더 빵빵하게 해주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운영이 홍보가 그 런 부분이 아쉬운 점은 위탁 공간의 고충도 알기 때문에 말하기는 했 는데.. 그리고 일자리를 바라는 기준이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관점이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지역을 선택해서 온 친구들은 "우와, 많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친구들은 "없다"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로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냐에 따라 서 부족하다 충분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참가자 6: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JK시로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저도 저희 집

이 축산업을 하고 계셔 가지고 농업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감이 없어서 축산업하는 남자를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크게 개의치 않으 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농사꾼들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면 고생한다 고. 근데 저희 집은 그러지 않아서 왔는데 물론 이제 저희도 남편이랑 저랑 소를 키우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일거리가 많지는 않다. 축산을 한다고 하면 일 되게 바쁘겠다 생각하지만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 그 중간에 비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바로 축사 앞에 살아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 요. 거의 집에 20시간씩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거주지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고민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축산물이나 거의 밭작 물 농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집이 대부분 다 그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이 몇 평에 방이 몇 개가 있고 화장실이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좀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주변 환경. 집을 짓기에는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집 옆에다 지어야 될지 축사가 좀 먼 곳이 있더라도 그쪽에 집을 지어야 될지, 근데 집을 짓고 싶어도 그쪽에 땅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발표 내용에 단독주택. 전원주택 이 렇게 희망하는 게 나왔는데 이런 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 냐하면 이제 시내 나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가 매매 가격이 3억 이면 전세가 2억 8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전세가 아니고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또 집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선생 님이 말씀했다시피 농사꾼들은 농업인들이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다 했던 말들이 저희가 큰 목돈이 나오지 한 달에 한 번 월급처럼 돈이 나오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또 목돈이 나오면 열두 달을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써야된단 말이에요.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간에 나가서 부수입을 하자니 청창농은 4대보험에 가입되면 안 되고 좀 제약이 많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

게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면 안 되는 제한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땅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저도 면에서 시로 나가려 고 하는 이유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이 필요하니까요. 맨 날 집에서 풀, 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정말 유아기 때만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말을 하니까 놀이터도 엄청 가까운 데 가 려고 해도 20분 정도 나가야 하고 그리고 키즈 카페 가려고 해도 30분 을 나가야 되고 이제 좀 아이들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도 30분 나가야 되고 제가 이제 아기를 학원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되 게 어렵고 또 저도 이제 저희 친구들이지만 여자가 원하는 문화생활이 있고 남자가 원하는 문화생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해 서 나가려면 또 전주로 광주로 대전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어 렵죠. 그렇다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 가지고 멀리 간다 거나 뭘 한다거나 요리를 배운다거나 쿠키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없으니까 농한기 때 저희가 이런 하고 싶은 걸 해야 또 그 힘을 원천 삼아서 또 농번기 때 일을 하는 건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 보 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연구자 2: 지금 그것 때문에 모임을 만드신 거죠?

참가자 6: 그렇죠.

연구자 2 : 충족이 좀 나름 되세요?

참가자 6 :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다 잘 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기 는 한데 물론 저도 결혼을 안 하고 제가 창업을 하고 했었으면 지금도 엄청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좀 많이 자리를 많이 잡아 놓은 상태에서 제가 들어간 것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이 에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계발을 하고

싶은 거죠. 운동이라든가 영화를 본다거나 테니스를 친다거나 남들이 뭐 하면 나도 하고 싶은데 꼭 촌에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맞는 친구들 끼리 "그래,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이 촌에서"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에서도 맛있는 거 먹고 또 나가서 쿠키 클래스도 다니고 떡도 만들어 다니고 같이 운동도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저 혼자서 가기에는 되게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 같이 하니까 뭔가 용기가 생 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끼리.

연구자 2: 오늘도 그 문화 활동 차원에서 오신 거예요?

참가자 6 : 제가 이렇게 왔는데 이 친구들도 다 농촌 청년들이잖아요. 내가 이런 곳에 오게 됐는데 우리가 언제 이런데 와보겠나 왜냐하면 보는 것도 경험이고 이렇게 와보는 것도 습관이 들어야 알게 되고 얼굴도 알게 되고 많은 선생님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게 되게 큰 자산이고 경험 이라고 생각을 해서 꼬셨죠.

참가자 7 : 저는 이제 토박이여서 어릴 때부터 농촌에서 살았는데 앞에 언니가 한 말도 똑같이 부모님께서 저의 교육 때문에 학교를 다 시내로 보내셨거 든요. 그래서 농사는 JK에서 짓고 있는데 지금 사는 곳은 전주에서 살 고 있어요. 부모님은 농장 옆에 진짜 바로 차로 5분에 있는 주택에서 사시고 저도 이제 거기서 살게 되면은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데도 그런 남는 시간에 문화생활 때문에 현재 전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부모 님도 이제 도시로 이사를 하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 는 것처럼 진짜 단독주택이 장점이 되게 많아요. 개인적이고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조용하고 여유롭기는 한데 그런 문화생활이 너무 없다 보 니까 이게 도심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1: 전주에서 그럼 IK까지 부모님 농사 같은 걸 도와주려고 왔다 갔다 하시 는 거예요?

참가자 7 : 매일 출퇴근해요.

참가자 8 : 아까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청년 여성농업인의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할 일이 없거든요. 트랙터를 탈 수도 없고 드론을 날릴 수 도 없고 모내기를 갈 수도 없고 여성농업인이 있다고 볼 때 저희는 할 일이 없고 정말 저희 농장에서 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 서는 솔직히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진짜 저희가 나가서 비수기 때 나가 서 돈을 다른 데서 조금 벌려고 하면 이런 청창농이나 후계농 같은 경 우는 보험 드는 것 때문에 제약이 상당히 많고, 이런 논 앞에 논 사이에 저희 농장이 있지만 cctv 뭐 치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중간에 저희가 뒤통수를 맞아서 쓰러져도 저희를 찾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런 것 들이 사실 여성분들은 시골에 살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전주시에 살다가 이런 시골에 사는 거 처음 가봤는데 논, 밭 그런 거 저는 안 좋 아해서 뭔가를 드는 것도 힘들어요. 삽질 그런 것도 일이니까 하는데 매일 하면 그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매일 그런 거 하다가 그것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 스트레스고 그런 거를 풀 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집 앞 에는 논밖에 없고 그래서 전주에 나가서 사는데, 저는 사업자를 내서 대출이 됐거든요. 전주에 아파트를 마련을 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저 는 시골보다는 차라리 그냥 여성분들은 도시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문화 생활이 좋고 치안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1: 사업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참가자 8 : 네. 그거는 또 면세 사업자로 따로 들어가서 농업경영체하고 사업자를 따로 냈어요.

연구자 1: 그러면 대출이 된다?

참가자 8 : 네.

연구자 1: 저희 조사 결과에 대해 각자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셨는데 그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이제 주거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IY처럼 셰어하우스나 LH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모델이 지금 제일 그나마 지역에서 제일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게 지역에 생기면 어떤 것 같아요?

연구자 2: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셰어하우스를 그러니 까 리모델링해서 기숙사처럼 해서 셰어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여성 전 용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시가 직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데 다른 청년정책 연계 전혀 없이 집만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고장이 나고 이렇게 있잖아요. 전기가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 르겠으니까 마을 주민하고도 관계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니까 공무 원한테 민원으로 수도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돼 가지 고 그 사업이 좀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수리 민 원 너무 넣고 이렇게 막 돼가지고 그 사업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더 라고요. 그 셰어하우스 정책이랑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진단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가자 5 : 그 정도로 없어질 거였으면 뭘 해도 다.. 왜냐면 IY도 그런 민원이 없진 않아요. 사실 주무관님이 다 다 가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걸 관 리해 주는 매니저분을 행정 기관으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근 데 민원을 보게 하면 무기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잠 깐 없는 기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담당 주무관이 다 처리를 해야 되 는데 근데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제가 있는 지금 청년 공간에서

공간지기 친구들이 지역 활동을 할 수 있게 촉진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활동가이잖아요. 연계를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뭐 형식적이다. 의 미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걸 아예 안 하고 그런 걸(주거공간 제공) 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 고 있고. IY는 조금 지역적으로 제가 살면서 특이하다 느끼는 게 사실 SG면이 되게 지역성이 좀 강한 동네예요. LS읍이나 BD읍이나 ZY면 이나 말할 것도 없고 분위기가 되게 다르거든요. SG 같은 경우에는 최 대한 지역 안에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른들이 품으려고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적응을 할 수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나 지역 그런 사람이 적 고 그런 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또 떠나가는 비율도 많고요. 셰어하우스도 그런 이제 많이 여자 셰어하우스가 문제가 돼서 남자 셰 어하우스로 바꾸기도 하고요.

- 연구자 2 :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게 여자들이 주택에 안전해야 된다 이거는 대충 감으로 공무원들이 또 알고 행동도 하는데 여자들만을 위한 주거 공간 정책을 하면 또 역차별이다 이래가지고 남자 집도 만들어야 되나 이러면서 의회에서도 맨날 그런 시비가 붙고 이런다고. 근데 주거 공 간을 그렇게 남녀를 좀 전용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 참가자 5 : 오히려 저희 동갑인 친구가 새로우 제안을 하나를 했어요. 저희도 셰어 하우스가 여성 전용, 남성 전용은 아닌데 동성끼리 그냥 이용을 하고 해서 건물은 남자 셰어하우스랑 여자 셰어하우스랑 섞여 있어요. 성별 은 같아야 되는 거죠. 같은 룸메이트가. 그거를 오늘 그냥 커플들끼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오 히려 커플들끼리 와서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좀 높으니까 그렇게 성

별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도 있고 저 는 이제 벌써 4년 차 되니까 조금 약간 꼰대가 되는지 그런 게 좀 걱정 이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없었으면 하는 친구들의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 연구자 2: 성별, 건물을 성별로 분리하거나 층을 성별로 분리하지 말고 그냥 커플 들이 같이 그런 거 아예 열어버리자..
- 참가자 5 :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예전에는 여성 남성 이렇게 하니까 부부인데 완주 에 와서 여자분은 여자 셰어하우스. 남자분은 남자 셰어하우스에 따로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사실 20대 친구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지 켜지지가 않아요. 그럴 거면 그냥 커플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 겠다 그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는 거 같아요.
- 연구자 1: US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여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은 폐교를 이렇게 해서 창업 공간과 셰어하우스 형태로 하는 것도 있는 데. 이걸 통해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후배들이 농촌에 들어올 때 좀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거 관련해서 의견 있으 면은..
- 참가자 6 : JK는 후계농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JY 같은 데는 그런 주거 관련 사업들이 진짜 많은데 IK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 도 없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주거할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 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참가자 4 : 저도 그 생각에 덧붙이자면 결국에는 농촌 마을에 A라는 마을에 들어 와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 그 출신들이 다시 와서 사는 게 대부분이거든 요. 창업농으로 농사를 지으며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드물 거란 말이죠. 아무래도 부모님 곁에 살고 싶게 하고만 있으니까. 그렇다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자니 너무 새로 지은 집이 아니고서 열악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집은 없지만 빈집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보니까 빈집이나 다른 집을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리모델링 사업하는 게 2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빈집터를 2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하기에는 저 같아도 그 안에는 못 살거든요. 그냥 싱크대나 벽지 그런 거 바꿔주는 정도인데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뼈대는 그대로 있지만 정말 집을 좀 새로 바꿔가지고 살게끔만 만들어주면 나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셰어를 해준다거나 전세가 있다거나 월세를 내준다고 하면 들어와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 연구자 1: 근데 원래 그런 정책 자금 아까 3억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걸로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뭘 좀 그거랑 합쳐서 이렇게 하라는 얘 기인데, 정책 이런 거 보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 본인의 기여분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바라보는 게 기회도 그렇고 자금도 그렇고 본인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나 본인의 어떤 기여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그런 부분 그런데 빈집 자체가 나지를 않는 측면이잖아요.
- 참가자 4: 제가 사는 동네는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하기에도 돈이 드니까 그대로 두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그냥 놔둬서 집값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 연구자 1: 빈집 그 왜 이렇게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 참가자 4 : 그런데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마을을 다 아니까 이장님이 "돌아가신 할머니 집이 있는데 다른 사

람들 쓸 수 있게 월 얼마씩 준대. 한 번 내놓을 생각이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금액만 합당하다면 그렇게 비싸게 쳐주지는 않겠지만 우 리 마을에 와서 산다는데 내가 그거 못 빌려주겠어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을 제가 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집을 사용을 안 하니까..

연구자 1: 그러니까 수리 자체도 이제 개인이 하기보다는

참가자 4: 개인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집 주인이라면은 어디서 뭐 해서 100% 지어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몇 퍼센트 보조해주 고 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해주려고 하면은 제가 그 집주인이라면 흔쾌히 할 것 같아요.

연구자 2: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착을, 귀농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귀향 을 목적으로 정착을 염두에 두면 빈집을 내가 돈을 내서 수리를 하고. 그 목돈을 일단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되지만 예 를 들면 그냥 직장을 구해서 내지는 학교 때문에 이주하는 청년들처럼 그 읍면에 내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목돈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잖 아요. 그러면 전세금을 투자를 한다는 건 나중에 집 옮길 때 그 돈을 갖 고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리모델링은 그냥 목돈을 일단 쓰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일거리나 활동을 위해서 읍면에 이주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참가자 4: 제 말은 들어온 사람이 인테리어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이나 마 을에서 공동으로 고쳐 쓴 다음에 월세로 할지 셰어를 할지 전세로 할지 그건 선택 사항인 거고, 양쪽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인테리어 비용을 다 내라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처럼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돈을 내고 그 집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거죠. 내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면이나 동네에서 도움을 줘서 같이 이제 와서 살게끔 그래서 살아서 괜찮으면 네가 이 집을 사든지 나가든지 빈집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 참가자 5: JY도 이거를 많이 하고 LH에서도 계속 집부터 사업하는 걸로 듣긴 했는데 실제로 선생님 말씀처럼 진짜 시골에 집을 안 내놓거든요. 빈집을 일단 안 내놓는 문제가 가장 크고 자식들에게 유산의, 부동산으로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 연구자 2: 서울 고시원 같은 것을 개조하는 정책 중에 사회주택 개념으로 소유주를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소유주에게 한 10년이면 10년 장기 임대로 공공이 임대를 하는 거죠. 대신에 그 임대 기간 동안에는 월세는 싸게 내놓고 공공이 그걸 개보수를 해가지고 10년간 낮은 월세로 사람들한 테 이렇게 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모델들을 갖고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소유주가 동의만 하시면..
- 참가자 5: 그거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처럼 셰어하우스 살다가 사실 셰어하우스가 3년이기는 하는데요. 3년까지 사는 사람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타인이랑 같이 산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가끔 성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가능성을 좀 실험을 해보는 정도이고 보통은 LH집을 사거나 그렇게 넘어가는데 저희가 LH 살면서 이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도권에 LH 그 규격화된 평형이 있거든요. 33, 36, 39, 40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게 지역이랑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짧게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나 사람들이 많은 곳은 공간이 작아도 내가 지원만할 수 있으면 일단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집이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공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LH에서도 되게

머리를 아파하는데 그 옆에 또 새로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 짓고 이래요. 그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지역은 그런 면 에서 오히려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죠. 평형이랑 좀 다르게 하 고. 1인 가구라 해서 작은 평형을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 요. 나의 생활 공간과 별개로 짐을 좀 넣을 수 있는 옷방이 하나라도 있 어야 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평형이 그래도 제일 집이 빨리 나갔어 요. 아마. 평형으로 따지면 한 11평 정도 되거든요. 39형이에요. LH 기준으로는. 근데 이게 서울이랑 지금 거의 다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오 히려 좀 정책적으로 달라지면 좋겠다. LH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전에 한 번 와서 얘기를 하다가 외관을 굉장히 다른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 요. 이제 중정형으로 집을 만든다던가 외관은 이제 지역에서도 다르 게 변신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 구조는 똑같아요. 실제로 거주하는 거 는 바깥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지역에 메리트 있는 주거가 되 어야 되고 LH는 어차피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부 분에서 변화를 주는 게 LH를 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좀 시 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책 쇼핑이랄까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불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청년 마을 사업이다 이런 걸 통해서 귀촌 친구 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데, 와서 이 지역에 본인들은 몇 주만 짧게 는 일주일 2주만 경험하고 가는 거지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 히 많은 마음을 내어줘야 하거든요. 그게 공적인 자금이 투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관광처럼 소비한다는 느낌이 그런 요 즘에 많이 들고 있어서. 근데 살아보기도 참 양면성이 있어서 그걸로 과연 얼마나 유입이 되는가도 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유입이 안 된다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건 또 분명히 아니긴 하거든요. 20대 초반 애 들한테 갑자기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지역에서 그 경험을 했다고 당장 내려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 차원에서는 좋은 거지만 지자

체에서도 너무 혈안이 돼서 사업을 따내려고 애들 모집하고 그런 것들이나, 정책을 너무 지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 친구들과 많이 시선이 다르다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연구자 1 : 혹시 주거 관련해서 인근에 혹시 폐교 같은 거 그런 거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참가자 1: 저는 이 주거라는 것은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 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살려면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돈이죠. 그런데 청년농업인들이 돈이 있을까요. 후계자도 후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10년 안에 그걸 다 갚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연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발생을 하고도 농장을 유지하다 보면 유지보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집을 주거라는 거를 지원을 해줄 때 가장 좋은 거는 농업인 만약에 청년농업인들이 그 집에 내려와서 영농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정책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체험하거나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진짜로 필요한 곳에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구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성 있다고...

연구자 1: 그건 제가 또 따로 올해 청년농업인 육성 종합계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치기간 지나면많게는 300만 원까지 매달 갚아가야 하기 때문에 융자할 때 본인이 감당할 수준의 것을 해야 되는 거고 너무 또 처음부터 크게 하면 안 되는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청년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에 새로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주거 대책이 아까 얘기했지만 주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제가 그전에 이제 농촌 폐교 연구를 했어요. 지

금은 면 단위 초등학교가 없어진 곳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폐교들 이 저는 이제 결국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 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무슨 가공 공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 러는데 청년들의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 이번 연 구에서 다루어보려고 하는데 학교만큼 좋은 터가 없어요. 지역마다 보 면 학교가 지진이든 뭐든 그런 거에서 제일 안전하고 홍수나 그런 것 도 그렇고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학교 조성할 때 주민들의 기부체납에 의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노작에 의해서 다 조성이 된 것이라서 농촌에 다시 청년들 통해서 뭐가 새롭게 부활하는 어떤 상징성 있는 장소로서 학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주 거 문제, 임시 주거 문제도 해결하면서 뭔가 본인들이 농업 이외에 다 양한 창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학교를 오히려. 개인 주택. 빈집을 하는 것보다 청년들도 교류를 하면서 거기 카페도 같이 해놓고 이런 형태로, 지금 폐교되어서 풀만 자라는 그런 데가 많은데 이런 걸 이제 교육부나 각 지역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 청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부처 간에 서로 협업이 잘 안 되는 게 크거든요. 당장 농사짓는 청년들이나 농사짓지 않는 청년들 간의 교류도 그렇고 청년들 교류의 장소, 창업 공간, 임시 주거 공간 이 런 것으로서 농촌 학교가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다. 농촌을 배우는 학 교이기도 하고 새로 본인이 배우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제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보는데 학교가 이런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 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참가자 3 : 그런데 학교가 확실히, 저희 시골에 있는 그 집 근처에도 최근에 폐교 가 되었거든요. 제가 그 초등학교를 30년 전에 다니고 공부하러 나왔 는데 폐교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 때가 63명이 전교생이었거든요. 근 데 저희가 가장 많은 학년이었는데 그때가 나가버리니까 이제 거의 한 40명, 30명 이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통합이 되면서 폐교가 됐는데 아직은 엄청 깨끗한 상태겠죠. 최근에 폐교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처음에 NH군 자체에서는 미술관 이런 식으로 미술관 도서관 이런 식으로 만들까 했는데 실제로 접근성이 안 좋거든요. 면 소재지도 아니고면 소재지에서 10분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있는 데가. 그래서 사실접근성 쪽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연구자 1: 그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죠.

참가자 2: 저도 빈집보다는 오히려 학교 쪽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가자 4: JY는 실제로 활용을 좀 하는 편이라서요. 사회적 경제 전환 신도시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걸 집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JY 안에서는 못 들었어요. 폐교는, 도시와는 다른 농촌만의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런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할 때도 생각도 다르긴 했어요. 왜냐면 리모델링이 저는 돈이 당연히적게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다 부수고 새로 올리면 더 싸게 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건물의 생활과 역사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했는데 돈도 안 되고 싼 방에 모든 것이 다 최악인데 그거를 리모델링한다고 되겠냐라는 친구들의 시선은 다양한 것 같은데 저는 차별성 있는 걸 활용하는 거여야지 정말 다 때려 부수고 도시처럼 한다면 그게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참가자 5 : 사실 교체를 한다고 해도 너무 조금 적고 그렇다고 에어컨을, 창문을 열면 여름에는 시원할 수 있지만 겨울 한겨울에는 전기장판을 깔고 난로 켜도 규모가 원룸이 아닌 이상 금방 온도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오

들오들 떨고 춥고 이걸 겪어보면 이 돈이면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열 심히 돈 벌어서 나가 살겠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수원에 있던 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도 엄청 오래됐는지 겨울에 난방 켜줘도 전기장판을 깔고 자도 정말 추웠거든요.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도 아니고 공동 화 장실이었는데 옆에 어떤 친구들 감기 걸리고 거의 겨울에는 감기 달고 살고 추워서 이거 수건 같은 걸로 막고 살아도 막 정말 춥거든요. 겨울 에는. 여름에는 또 엄청 덥거든요.

연구자 1: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제 어떻게 새로 리모델링 하느냐는 이제 아이디 어 문제죠. 그런 게 진짜 주거하기 어렵다라면 이제 그걸 또 보강을 해 야 되는 거고 근데 청년들의 임시 주거로서 개별 빈집들을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러고 지내다가 셰어하우스처럼 한 3년 이내로 지내 면서 지역을 좀 알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임대주택이든 어디를 이렇게 알아가는. 근데 학교말고도 인큐베이팅하는 공간으로서 일부 지역은 이제 농협 창고를, 고추로 유명한 청양에 그냥 창고에 이렇게 청년 창 업 공간하고 카페 같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시설이 열악하기는 학교보 다 창고는 더하죠. 근데 그걸 엄청나게 또 안에 투자를 해서 하면 또 달 라요.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관련 활동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 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학교라는 게 운동장을 활용할 여지도 많고 지 역에서의 어떤 학교라는 상징성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 관 련해서 아주 답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 결국은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의 사례, 셰어하우스 개념, 빈집보다는 빈 공간들, 호 텔이나 학교. 상주의 폐교 활용이나 의성에서 하듯이 호텔 그런 걸 가 지고 청년들이 임시적으로 좀 생활하면서 지역을 알아보고 거기에 따 라 창업도 생각해 보고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이런 장소가 지금은 이제 당장은 필요하다. 이게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였고요. 그리 고 이제 문화적인 거를, JK에서 오신 우리 세 분은 동아리 뭔가 좀 매칭

되는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참가자 6: 저희 스스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생생 동아리라는 1년 기준으로 시에서 나오는 사업이 있거든요. 1년에 180만 원 정도나오는데 그걸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보조 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자 2: 아까 남성과 여성이 추구하는 문화생활이 조금 다르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대충 알겠는데 남자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아까 개인 시간 여가 이런 얘기하셨는데 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참가자 3: 저는 이제 지금 와이프는 이제 공무원이, 공무원이어서 이제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대도시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군이랑 광역시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별로라고 너무 문화생활도 없고 원하는 이제 학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제 애들 학원은 있지만 이런 다양한 여가에 관련된 학원들이,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댄스하고 이런 쪽이 많지 않다 보니까그런 쪽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NH에 최근에 작은 영화관이 생겼지만 그전에는 이제 목포시아니면 광주시로 가야 되는데 목포가 읍에서 40분 걸리고 광주가 1시간 20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영화 한편 보면 왕복 3시간을 잡고 한 편이 2시간짜리한 번 보려고 하면 5시간을 잡고 와야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연애할 때는 12시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일끝나고 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NH는점점 그래도 발전을 하긴 하는데..

연구자 1 : 작은 영화관 뭐라 그러나 이게 활용이 상당히 잘 되나 보네요.

참가자 3: 네. 저는 어제도 보고 왔거든요.

연구자 1 : 화면이 작지는 않죠?

참가자 3: 근데 관이 작기 때문에 굳이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연구자 1:이제 집에서 보는 거보다는 화면이 큰 거잖아요.

참가자 3: 집보다는 크죠. 꽉 차니까.

연구자 2: 영화관 규모는 몇 석 정도에요?

참가자 3: 두 관 있는데 하나가 50석 70석? 그렇게 작을 거예요. 많지 않아요.

연구자 2: 작은 영화관인데 관이 2개나 되네요.

참가자 3: 나름 최신 인기 있는 건 다 바로 해 주시니까 그래도 이제..

연구자 3 : 혹시 비용은?

참가자 3: 지금 6천 원인데 그래서 보통 CGV 이런데 보통 만 오천 원 그 정도 하잖아요. 둘이 보면 3만 원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많이 싸죠.

연구자 3: 연애하시기 전에 혼자 있으실 때 여가라는 것을 어떻게..

참가자 3 : 혼자 했을 때는 제가 pc방도 멀잖아요. 면이다 보니까 30분 나와야 되니까 pc방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컴퓨터를 사요. 그 돈이면 그냥 집에서 하겠다. 그런데 일 끝나면 사실 피곤해서 1~2시간 하면 피곤해서 자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가를 특별하게 즐기지 않았어요. 애들이랑 뭐 스포츠 배우고 싶으면 이제 탁구나 잠깐 치러가고 그 정도. 저는 특별하게 여가를 취미 그런 걸 별로 못 했어요.

연구자 2: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 참가자 3: 제 성격이 별로, 그렇게까지 신경쓰지 않았어요.
- 연구자 2: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개인 여가나 이런 개인 시간에 대한 욕구가...
- 참가자 2: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야외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산악자전거 같은 탔고요. 축산업만 할 때는 진짜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농업도 겸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영화 같은 거는 시내에 잘 가는 영화관이 있고요. YJ시로가도 20분이면 가니까 그런 거는 뭐..
- 연구자 1: 그러니까 인근에 20~30분 거리에, 청년들이 제일 살고자 하는 게 도시 근교 농촌이 제일 많은 이유가 이제 문화 인프라 그런 거죠.
- 참가자 2 : 처음에는 집 같은 경우도 처음 내려갔을 때는 축사 옆에 집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냥 아파트만 사니까 굳이 내가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 참가자 1 : 막 내려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여기서 학교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악기 다루는 거랑 너무 좋아해서 그 문화예술이나 국립도서관에서 하는 통기타 동아리, 하모니카 동아리 그런 데 들어가서 같이 활동도 하고 독서 모임에도 들어가서 독서모임을..
- 연구자 1: 지역에 하여간 있잖아요. 그런 모임이 있긴 다 있잖아요.
- 참가자 1: 그리고 한국화도 꾸준히 했었고 그리고 악기 색소폰도 다루고 있어서 그것도 하고 조기 축구나 배드민턴 동아리에도 가입도 해서 그것도 하 고 수영도 배우다가..
- 연구자 1: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읍 단위만 하더라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하기에 본인의 어떤 심리적 장벽이 있죠. 모르는 사람하

고 세대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를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신 거네요. 전혀 모르는 지역에 왔는데.

참가자 1 :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찾아보면 되거든요.

연구자 2: 그냥 무턱대고 문화회관 이런 데 가셔서 문의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참가자 1 : 그리고 또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자 2: 되게 적극적이셨구나.

참가자 1 : 자기 다 각자 하기 나름이에요. 즐기려고 하면 즐길 수 있고 또 너무 없 다고 문화생활이 없다고 하면 또 없을 수도 있고 각자가 바라보는 시선 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연구자 2: 근데 성별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남자들은 조금 야외에서 몸을 움직이는 종류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여가를 안 하고 개인 휴식을 많이 취한다거나 이런 방식인데 여성들이 추구하는 문화 생활 영역은 되게 다양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것들도 많고 자녀까지 생각을 하면 이게 진짜 문화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연구자 1 :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게 불편하면 인근 도시에 사는 게 제일 좋다 이 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농촌에서 어떤 한가로움을 즐기면서 하 려면 결국은 기존의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세대적 특성이 또 있어요. 기존 세대보다는 개인적이 고 그런 자기만의 어떤 작은 행복들을 추구하는 거가, 농촌에서의 삶 을 실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결국은 정책이 라고 하는 거는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장치 그리고 사회적 명분이 있는 뭔가에, 예를 들면 청년창업농 생활자금처럼 청년 들이 한 3년 정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기회를 엿볼 수 있게. 중 간에 이제 생활비 때문에 떠나지 않게 하자라는 게 이제 그런 취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받는 사람하고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농촌 관련해서는이제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200만 원씩한 2년간 받으면서 지역에서 창업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선발 방식이지만 그런 게 지금 농업 분야에 있었는데 농촌 분야의 그런 사업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임시적으로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일자리 사업 도움을 받으셨나요?

참가자 5 :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일자리 사업 통해서 너무 지역에 잘 정착한 어떻게 보면 모범 같은 케이스였는데요. 저 말고 그게 기관에서 각자 배당을 받잖아요, 두 명씩, 세 명씩? 받는데 그 사업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업체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상처받고 진짜 떠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나오기때문에 사업체에서는 손해 보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 고용해서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구조로 가버린다거나 교육도 할 수 있게 300만 원 개별로 그런 것도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JY에서 그걸 정확하게 다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도 일자리하는 친구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중간지원조직에 있으니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을 다 보내줬지만가 보면 어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교육에 전혀 참석을 못했어요. 휴가를 쓰고 가라 그러거나..

연구자 1: 그러니까 그 사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참가자 5 : 프로그램 관리 감독이 사실 더 필요한 거죠.

- 연구자 1: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건비만 지급하고 일만 하게 되는...
- 참가자 5 : 페널티가 없었거든요. 사업주가. 저는 패널티 같은 걸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없이는 그냥 2년간 200만 원 회사에 지원해주고 끝이 나 는 고용 지원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 연구자 1: 그런 하여간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어떨까요?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득, 창업, 취업 이런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 참가자 4 : 해주면 또 청년 입장에서는 들어오기가 쉽기는 할 거 같은데 머물지는 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지원을 받고 들어오는 연령대 자체가, 저처럼 이제 30대 초반이거나 20대 후반이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 초 년생이거나 24~26?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번 일 해볼까 정도이지 나이 먹으면.. 정책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해요. 그걸 운영하 는 그런 것까지 사실 이게 정책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 에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없듯이 그걸 통해서 분명히 온 친구들이 있 는 거는 JY 사례에서는 확실히 관리하고 그런 거는 어떤 지역의 역할 이나..
- 연구자 1 :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지역에서 주거 정책도 하고 뭐 해서 그걸 뭔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 특히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 이 부족하죠. 중앙정부보다는 결국은 지역에서 청년을 받아낼 수 있는 정책역량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농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농지 일단 정책자금 받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지자체의 정책역량,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 이런 것들을 끌 어낼 수 있는,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이 이제 순환 보직을 하거든요. 그

래서 2~3년 있다가 다른 데 가고 공무원이 찾아온 사람보다 더 몰라.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생겨나는 게. 민간의 중간지 원조직을 만들어서 전담 인력들을 배치해서 하려는데 그분들 자체가 또 너무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문성 있게 청년들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 지역에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스템이 없는 게 제일 커요. 어떻게 보면 벌써 한 2시간 정도 다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 는 내년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 주제에 대해서 잠깐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추후에 하여간 오늘을 시초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부탁드리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정책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자 2 : 질문이 있는데. 농촌 청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되게 없는 동네에 가서 불쌍하고 힘들게 산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뭔가 정책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도 움이 많이 필요한 청년 집단 혹은 도시에서 실패한 루저 집단 이런 부 정적인 이미지가 한 쪽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되게 새로운 인간들이 다. 그냥 노멀하게 대학 졸업해서 도시에서 회사 생활하고 좀 더 승진 도 바라고 이렇게 살지 않고 저렇게 저런 삶을 사는 독특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신인류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그려지길 원하세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를 어떻 게 설명하고 싶으실까?
- 참가자 4 : 신인류라고 보여지고 싶기는 한데 저는 신인류보다는 신인류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주도적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을 행할 수 있는 에 너지가 잔뜩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저희 농촌 청년이라고 하 면 신생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알려고 갓 태어

난 것처럼 옆에서 뭔가 많이 지원도 필요하고 이 친구들이 어떠한 이 렇게 걸으려고 하는 목표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니 까 그 옆에 부모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

연구자 1: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참가자 8 : 약간 저는 (농산물)판매하는 데 있다 보니까 보시는 부들마다 약간 다 른 것 같아요. 농사짓는 분들은 여자가 팔고 있으니까 이런 거 팔지 말 고 시집이나 잘 가라 이런 거 돈이 얼마나 되냐 하고 계시고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넓은 땅에서 이 정도 수입이면은 너무 노후자금으 로 열심히 살 수 있겠다라고 하시고 이렇게 완전 의견이 갈라져요.

연구자 1: 옛날에 이제 농촌에 살던 분들 다수는 이제 최근에 귀농하신 분들은 좀 다른데 결국은 이제 떠나지 못해서 남았다가 기회를 찾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부모. 여러 형제 중 에 한 명이 남아야 했던 상황이나 본인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벗어나지 못한, 기회를 찾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확실히 지금 청년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남는 측면이 많다고, 지금은 본인 선택에 의해서 충분히 떠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근데 선택에 의해서 남는다라는 건 확실히. 외국에서도 청년들이 농촌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농업 도 그렇고 농촌 분야도 그렇고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거든요. 최근 에 여러 도시에서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이런 개별화된 사회, 이렇게 밀집된 사회에서 뭔가 좀 해방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사회 현상으로 표 출되는데, 그게 워라밸 그런 이슈로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귀농 귀촌 이 계속 늘고 있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에 의한 거는 다른 측면이 있다. 특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더 그런 인식이 강할 걸 로 보는데 향후 농촌에 살면서 뭘 이루고 싶다. 그런 거 하나씩만 얘기

하고 마무리하죠.

참가자 7: 저는 다 이룬 거 같은데 저는 이제 이대로만..

연구자 1: 지금 이대로의 어떤 게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말씀

참가자 8: 저는 부모님께서 같이 하고 계시는데 부모님이랑 작물을 다르게 해서 시 장을 안 거치고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런 유통 경로를 다 만들고 싶어요.

연구자 1: 지금 이런 네이버나 이런 데 혹시..

참가자 8 : 하는데 거기로 나가는 물량이 적으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짜잘짜잘하게 그래서 아예 크게..

연구자 1: 그러니까 지금 별도의 본인 농가 브랜드를 가지고 좀 규모 있게 농산물 유통을 하고 싶은 거네요.

참가자 6: 저도 지금 삶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어서 욕심을 더 부린다면 축사를 더 늘리고 싶어요. 근데 마을 주민들과 화합을 해서 공동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깨졌어요. 내가 잘 살아서 마을에 기부를 해주는 게어르신도 좋고 나도 좋고.. 어쨌거나 지역으로 와서 되게 기회나 여러가지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살면서 되게 많이 해요. 아마도 글쎄요,도시에 있었으면 이렇게 이런 자리에 굳이 제가 필요 없으셨을 거고 그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두 개가 다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친구들이 소위 그냥 잘 가는 엘리트 코스로 간 친구들이 많아서 그걸못 가면 제가 너무 이상해지는 곳이에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농촌에서 저는 좀 기회를 찾은 것 같고 그게 좀 저는 제 삶에 만족하는 법을 농촌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고마움이 큰 것 같아요. 뭔가를 해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원래가 아니고계속 내가 이 동네에서 살 수 있는 이게 뭘까 그런 거를 찾고 있고. 둘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실패했는데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는 거는 오히 려 삶에서 최고인 거잖아요. 누가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역으로 오는 친구들에게 기회나 가능성 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연구자 1: 지금 하여간 지금 생활에 만족을

참가자 6: 네. 저는 지금은 만족을 해요.

여구자 1: 확실히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 청년보다는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상 황에도 불구하고 생활 만족도는 더 높은

참가자 3 : 저는 와이프가 어딜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2박 3일 길게 시간을 빼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미 저도 이제 내려온 지가 한 5~6년 돼버리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빠져나오는 게 조금 어 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20년 후에 살고 싶은 방향이나 이 런 거 할 때도 주 40시간 말씀드린 게. 근로자를 쓰더라도 내가 소득을 조금 덜 받더라도 내가 한 번씩 이렇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었고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 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주 40시간 꼭 지키고 이제 따로 이제 휴가 기간을 만들어서 그때 이렇게 멀리 장기간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꼭 하 고 싶어요.

참가자 1 : 저는 처음 내려왔을 때 지금 계획했던 거는 60대까지는 공격적으로 가 자. 하고 싶은 거 해보고 본격적으로 이거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겠지만 60대까지는 공격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자 이게 생각이었고요. 그래 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가 12년 걸렸는데요. 지금 소농에는 만족하 고 있어요.

참가자 2: 저는 NH에 내려온 지는 22살에 내려와서 5년 차 정도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혈기 왕성해서 엄청 무조건 다 해봐야지라고 부딪히면서 해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거에 관련돼서 관심도 많고 관심이라면 관심이고 텃세라면 텃세인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이 없다 보니까 제 패턴에 맞춰서 벼농사도 짓고 그러려고 하는데, 최근에 대산농촌재단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한창 바쁠시기에 벼농사 시기에 갔다 왔는데 물론 할아버지가 계셔서 할아버지한테 소밥을 맡기고 제가 2주 동안 농장을 비웠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신 나갔나. 지금 바쁜 시기에 놀러가고.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를 조금 하고 있어서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을 찍을 시간에 농사 더 집중해서 그 농사 지어야지 뭐 하는 거냐" 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보면 잘 살아남고 싶어요.

(※ 마지막 십여 분가량 기술적 문제로 녹음이 되지 않음)

## 제3장

## 경북·경남 지역 청년 조사

## 경북·경남 지역 청년 조사

- 연구자 1 :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마상진이라고 합 니다. 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많이 담아서 정책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자 2: 저는 이순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잘 듣고 연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가자 9: 안녕하세요. 저는 귀촌 청년이고요. 원래 서울 토박이었는데 작년에 청년 지역 살아보기 사업이 요새 활성화되었는데 그거 때문에 SY군 으로 전입을 해서 중간지원조직에서 도농연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참가자 10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ZY시에서 지금 사과 농사를 짓고 있고 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과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 농수산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4H라는 지역의 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운이 좋게 시회장, 부회장까지 하고 중앙회장을 하려 고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사단법인 한

국농수산대 청년연합회라고 거기에서 지금 경북지부장도 맡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참일꾼이라는 농사짓는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를 또 하고 있고 그리고 ZY시의 청년협의체라는 협의체에서 대표를 또 하고 있고 또 제 자랑은 좀 많은데 겸사 겸사여러 가지 직책을 많이 맡고 있는데 오늘 경북 경남 모인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무난한 영광을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가자 11 :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GM에서 올해 8년 차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고요. 부모님이 일찍 귀농하셔서 귀농인의 자녀로 있다가 농촌이 싫어서 도시로 갔다가요, 다시 또 농촌의 비전을 보고 유치원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귀농을 한 케이스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지는 못했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해서 지금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이제 직전 회장이었고 지금은 고문을 맡고 있고요. 또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도 열심히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잘 들어는 주세요. 근데 듣기만 잘해 주셔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 이거 참여단 한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 이순미 박사님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청년의 목소리를 내보겠다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참가자 12: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CG에서 온 OOO라고 합니다. 현재 국토부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자아 실현 지역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과 관련된 생산 주체는 아니지만 소비 주체로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참가자 13: 안녕하세요. 경남 CG에서 온 OOO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농대 졸업하고 농사 조금 하다가 그때 이제 너무 어리기도 했고 청창농 받 아서 했지만 실패를 맛보고 관련된 이제 로컬푸드 쪽에서도 일을 하 다가 지금은 그냥 지역 축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 참가자 14: 안녕하세요. 저도 경남 CG에서 왔고요. 저는 이제 대구에서 초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을 하고 이제 부모님 귀촌이랑 직 장 때문에 이제 CG로 귀촌을 한 지 지금 10년 차. 그리고 직업은 로 컬푸드에서 지금 9년 차로 기획팀장으로 일을 했고 지금 현재는 육 아와 이제 지금 임신 중으로.. 반갑습니다.
- 참가자 15: 안녕하세요. HB군에서 온 OOO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다 HB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다가 중2 때부터는 중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왔고 대학교는 부산에서 나왔고, 원래는 지금은 HB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떡방앗간 가업을 물려받고 있고 온라인에서 'HB기 정'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가자 16: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JS에서 온 OOO이고요. 청년이 그린 협동조 합의 대표를 맡고 있고 다 같이 고추 농사랑 참깨 농사, 쌀 농사 짓고 있고 그리고 폐교를 임대하고 있어서 폐교에서 다양한 공간들을 이 용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카페라든지 아니면 공방, 도자기 공방, 곤 충 체험 전시실 이런 다양한 청년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농산물 판매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 참가자 17: 안녕하세요. 저도 경북 JS에서는 나름 유명한데 제 이름은 OOO이라 고 하는데요. 저는 경북 원래 고향은 경북 DY시고요. 제가 JS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은 충북 단양이었어요. 거기서 7년 정도 있다가 올해 JS로 넘어왔고요. 상주 문경 쪽에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많고 거

기 단체, 생활예술 공동체도 있고 해서 올해 새로운 어떤 도전을 위해서 단양 생활을 포기를 하고 JS로 왔고요. 개인적으로 충북 단양에서 4H 회원을 한 적이 있어서 10번 선생님이 그냥 되게 반가웠고요. 지금은 좀 저한테는 과도기 시기여서 여러 가지 왔다갔다 도전하는 시기가 되는 거고 아무튼 오늘 많은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 연구자 3: 같은 연구진에 있는 박영수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농촌이라든지 청년 문제 같은 경우는 마상진 박사님과 이순미 박사님 두 분이 사실은 전문가고 저는 그동안 연구원에서 산업 관련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처럼 활기 있는 젊으신 분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진행하면서 좋은 얘기 많이들으면 앞으로 제 일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 연구자 4: 안녕하세요. 연락드렸던 최재현 연구원입니다. 앞으로 또 연락드릴 텐데요. 오늘 회의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 되게 가감없이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또 기회를 통해서 더 알아봤으면좋겠습니다.
- 연구자 2: 지난주에 저희가 전남·북을 했는데 전남·북보다 훨씬 더 이력들이 다채로우세요. 제가 여러분의 살아온 생애 이력을 한 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막 생겨요. 저희가 농촌과 청년이라는 연구 과제로 만난 인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상진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저희가 농촌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같이 조망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연구내용 발표-생략]

- 연구자 2: 일단 한 번 쭉돌아가면서 발표 내용을 듣고 느낀 것도 좋고 오늘 이 자 리에 와서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셔 도 좋고 아니면 이 각각의 내용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생계나 주거나 이 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 참가자 9 : 조사해 주신 거 잘 봤고 이렇게까지 데이터가 제가 처음 혼자 이렇게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데이터가 모여서 거대한 담론처럼 나올 줄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되게 좋은 자료 같고요. 연구원이 총리실 산하 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정책적인 거대 담론적인 이런 총론을 정책을 만드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광역도 말고 아예 기초자치단체별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 각해서 이거 하시고 나서 가능하다면 기초지자체별 데이터를 뽑는 것 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촌 청년인구) 성비에서 남성이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새 제가 지금 도 농연계 그러니까 정착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정착을 하고 싶은 분들 의 성비를 보면 거의 여성이 70%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이게 왜인 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그런 신청률을 보면 대다수의 그런 귀농 귀촌 프로그램들에서 여성 비율이 거의 7 대 3 정도를 차지를 하더라고요.

연구자 1 :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참가자 9 : 제 생각에는 귀농귀촌은 20대 후반부터 30대. 그리고 40~50대는 청 년으로 구분하지 않으니까 20대 후반 30대. 40대 초반까지 하면은 남 자들은 일단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가 늦어지는데 이 게 여성들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사회생활에 좀 빨리 진입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에서 좀 도시에서 사회생활을 해보고 좀 어 느 정도 이거 귀촌을 내가 선택해도 되겠다 아니면은 귀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서 좀 선택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남성 들보다 귀촌을 선택하는 것이, 근데 사실 저도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게 직접 물어보거나 왜 여성이 많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 어서 이게 재밌는 주제라고만 생각했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 고 네..

연구자 1: 저희에게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연구자 2: 그 분석이 틀리지 않는 것 같고요. 노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최근에는 노동시장이 청년들에게 다 닫혀 있지만 특히 여성들한테는 더 진입 장벽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스펙이면 남자가 스펙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의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도시에서 여성이 취업을 하거나 기성세대처럼 사는 것이 과거보다, 남자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거나 다른 삶을 추구할수밖에 없는 어떤 물리적인 조건들이 여성들한테 훨씬 더 많다 이렇게진단을 하긴 해요.

참여자 10: 저는 일단 농촌 청년에 대한 연구원분들 이제 모이신다 해서 그리고 또 경남분들도 오시고, 근데 사실 같은 분야가 아니면 농업에도 여러 분야가 있고 그리고 또 단체가 또 여러 가지의 단체가 많기 때문에 오 히려 일단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청년의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제가 이제 원래 주민등록상으로 38살인데 호적상으로 이제 40, 내년이면 40이라서 거의 끝물이라서 청년에 대한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하고 나이 차이를 제가 얼핏 봐도 많아 보여요. 그래서 20대 생각과 30대 생각은 또 다르고 그리고 또 40대 생각

은 또 다르거든요. 사실 제가 20대 때 생각 못했던 걸 지금 후배님들 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선배님들이 얘기해 줬던 부분을 제가 이제 느 끼고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면 처음에 연구회 모임이고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들이 그 리고 박사님들이 많이 연구를 해 주신 부분을 저희는 토론을 좀 해봤 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왔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리턴으로 다시 농업에 들어왔죠.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여성 비율이 많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9 대 1입니다. 남 자가 9고 여자가 1이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 ZY가 예를 들면 지 금 SY는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소셜 네트워크에 잘 된 케이스예요 사실. 근데 지금 시군이나 아 니면 제주도도 잠깐 살이 있잖아요.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이런 체 험 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걸 보고 많이 오는 거지 사실 지역에 보면 귀농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ZY에도 엄청 크게 지어놨 어요. 거기에 진짜 귀농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오면 사실 청년들은 거 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 40. 50대분들이 생활하시다가 이제 진짜 귀농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90%예요. 근데 그분들이 정착하냐 절대 아닙니다. 오셨다가 그냥 가세요. 지원금만 받고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걸 못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들어갈 기회나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발 나이대별로 아니면 퍼센테이지를 줘라. 20대 30%, 30대 30%, 40대 30% 그리고 40~50대는 사실 50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마지막에 내려오시는 게 자기 고향으로 내려오 거든요. 그런 부분은 10%를 주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 속 이제 주기적으로 지역에 발전할 수 있고, 사실 자식을 생산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청년들이나 그리고 청소년

들한테도 이제 알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역 농촌에 사실 고 령화 문제죠. 이거는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 였어요. 그래서 타협을 해야 할 거는 저희가 청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의 농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이분들이 나가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일 단 경제적인 문제는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요. 사실 그래서 박사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자료를 취합해 보시겠 지만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단합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임 장소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생각이 생 기고 또 다른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모임 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모임의 자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역이 있 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청년들 마찬 가지예요. 지원해주는 단체만 지원이 되고 취약계층에는 사실 아예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잘 되고 있는 시군에 시군이 나 타 지역에 좋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공유를 해 주시면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 11 : 이야기할까요? 작년에 제가 이순미 박사님이랑 작년이었나 재작년이 었나 얘기했을 때는 청년 여성농업인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많이 충격받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힘든 얘기들, 안 좋은 얘기들, 부 정적인 얘기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현황하고 이 자료를 보기 전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겠다라고 편견을 갖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농촌 청년들이 그만큼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서 같은 농촌 청년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이제 경북도에서도 얘기하고 제가 청년여성 관련해서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통계적인 수치. 비율적인 수치로 봤을 때 와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여성의 입장에서 농촌은 청년여성 들의 비중이 정말 이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통계 자료는 주소지를 이제 농촌에다 두고 도시에서 취업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치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게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 분에서는 처음 들어봤어요. 여태까지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하면 항상 안쓰럽게 보고 너희가 힘든 건 뭐냐 항상 힘든 것만 물어보 셨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저희가 살고 싶어서 농촌을 선택했 는데 약간 피해자. 뭔가 약간 약자가 되어서 농촌에 온 것 같은 느낌 이 들었는데 이 통계결과를 보면서 일자리 만족도라든지 주거 환경 이라든지 주거 화경은 아니지만 주거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청년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면서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IS는 진짜 가깝더라고요. 정말 가까 운 데도 사실 오늘 처음 뵙고 했는데 10번, 14번 선생님 같은 경우에 는 아까 말씀하시기로 10년 넘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이 바 라는 농촌과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청년들이 농촌에 몇 년 정도 정착을 했는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월 200~300으로는 성 이 안 차거든요.

연구자 2: 지금 선생님 소득이?

참가자 11 : 아니 그게 아니라 청년이 바라는 생계 활동에서 월 200~300이 크게 나오는데 저는 월 1천은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이고 그렇 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 큰 글씨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농촌에서 정착한 연수나 그리 고 이제 함께 처해 있는 단계에 따라서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엄청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바라는 농촌'과 비교해 보면서 봤거 든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촌 에 8년 정도 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취업농이자 창업농이거든요. 부 모님 농장에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제 창업으로 따로 이제 농사도 짓고 6차 산업도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는 소득이 악정되지 않으면 농촌에서 살 수 없다. 라는 불안감이 1, 3, 5, 7, 9년 차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8년 차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저보다 연 차가 더 되신 분들은 충분히 또 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리틀 포레스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 리틀 포 레스트 영화 보면서 귀농귀촌 영화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 면 예쁜 영화라고 얘기하지 좀 뭔가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지금 소속되 어 있는 그런 연차 상황이랑은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농촌 청년 연구참여단의 구분도 몇 년 차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좀 구분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 씀드렸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 해 주셨던 여성 비율 같은 경우에 GM에는 같이살자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사업 6억 지원사업을 받아서 살아보기 프 로젝트를 굉장히 잘 해가지고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말 씀하신 것처럼 한 기수당 여성분들이 한 10분이시라면 남성분들이 2~3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 2~3분들 중에 한 두 분 정도는 20대시고 30대는 좀 많이 적으세요. 그 이유를 그때 한번 여쭤봤더니 심리적으 로 도시에서 30대 정도의 직장생활을 하시던 분이 한 달 살이, 6개월 살이를 하실 정도로 일을 그만두고 오시기에는 가정도 이루어야 하 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이 직장을 그만두고 쉬면서 이렇게 살아보기

를 하기가 굉장히 두려우시대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 우에 오히려 그런 용기를 조금 더 많이 내실 수 있는 부분들이. 결혼 에 대한 압박을.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상대적 으로 조금 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20대분들이 많은 케이스 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들이 농촌에 대해서 관심 을 가지고 좀 살아보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 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가자 12 : 사실 처음에 이거(연구자무단) 제안을 받았을 때요. 농촌과 청년이잖 아요. 농촌의 사전적 정의가 농업을 업으로 하거나 생계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 의 8~9할 이상은 농업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 촌과 청년이라는 두 키워드를 묶었을 때 이게 일반적인 기존의 그런 정책이나 제도 방향과는 조금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만 해도 한 10명 중에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고르고 골라서 잘 구 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저는 제 친구들 중에 농업하는 친구는 거의 없는데 제가 여기서는 소수자잖아요. 그 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상황과 이 연구 결과가 갭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일단 입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수치를 뽑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지역들을 대하시는 건 되게 납 득이 되는데요. 지금 지역 소멸이나 이런 것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지역의 특성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 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초기 연구고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지역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별도의 연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최근에 행안부 사업 중 에 청년마을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주축이세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결혼이나 이런 제도에서 조금 더 사고가 유연해진 것도 있겠지만 유리천장 같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정직원이 아니어서 계약직이어서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게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시골로 돌아오시는 여성분들 중에서는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꽤있어요. 사회에서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을 어떤 전문직을 가지시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프리랜서로 이제 물리적인 공간과 상관없이 별도로 일을 해낼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신 분들도 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정주 인구에 대한 집중이 되게 많이 있는데 관계인구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폭넓게집중적으로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연구자 1: 아니 이거 정책 토론회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웃음).

연구자 2: 한 가지만 여쭈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참가자 12: 저는 편협한 생각일 수 있는데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또 청년을 받아들이고 유입되는 그런 속도의 차이가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도 기존의 원주민들이 가져야 될 어떤 태도의 변화나 이런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폐쇄적인 지역이 있고 조금 더 확대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지역이 있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야 하고 농업의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농업이 특정화되어 있거나 시 골이지만 그 농업 외에도 다른 것들이 또 발달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성들을 조금 비교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가자 13: 저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 을 좀 정리를 해서 적어봤는데 제가 중학교 원래 경기도가 고향인데 중학교 때 여기로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빼고는 지금 쭉 살고 있는데 이제 농촌 청년도 보면 기존에 그 지 역에서 나고 자라서 또 나고 자랐으면서도 또 이제 그 지역에 남아 있 는 게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과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유입된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기반이 있 냐 없냐에 따라서 그게 큰 것 같아요. 나고 자랐어도 기반이 약하고 그러면 도시로 나가는 것 같고 기반이 있으면 그 환경이 좀 열악하더 라도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는 게 유리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제 사실 직장의 다양성이나 특히 소득이 약한, 괜찮은 직장을 구하기 힘드니까 시골에서는, 그쪽 으로 저는 나름 노력을 쭉 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는데도 계속 제가 결핍 을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그렇게 안정적인 수준은 아 니지만 그 점을 제가 최근에 도시에 가서 좀 느꼈던 면이 도시에 가니 까 사람의 다양성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봤을 때 인간의 종류가 다섯 종류 그 다섯 종류 외에 다른 사람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가면 다양한 인간의 종류가 있 으니까 나도 약간 그 속에서 내 종류를 찾아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나 만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거나 좀 그럴 수 있는데 시골을 보면 규 모가 되게 적고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되게 힘든 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동네에 있는 주류 문화, 청년도 똑같이 나이가 비슷해도 전혀 다르

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갑이고 나이가 비슷해도 청년이 단순히 그럼 저도 청년인데요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지역의 기득권이라 하나요? 그런 연관이 있는 청년들과 전혀 없는 신규 유입 청년들은 아예 삶의 모습이 다르고 당장 소득이 신규 유입 청년이 조금 더 많더라도 기반 이 있는 청년이 좀 덜 버는 거랑 삶의 질이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요 즘 고민이 많거든요.

연구자 1: 그 5가지 이외의 어떤 뭔가 여섯 번째 유형을 살고 싶은데..?

참가자 13 : 개인적으로는 여섯 번째도 아닌 것 같아요. 도시에 가면 나도 되게 오 히려 평범한 쪽에 속한다 그런 안정감? 근데 시골에 있으면 되게 이상 한.. 그렇죠. 이상한 것도, 일단 첫 번째로 부모가 그 지역 사람이 아 니면 일단 이방인이니까 그건 계속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새로 유입되는 청년이 많으면 또 새로운 그런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 렇게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리턴을 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그 지역에 있던 청년들이니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연구자 1: 하여간 청년들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그런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UN에서 이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사회 지표 중에 하나 가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과 이제 거버넌스인데 지금 농촌이 워낙 기득권이나 기성세대들의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획일화돼 있고 또 농경문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면, 왜냐하면 협동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제 농촌의 농 업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 거듭나려면 결국은 이제 그런 새로운 청년들 중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 들을 통해서 그런 변화의 동력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참가자 13 :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에 있는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이

조사가 됐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보면은 지금 그나마 있는 정책들 도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연이 있거나 활동하기에 유리한 측면들 쪽 으로 정책 효과나 혜택이 가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된 청 년들은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하나..

- 참가자 10: 근데 오히려 반대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사업이라든지 친화력 이 있는 사람은 더 금방 자기 걸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잘 흡수가 되면 아까 부모님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 저희 지역 같은 경 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우리 모임의 주축이 되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더 배제되는 상 황이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다섯 가지 중에 속하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 연구자 2: 예, 이게 어쨌든 정책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일 부에서는 역차별 얘기도 세대 간 역차별, 원주민 청년과 유입 청년 간 의 역차별 논란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따져볼 필요가, 그런데 따져봐 야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보는 걸로 하 고. 13번 선생님 말씀처럼 사람의 다양성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고 생 각하고 아까 성비를 본 이유도 그런 사람의 다양성 때문에 본 거고 중 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 참가자 14 : 앞에서 정책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 지고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귀촌해서 지냈던 10년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나이나 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 더라고요. 처음에 대구에서 여기 왔을 때는 맨날 우울해했어요. 약간 자발적으로 꿈이 있거나 이래서 온 게 아니라 부모님 귀촌이랑 대구 에서 직장생활하다 직장을 구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온 경우여서 왔었

는데 제일 놀랐던 거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그때 20대 후반일 때도 저를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니라 "아빠가 누구냐" 도시에서는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고 좀 배제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귀촌인에 대 해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고, 또 그냥 저 혼 자 느끼기에 패배의식같이 대구에서 살면서 왜 시골로 들어가냐 그 런 것도 약간 능력 없이 보는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 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제가 로컬푸드 일을 하면서 재미 있게 좀 좋게 지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그래서 그때는 여 기에 느꼈던 것처럼 여유라든지 급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 에서 300 사이 이런 그런 만족도 많이 했었고, 대구의 친구들이 부러 워할 만큼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CG가 정말 시골 같 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도시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대구랑 1 시간 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또 큰 아이가 지금 14개월이고. 제가 둘째 임신 중인데 그러니까 만족을 했었는데 또 너무 불편해지게 되더라고요. 당장 산후조리원도 없고 요. 출산도 대구에서 해야 되고 검진도 대구로 와야 되고 그리고 문화 센터도 없고요.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출산할 때 대구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교육욕심이 있고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정보나 아이를 키우 면서 느끼는 그런 불안감과 걱정이 지금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참가자 15: 이번 조사 결과 구체적인 거 보고 다음 달쯤에 HB에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려고 해요. 비영리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있는 부분이 되게 많고 HB에서는 다 처음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HB에서 산 지는 좀 됐었지만은 어릴 때 잠깐 살았고 이제 대부분의 청소년기, 청년기는 다 대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작 년 초부터 HB에 내려와서 저도 귀향을 한 건데 농촌에 산 거는 이제 1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HB라는 지역 이 딱 되게 대표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하고. 청년 비중은 되게 적고 이제 거기에 대부분 고령화가 굉장히 지속이 되는 지역인데 작 년에 이제 와서 본 거로는 원주민들의 그런 생각들, 인식이 되게 되게 보수적이세요.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걸 여기서는 시도 를 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보시고 다 안 좋게 생각을 하시고 안 좋게 또 얘기를 하시고 다 대부분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막상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그런 안 좋은 생각들. 주변 사람들한테서 인식도 다 안 좋게 생각을 하시고 네트워크가 되게 형 성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농촌 지역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조사는 따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사업 같은 걸 봐도 다른 지역은 지원 자격이 좀 되게 원만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HB는 지원 자격이 좀 까다롭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제 공 부도 많이 틀어진 상태이기도 하고..

연구자 1:한 예로 어떤 사업..

참가자 15 : 최근에 지금 제가 넣은 지원 사업 중에 청년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있 어요. 그 부분도 이제 청년 근로자를 채용을 해야지 그런 지원자격 중 에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건데 HB에는 그 런 청년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 명을 뽑는데도 2명이 다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3차, 4차 공고 까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걸리다 보니까 이제 지원 자격을 완화해서 줘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청년 비율도 적고 자격 조건도 좀 지역에 따라서 맞게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이 들고요. 앞에서 다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지금 어떻게 생각이 정리가 지금은 잘 안 돼 가지고.

연구자 2: 청년 모임이야기 좀 해주세요. 다음 달에 결성하신다고요?

참가자 15 : 워래 작년에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도 되게 없어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서 연락처를 따고 이제 모임을 하나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성비가 한 13명 중에서 2명이 남자고 대부분이 다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 작년부터 구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음 달에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이제 내년부터 문화예술 이런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자 1: 어떤 사업을 끼나요? 문체부?

참가자 15 : 아니요. 따로 끼지는 않고요. 지금 또 따로 플리마켓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행복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플리마켓을 진행 하고 있어서 저희 청년 비영리 단체가 그쪽에 협업해가지고 강사로 해서 이렇게 좀 협업을 할까 싶어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제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프로그 램이라든지 진로 방향 이런 것들 구성은 하고 있는 단계예요. 올해는 일단은 계획을 잡아놓고 내년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자 2 : 일단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서 그냥 임의단체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협동조합이나 법인 이런 게 아니고..

참가자 15 : 네. 모임 계기는 HB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예 없어요. 청소년도 그 렇고 저희 특히 청년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거의 없고 좀 뭘 즐기 고 싶으면 영주로 나가야 돼요. 영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대중교통

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안에서 저희 결국 목표는 청 년거리라든지 청년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여기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아니면은 HB에서 창업을 시도하시는 분들 한테도 정착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고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몇 분 더 계셔서 제가 선두에서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들 활동을 하시고 예술 활동 하시는 분도 계신 데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모임 끝나고 연락 주십시오.

- 연구자 2 : 일단 보니까 척박한 화경에서 내가 조직하고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 황이네요. 지금 15번 선생님하고 17번 선생님하고 두 분이 비슷한 출 발 선상에 계신 것 같아요. 나중에 교감을 좀 많이 하시고 원하시면 개 인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모임. 이 구성원들 연락처는 드려도 되 려나. 동의를 해주시면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참가자 16 :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저는 귀촌귀농한 지 5년 정도 됐고요. 사실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는 않았 고 와서 살다가 짓게 된 케이스인데 저도 이제 IS로 와서 지내면서 살 고 있지만 도시에서 다른 외부에서 청년들이 오면 다양한 일들을 많 이 하고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연구하시거나 이렇 게 하실 때 좀 뭔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하 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보면 진짜 본인의 특성. 특색이 라든지 장점이 있지 않는 이상 와서 정착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렇다고 농사로 뭔가 정착을 하기에는 일 단 자본이 없고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귀농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좋지 않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베이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있

지 않으면 잠깐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정착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운영도 해야 되고 와서 좀 더 경험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창농 지원을 받아서 잘 되는 것도 아 니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여기 농촌이나 시골에 와서 정착하거나 지내려면, 지낼 때 필요하거나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진짜 지역마다 저는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되게 다른 것 같 아요. 저는 IS 바로 옆에 GM이지만 IS랑 GM이 되게 다르거든요. 공 무원분들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얼마 전에 뭐 물어볼 게 있어서 JS에 또 전화하고 GM에도 전화를 했었는데 공무원분들 분위기가 엄청 다 르고 목소리들이, 똑같은 안건으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GM은 엄청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JS는 약간 이렇게 전화를 걸면 일단 너무 귀찮 고 짜증나고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로 이미 뭐든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나한테 물어보지마 약간 이 런 느낌이어서. 근데 GM에는 전화했을 때 뭐가 궁금하시구나 그렇 게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되게 다르다라고 느꼈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 었는데 GM이 예전부터 외부 유입 인구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래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 자체도 되게 다르고 또 마을 분위기도 다르고 또 뭔가 청년들도 생활이 너무 다르고 외부 에서 오는 사람들 생활이 너무 달라서 원래 지역민과 새로 들어온 사 람들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기도 하고 또 거기를 중간을 메워줄 단체 라든지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중간지원조직을 이끌어내거나 양성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는 그런 관심이 별로 없고 또 그렇다고 그런 거를 이제 공무원이나 시나 이런 데서 그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뭔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부족한 거죠.

연구자 1: JS가 되게 잘하는 곳인데도..

참가자 11: GM은 어디에 전화하셨어요. 시청에?

참가자 16: 사실 저는 무슨, 어떤 걸 느꼈냐면 약간 진짜 지연, 학연이 시골에서 너무 그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친하고 원 래 알던 사람이면 그냥 대충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게 잘 알려줘요.

참가자 11: 아니던데 오히려 아는 사람이면 거칠고 모르는 사람하테는 되게 친절 하게 얘기하는데

착가자 16: 분위기가 좀 다른가 봐요.

참가자 13: 그게 아니라 학연, 지역이라는 건 원래 있는데 여기서도 이럴 줄 몰랐 다는..

참가자 10 : 근데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는 웨만하면 잘, 이거 안 해주면 분명히 민 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연구자 2 : 담당 공무워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 해보시라 권 유도 좀 하고. 근데 태도들이 지역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 따라 다르다 는 말씀이죠?

참가자 15 : 공무원에 따라 달라요.

참가자 13: 이런 태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어요.

참가자 16: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가 GM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되게 GM에서는 청년들한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잘해준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뭔가 지 원금이랑 똑같은 사업인데도 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연구자 1: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참가자 11: 저 처음에 후계농 자금 받으려고 갔을 때,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해서 공무원이 그만 얘기하라고 기사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신 청하러 갔을 때 "너 시집 가면 딴 데 가는데 내가 이걸 왜 해줘야 되 냐"고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러면 남편 여기 데리고 오고 내가 인구 유 입시키고 인구 증가시킬 수 있는데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나 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누구시냐" 고. 그래서 저희는 26년 차인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귀농인이세 요. 근데 귀농인인데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 이제 저는 그 집 딸이 돼버리는 거예요. GM도 사실 초반에는 IS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 비 슷했는데 좀 많이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같이살자협 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역의 청년들 협의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특히 농업계, 농정과, 친환경과, 무슨 과 농업계 공무원분들은 다 어차피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그 자리에 로테이션 자리에 계시거든요.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새로운 어찌 됐든 새로운 청년협의체들이 생기면서 기존 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제 새로 도시에서 온 청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 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 공무원 교육도 굉장히 많이.. 근데 확실히 느껴요.

참가자 16 :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봐요. 원래 나 진짜 누가 봐도 토박이다. 전화 딱 했을 때 그 목소리가 토박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톤으로

참가자 11 : 확실히 달라지기는 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저희 GM 같은 경우에는 2~3년 사이에 확 달라졌거든요. 솔직히 이제 각 지역에 다 사이트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사이트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 됐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청년단체 중에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단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 지역마다 특색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해서 이렇게 환영해 주는 분위기 가 있는 사이트가 있는 반면에 또 아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비 교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청년협의체들이 같이 이제 새로 들어왔을 때 여기는 기득권 세대 단체, 우리는 새로 한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성 단체에서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위 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나는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게 나는 홈페이지 검색 이런 걸 잘 하니까 지원사업 이런 정보를 줄게. 그럼 너희는 나의 인맥이 되어줘" 왜냐면 나는 인문계고등학교, 말도 안 되는 그냥 다른 학과를 나와서 농업계는 하나도 모르니까 너희는 나 의 인맥이 되어 줘 이렇게 해서 친해진 케이스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 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ZY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 제 말하자면 부모님의 기반 없이 들어오는 친구들도 잘 받아주시는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HB에 계신 분도 아마 청년들 모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 요. 저희 경북권 내에서는 BYC라고 유명하거든요.

참가자 10: SC, 그다음에 HB 다 ZY랑 인근 지역이라서 사실 HB에 있는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ZY에 많이 와요. 감사하죠. 사실 근데 그분들이 ZY로 주소지를 안 옮기더라고요. 혜 택은 HB가 더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저희도 결혼을 해서 애가 둘인데 저도 연년생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HB로 이전하고 싶었는데 안 받아줘요. 또 웃긴 게 저희가 간다고 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사를 많 이 나와요. 하도 주거 거주 이거 민원인들이 봐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돈을 더 받자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그쪽의 지역으 로 이전을 하면 좋은데 HB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ZY에서 농사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배만 해도 HB에서 농업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HB에 사업체가 있고 그리고 공무워들에 따라도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접근성이 조금 달 랖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사실 시나 군에서 공무워 선생님 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뭔가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냐 아 니면 뭔가 빼먹고 도망갈 사람이냐 먼저 일단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아까 얘기도 똑같은 얘기지만 자기 지역 어느 지역 에 내려가도 일단 내가 오픈된 마인드가 돼야. 이게 사실 새로운 사람 들을 뭘 믿고, 그리고 사실 지역민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워낙 많 이 비어서,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우리 진짜 농촌이라든지 지역 소멸 지역은 사람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퍼줘요. 뭘 오면 도와 달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해줘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그걸 악 용해서 이 사람들을 뒤통수 치기 바쁘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으니까 더더욱 갖게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더더욱 적지만 20~30대 친 구들이 진짜 심한 친구들은 지역에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의 모 친구 중 에 한 명이 부모님도 ZY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사업을 받고 도 망갔어요. 그 여자분인데 사업을 받고 아까 시집을 가버렸어.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남자들은 뱉어내야 되는데 여자들은 시집을 가면 끝이 에요. 그런 약간 편법?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새로 오는 여성 오히려 계속 견제를 하는 거죠. 사실 남자분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치고 받고 하다 보면 금방 이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딱 계속 미안하지만 너무 계산적이시더라고요.

연구자 2: 일단 지금 한 바퀴를 다 돈 게 아니어서. 다음 선생님?

참가자 17 :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을 못하니까 너

무 불편한데. 저는 일단은 경북 출신이기는 한데 경북에서 직접적으 로 생활을 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에요. IS로 왔고요. IS에 온 것도 연 고가 있는 거죠.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랑 다른 걸 뭘 하려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연구 내용은 처음 받아봐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다 이야기해 주셨던 이야기 다 공감이 가서 이게 아무래도 저도 이제 8 년 차가 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고 겪었던 부분이어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설문조사 받고 적으면서 갑자기 제 넋 두리를 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반가웠던 게 뭐냐 하면 시골에 있는 농사하는 청년들이 모임을 못 가지더라고요. 지금 농번기면은 전화하는 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만나자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거의 11월 지나서 12월. 1. 2월 그럼. 제가 그때 시골 민박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좋은 친구들을 불러서 술 한잔하고 민박을 하니까 자고 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의 스트레스 풀어 가면서 좀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청년들 덕분에 제가 오히려 다 른 생활을 할 때도 많은 점들이 도움이 되고 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8년 동안의 농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는 1년 차, 2년 차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지금 8년 차 되고 작년이 제일 힘들 었죠. 근데 반대로 하면 1년 차, 2년 차는 경제적으로는 제일 힘들었 어요.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갈 사람, 해외에 이제 보러 갈 게 없으니까 한적한 시골로 엄청 와서 손님도 많고 그때 또 단양에서 활동을 했던 게 방과 후 강사 활동도 했었고 이렇게 겹치 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수익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농촌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만의 시간의 흐름 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 성향들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하 는 것도 하고 천천히 차곡차곡 쌓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

금씩 천천히 차곡차곡 하는데 제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 때문 에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게 거의 다 무너지는 거거든 요. 상주로 오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올해도 올해 사업이나 지원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무 이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업이 있고 이거라도 받아 야지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지금 거의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지원만 받고 이제 거의 그러니까 진행은 나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초는 하면 서 앞으로 만약에 청년들이 들어왔으면 3년까지는 그냥 되게 열정적 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에 대한 10년이라든지 20년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도 했긴 했는데 정말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결혼 을 했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좀 미안하긴 한데 가족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농촌에 살 수도 있는데, 솔로 같은 경우 에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면 다시 또 도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 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또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단양을 가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그거였을 까요. 연고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이 없는 연고도 없는 청년이 가 서 부딪히는 게 맨바닥부터 어떤 것들을 부딪히는 건지 느끼고 싶었 거든요. 결국에는 지나면서 제가 최근에 생각해낸 키워드인데 자발 적 고립이라고. 저는 단양에 가서 동네 활동 안 했어요. 앞 뒤 옆 뒤 건 너서 마실 어머니들한테만 인사드리고 밭에 일하시면 음료수 갖다 주고 그 정도로 해서 5년은 지났어요. 그 주변에 있는 어머니들은 다 케어를 해주세요. 청년들이 동네에 속해 가지고 동네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활동을 하게 하는데, 청년회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다 어떤 가 입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 심부름꾼밖에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와 봐. 밥 한 끼 주고 끝.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고. 그게 길게 가버리면 당연한 듯이 이렇게 끌고 오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 에 뭔가를 부탁하고 이거 하는 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농촌 사람들도 미디어를 다 접하고요. 도시 청년들의 어 떤 형태라든지 다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서로 조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라서 바로 옆집 사람한테 초인종 안 누르는 게 아니고 농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아니라고, 그냥 아닌 척하 는 것뿐인 거지 다 똑같아요. 저도 지금 IS에서 사는데 옆집 못 만나 서 이야기도 못하고 만나더라도 잠깐 인사하고 끝이에요. 밥 같이 먹 자 절대 안 하고. 요즘 제가 할머니들이 정이라고 하는 거, 지금 밥 먹 자 그러면 만약에 자식들이 가끔씩 왔는데 왜 그러냐고 뭐라고 하실 거 같고 그리고 또 그냥 트러블 생기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것뿐인 거지 다들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하면서 이제 그래서 묵묵 하게 있는 사람이 결국은 존버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골 내려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 치관이 뭐냐 하면 저도 좀 허브의 역할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왔을 때 허브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도와주자라는 역할을 좀 생각을 하고 내려갔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나 시골에서 잘 살았다가 됐어요. 내가 잘 살고 그거에 대한 내 커리어를 만든다면 그거를 누군가 보고 또 따 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똑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성향 차이는 도시든 농촌이든 똑같이 작 용하는 거 같고

연구자 2: 어쨌든 정책이 일괄적으로 모든 문제, 내지는 많은 문제를 일괄적으로 타결하거나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아무도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어쨌든 빈틈이나 지원이 가능한 영역들이 있는지를 계속 탐색하 고 모니터링하고 신규를 좀 발굴해내고 이런 노력들은 필요한 것 같고 요. 지금 두 번째 주제로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다종다양한 지역적 특성, 세대 특성, 개인적인 특성, 이 많은 차이들을 나름 헤쳐가려면 도대체 그거를 고민을 같이 나누고 풀어가야 될 주체가 누구일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분 선생님들의 이야기 속에 나온 것 같아요. 단은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나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각자 모임이나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 공간 사용 시간 제한이 있어서 아쉽지만 내가 향후 한 4~5년 이내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건 좀 이룩하고 싶다라는 포부나 지향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9 : 처음에 말하게 돼서 제가 좀 약가 중얼중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자생적인 청년단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유입 청년이다 기존에 있었던 청년이다 하는데 사실 자생적인 청년단체라고 해야 되나? 로타리클 립, 여기 4H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JC 이런 지역에 기존에 있던 청년 단체들은 많지만 MZ 세대라 그러죠. MZ 세대나 아니면 유입해 온, 지 역에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가기에는 벽이 너무 높아요. 장벽도 너무 높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좀 약간 비하는 아닌데 내가 낸데! 라는 그 런 표현 아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권리라고 해야 되나, 좀 저희가 편 안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상호 교류를 하고, 저는 권위 없이 상하 관계 없이 이런 그냥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나 모 임들이 정말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저는 자생적 청년 네트워크를 만드 는 게 저의 일단 제일 큰 목표고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났고 종로구에서 태어났거든요. 지금 귀촌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걸어가면 경복궁이 있었고 걸어가면 세종문 화회관이 있었고 교보문고가 있었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문화 적으로 풍족한 그런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면 단위 소재지에 왔을 때 처음엔 몰랐어요. 너무 벼가 황금빛으로 무르익는 게 너무 예

쁘고 머리 위로 별이 무수히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거를 처음 봤고 그런 많은 풍족감이 있었는데 지금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제가 피폐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영화관을 6개월 정도 못 갔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항상 예산 감축하면 제일 1번으로 감축되는 예산 중에 하나인데 문화시설, 문화생활, 문화 기반, 문화 교류, 문화가 정말 삶 에서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다음에 문화로 문화 예술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라는 숙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참가자 10 : 저는 다른 거 없이 일단 자식들 잘 키우고 싶고 청년 모임 같은 어쨌거 나 지금 우리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이 모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연구자 1 : 저기 농사를 짓지 않는 청년들하고의 교류 제일 어떻게 보면 큰 것 같 아요? 지금 대다수 아까 얘기했지만 95%는 농사를 안 짓거든요.
- 참가자 10 : 그게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가단하게 말씀드리 면 일단은 어쨌든 지역에 보면 대학교가 다 있습니다. 소학교라도 대 학교가 하나씩 다 있고, 그리고 지역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숨어 있는 MZ 세대 그리고 저 같이 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친구들 그리고 기존 에 이제 돌아온 친구들 다 모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또 로타 리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제가 권위 세우자고 하는 건 아니 에요. 지역 사회에서 상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임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봉사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 니다. 근데 어쨌거나 누군가가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 데 누군가 바라기보다는 이제 누구든지 본인이 일단 나서서 해야 되 고 남들이 욕하더라도 일단은 그분들이 모임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다 른 분 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를 사실 정부에서 만들어주면 제

일 좋겠지만 일단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사실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임을 하 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거를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 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유명한 사람이 한 번 말 한 번 해주면 되거든요.

연구자 1: 지역 대학교는 왜 말씀하신 건가요?

참가자 10 : 지역 대학교에도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많거든요. 유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사실 방학 끝나고 방학만 되면 동네가 한적해요. 방학 시즌 되면 상권이 다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방학 때 저도 대학 생 활을 해봤지만 집에 안 가거든요. 솔직히 그냥 동네에서 생활하고 친 구들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하지. 근데 그런 친구들을 잡아놓는 거를 좀 지역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루, 한 달 살이 이런 거를 그런 친구들한테 한 달 살이, 돈 안 내고 방 주지, 먹을 거 주면 가겠냐고 안 간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원주민들이. 이 용어도 참 별로인데 원주민이 이 사람들도 다른 지역을 안 나가게 지역에서 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조금 답답하더라 고요, 제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 청년이든 도시 청년이든 기존의 원주민이든 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를 누군가 좀 해주길 바라는데 누가 이렇게 나서서 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가 좀 아쉬운 마음이지만 시군 지역 공 공기관에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유명한 사 람이 뭔가 이렇게 모여라 이래가지고 한 번 모여라 하면 모르는데 사 실 그게 좀 힘들죠. 그래서 박사님이 얘기했다시피 지역에 있는 축제 가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조금 사적인 얘기인데 지금 JY에 트로트 가수 홍진영 온다고 방 터졌어요. 노인분들은 학위 사기 때문에 가수 욕하고 난리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다 모인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 나 만들어지면 모인다는 거지, 건수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뭔가 누군가 한번 문화적인 부분이든 교육적인 부분이든 전체적으로 하여튼 누군가한테 뭔가 틔워주면은 다 모일 것 같아요.

- 연구자 1: 지역 문화 축제를 청년단체들이, 락 페스티벌이든 서울에서는 쉽게 접 할 수 있는 거를 여기 이렇게 하면 서울 수도권의 청년들도 한 번 와 보 고 지역 청년들도 즐기고
- 참여자 10 : 사실 교통편이 서울에서 여기서까지 한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거 기서 여기 오는 게 2시간이면 오거든요. ktx 타고 내려오는 데 2시간 밖에 안 걸려요. 이제는 1시간 40분인가. 근데 서울 밀집지 저는 솔직 히 도심 싫거든요. 답답해. 가면 가슴이 답답해요.
- 참가자 11 : 저는 일단 아까 3년 뒤, 5년 뒤 GM에서 계속 살고 있었으면 좋겠고 요. 그 누구보다도 어디 가서 저는 GM의 청년농업인인 걸 자랑스럽 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8년 차가 되니까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정말 현실적 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즐겁게 GM에 서 살고 싶은 게 꿈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주인구 랑 관계인구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저희 도지사님 되게 좋은 분인데 도지사님이 저한테 저번에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토크 콘서트 주제였어요. 근데 그건 인구 정책 관련해서 청년들을 불러놓고 이제 청년들이 어찌 됐 든 인구를 증가할 수도 있고 인구를 유입할 수도 있는 소중한 존재이 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찌 됐든 아기를 낳고 내가 여기서 가정을 이루 려면 많은 문화생활, 복지시설, 어떤 편의, 어떤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내가 GM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고

민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적인 공간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산부인과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출산하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출산할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대책으로 저희가 대구나 구미까지 가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이게 임신하면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보고 출산을 해야 하는데 그럼 그 이동적인 거리에 대한 어떤 혜택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차선책으로라도 지금 당장 지방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해달라는 거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연구자 1: 시설을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참가자 11 : 네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단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유입된 청년들이 같이 뭔가를 모으려면 서로 하나쯤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친구들 나름의 우리는 집토끼인데 자꾸 산토끼만 잡으려고 하고 집토끼는 밥도 안 주면 어떡하냐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워낙 깐깐하니까 우리가 들어가지못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건데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고 그 사이에서 연결해 주는 아까 말씀하신 허브 매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바로 아까 이제 공무원들의 칭찬 아까 많이 했으니까 좋은 공무원들도 있어야 하고 또 정책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면 저는 5년 뒤에 GM에서제가 살 수 있겠다. 안 되면 고민해볼 것 같아요. 지금 저 요즘 진짜심각하게 고민 중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자 1 : 초기 정착,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계속 살려고 할 때 그런 삶의 질의 여건

들이 더 필요하겠다.

참가자 11 : 점점 느껴져요. 막 일어나서 막 동의하고 3년 차까지 너무 즐거웠거 든요.

연구자 2: 없는 데서 막 뭔가를 하니까 보람도 있고 열의도 있고

참가자 11:5~6년 차까지도 이제 직책을 맡고 있어서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런 지 또 너무 즐거웠는데 작년 7년 차부터 지금 저는 엄청 고비거든요.

연구자 2 : 처음 2~3년보다 인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고비가 되는 거네요.

참가자 12 : 제가 주소지를 기주으로 저는 귀향을 한 케이스거든요. 귀향을 한 지 한 7~8년 차가 됐는데 아직 정착을 못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요. 왜냐면 인생에서 20대를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 농촌에서는 보통 다 대학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자신을 만들어 요. 그 20대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제가 굉장한 이방인이더라고요. 이 나이까지 정착 중에 있으니까 굉 장히 고돼요. 하다못해 가까운 친구들은, 운이 좋으면 지역에 남아 있 는 거고 운이 나쁘면 지역의 친구가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 시 관계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남겠다는 생각을, 결 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정을 했던 가장 큰 계기가 운이 좋게 동네 언니들을 만났고 그런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회 한 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저희에게 있었거든요. 저희 연구 결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오는 숫 자는 비슷한데 농촌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되게 다르잖아요. 지역에 청년 한 명이 들 어온다는 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청년들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피로도를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게 청년 한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봐 주는 분이 있었고 그런 역할을 누군가가 해주기만 한다면 지역의 어떤 지속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 들어온 첫 해부터 지역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적어도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한좋은 기억이나 어떤 좋은 경험만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그 씨앗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 3년 뒤에 제가 지역에 남아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조금 더 많이 맺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1 : 지금 청소년들, 저 스스로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 때만 해도 그냥 시골은 떠나야 할 곳으로 계속 보고 그게 저도 아쉬웠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청년 특히 청년농업인들이라면은 지역에 방과 후 몇 분 하시는데 그래서 지역을 좀 알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알고 나중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점점 저도 이제 50 넘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고향이, 사람의 회귀 본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보니까 그게 유전자에 있더라고요. 유전자의 홈 인스팅트라고 해서홈에 돌아가려는 그 본능이 유전자에 있어서 그런 걸 제가 그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다루어보려고, 왜 귀농이라는 '귀'자가 생겼나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 제가 이제 2차연구에는 청소년들 조사를 좀 대규모로 할 거거든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농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걸로 해서 이미 대학생들은 작년에 한 번 했어요. 우리 최재현 연구원이랑 해서 대학생들 한 1,500명 조사해 보니까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많은데 여건이 안 따라주는 거야. 단순히 오

고 싶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 은 청년들이 농촌에 관심이 많다. 특히 우리 선생님 얘기했지만 그 지 역의 대학들이 다 있는데 지역에서 그 지역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집 토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요. 여러분들이 지역 청소년들 관련된 여러 활동에 아마 좀 적극적으 로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 13 : 저도 이제 2~3년 사실 제가 지역에 남아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살았지만 계속 못 섞였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한때 제가 나 적응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장점을 나름대로 발굴을 많이 해 서 여기 쭉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좀 먹었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다른 마음이 생기는게 와이프가 불안정하니까 저도 같이 불안정하게 되어서. 사실 저도 이제 묵혀놨던 감정들, 지역에 대한 그런 게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뭐랄까. 되게 심각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 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총각 때 생각했던 거를 와이프한테 가려왔었거든요. 사실 저도 지역에 대해서 묵혀놨던, 애써 외면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나름 괜찮은 데를 갔는데 오히 려 제가 더 이 지역에 대한 느낌을 더 세게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런 직장일수록 그 지역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과연 그 말이 섞 일 수 있는가 계속 일을 한다고 치면 불가능하겠다. 그 와이프도 마음 이 그렇고.. 사실 제가 이 모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3~4년 뒤 4~5년 제가 지역에 쉽지 않겠다라고 솔직히 요즘은 생각하고 있어 요. 아이도 태어났고 이래서 좀 여러 생각이 좀 생각이 들었고.. 한때 는 저도 여기는 아주 오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좀 마음이 맞고 좀 결이 맞는 분들 만나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딱 해보니까 저 속에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주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주류가 가진 문화나 조직 문화 뭐 그런 결이 있는데 도저히 내가 거기 안에 못 들어가겠다. 이런 느낌이.

- 연구자 2 :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청년들의 삶의 특징이 노마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2~30대 어딘가 뿌리내리고 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다양한 삶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저렇게 시도도 해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동 자체를 실패라고 단정할 건 아니고 계속 탐색하면서 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앞으로 2~3년 후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제가 이상한 거네요. (웃음)
- 참가자 14 : 그냥 너무, 저도 앞에 얘기들이랑 되게 공감이 되는 게 CG에 와서 앞 에도 말했지만 맨날 맨날 울 만큼 적응도 못하고 힘들고 막 그랬다가 살만해졌던 게 동네 이제 친구들이고 한 두세 명만 있어도 되게 좋더 라고요. 맨날 맨날 만나고 그때는 진작에 이런 친구들을 알았으면은 이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역마다 한두 개씩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스 스로 모임에 끼워주세요 얘기하기는 진짜 인싸가 아니면 너무 힘들 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또 결혼을 하고 아이 를 낳으니까 사실 그 친구들은 거의 못 보고 매일매일 그냥 아기 보 고.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그래서 처음 2~3년 동안은 매일매일 이 제 도시로 나갈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결 혼이다. 꼭 도시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도시로 나가서 살아야지 꿈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제 CG에서 결혼까지 하고 아기를 낳아서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왕 살기로 마음 먹은 거 한 2~3년 후에 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살기 좋은 문화생활도 많이 누릴 수 있는 곳 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CG에도 물놀이터라든지 군에서 운영하는 놀

이방. 키즈 카페가 작지만 한 2~3개가 있긴 한데 월요일마다 시설이 다 같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쉬면 좋겠다. 그런 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구자 1: 제가 2014년부터 이제 18년까지 귀농 2.000명을 장기 추적 조사를 했어요. 다시 또 실패하고 도시로 간 사람들도 일부 연락해서 이렇게 보는데 농촌에서 한 번 살았던 사람들이 도시로 다시 못 들어가더라고 요. 이게 저도 이제 저는 고향이 속초예요. 강원도 속초인데 서울 와서 공부하고 있다가 잠실에서 살았어요. 잠시 살다가 기관 이전 때문에 세종으로 마누라가 오고 저는 이제 나주로 왔어요. 여기 있다가 계속 이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요새 서울에 회의가 있으면은 귀찮아요. 그 리고 서울에 ktx 역을 벗어나면은 저희 웬만하면 회의 안 가요. 그러 니까 그전에 내가 서울에서 어떻게 생활했나 이런 정도로 지금 다시 올라가면 진짜 답답해요. 조금이라도 운전하라고 하면 꽉 막히고 근 데 한번 농촌 생활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또 농촌에 오는 사람들이 많 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나 도시로 가고 싶다 그러는데 아마 쉽 지가 않을 거예요. 농촌의 어떤 나름의 매력에 지금 심취해갖고 이거 다시 한번 그런데 돌아가면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 그 지역에서.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지요.

참가자 15: 저는 뭐 4~5년 후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HB에서 지내고 지 낼 거지만은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희 가게가 전통시장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떡방앗간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전통시장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HB에 있는 전통시장은 사람들의 주거 생활 이 거의 주이기 때문에 상업적이보다는 주거 생활이 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시장을 활발하게 못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장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읍내를 벗어나지 않고 읍 내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좋은 자리만 있으면 그쪽으로 나가서 따로 큰 매장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떡카페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 고 싶고. 그리고 청년 근로자 같은 경우도 채용을 해서 지역에 좀 그 렇게 선한 영향력을 좀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 는 단계지만 이제 청년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HB 내에서 선한 영향력 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타지에서 왔을 때 좀 정착을 도와줄 수 있게, 이제 만약에 군이 나 읍사무소 같은 곳에서 여기 단체를 통해서 한 번 물어봐라라고 될 수 있을 정도의 단체가 되는 게 현재는 목표입니다.

참가자 16 : 저는 제가 지내고 있는 마을이 너무 많이 좋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마음에 들고 물론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도 많았고 그래 서 또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지금은 잘 정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5년밖에 안 돼서 7~8년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그런 생각이고, 또 할머니가 돼서 도 제가 있는 곳에서 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지내온 결 과 물론 텃세도 있긴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예뻐해 주시 고 잘 지내고 있기도 하고 물론 가끔씩 당황스러울 때도 있긴 해요. 무조건 전화하셔서 "밥 차려놨으니까 와" 그래서 가서 먹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놀랍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고 또 저도 누군가 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잘 정착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협동조합이 있음으로써 다른 외부의 청년들이 유입했을 때, 왔을 때, 좀 디딜 수 있는 디딤돌 같은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JS로 와 서 어떠한 시작을 하기 전에 자신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 노릇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역할로서 자리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가족들이 전 고향이 부산이지만 저희 가족들이 제가 있는 JS로 와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해요. 제가 큰 집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가자 17 : 제가 7~8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지금 상태라서 이거를 넘어서면 저도 저는 진짜 시골이 좋아서 계속 시골에 묻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을 받았던 게 빈집을 활용해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청년들 을 좀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최종 목 표는 청년들 초기 정착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사례화시켜가지고 이 모 델을 가지고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따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 각을 가지고 있고요

연구자 1: 빈집은 어떻게..

- 참가자 17: 그게 지금 제 최고의 숙제입니다. 현재 지금 2019년도 현황으로 보면 1.300곳이 있는데 제가 지금 목록 추려가지고 보니까 한 200곳 정도 가 지금 대충 고칠 수 있겠다이고. 20곳 정도가 그냥 간단한 리모델 링만 좀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줄여놓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집주인 허가 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법이라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이장님 도움이 필요한데 그거하고 집만 보여주면 리모델링은 제가 전에 시골 민박했던 게 있어서
- 연구자 1 : 이게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정책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는 농 지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집은행 개념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활용, 운영의 어떤 예시처럼 사례를 하나 만들면 이게 이제 전파가 되거든요.
- 참가자 17 : 제일 중요한 게 거주도 중요한데 저는 수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요. 전에 시골 민박은 불법이에요. 이게 농어촌 민박 법에 따르면 본 인이 소유한 집이 아니면 직접 거주를 해야 되고 만약에 렌트를 하면

3년 이상이 돼야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 개혁 시범 사 례로 체험으로 해서 그냥 손님들 받고 체험 형태로 그냥 그거를 이제 관련된 사업계획서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3년 렌트로. 지역 청년으로 사업이든 농촌 귀농인이든 뭐든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본 인이 소유를 보통 나눠주게 되면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 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더 자세한 이야기가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저도 이제 조금씩 풀어가는 과정 에서 나오는 사업 아이템이어서 다자요라는 사업이 있어요 제주도 에, 들어본 분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돼야 돼 가지고 특례법인가 그거를 해서 다자요만 2년 동안 가능하게끔 만들게 했는데 그거는 법 만드는 데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렸고 올해가 마지막인지 몰라. 아마 그래서 민박을 하면 솔직히 대 업이면 다 불법이라서

연구자 2: 이게 불법이 아니고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수익 모델을 가져가자면

참가자 17 : 주변에서 민원 넣는 순간에 이제 걸려서 그거에 대해 약간 어차피 벌 금 내고 하면 어떻게 하긴 하는데 이건 좀 이야기하면 안 되나? 아무 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먼저 가는 사람이 흔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오는 사람들이 그 흔적 을 보고 이 현장의 길을 따라가다가 또 다른 파생된 길을 만들 수 있 으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충실하면서 시골에서 흔적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연구자 1 : 내년에는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다룰 건데, 우리 각자가 이미 다 사례 를 가지고 계시고 일부 아까 폐교도, 아까 폐교가, 저도 이제 폐교 연구 를 한번 했는데 폐교가 이제 이제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청년

들이 농촌에서 새로 이렇게 출발하는 어떤 교육 공간으로 인큐베이팅. 임시 거주도 하면서 그런 공간으로 좀 할 수 있게 이제 교육부랑 좀 연 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6~7년 지난 가정들의 경우 애들 교육 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육아협동조합 그다음에 애들 방과 후 이런 걸 협 동조합으로 같이 해결해서 사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길게는 대학 을 이 농촌에서 어떻게 잘 보낼 거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민하다 보면은 그게 또 다른 대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혼자 다 하 면 특히 육아, 도시 애들하고 꼭 비교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대학 못 갈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제가 또 교육학 전공이다 보니 요새 농촌에 있는 게 대학 가기가 더 편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좀 주고 대학에서 이제 농어촌 전형도 있고 특히 지역의 국립대학 갈 경우에는 훨씬 유 리하고 웬만한 좋은 대학에서도 농어촌 전형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보를 또 개인이 얻기보다는 그런 청년들 단체에서 농촌에 있을 때 더 대학 가기 좋고 뭔가 하기 좋다라는 이런 콘텐츠가 하나 있 으면, 근데 아직 그런 건 없거든요. 맨날 서울 중심의 이런 걸로만 하는 데 아까 청소년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지역을 알아야 되지만 이 지역에서 살면서 어떻게 더 잘 커갈 수 있는 지 그런 것들을 육아협동조합이든 애들 교육협동조합이든 교육 공동 체하고 연결해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큰 고민은 거기 1, 3, 5, 7, 9 그때 나름의 청년들이 정착하는 단계 단계별 고민 사항에 맞춰 사례 들을 모아내면 좋겠다. 간담회를 이제 두 개 권역 했는데 앞으로 3개 권역 더 해서 내용 공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늘 못다 한 이야기는 따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주시고 이후에 내년까지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장

## 경기·강원 지역 청년 조사

## 경기·강원 지역 청년 조사

연구자 1 :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조사 결과에 대한 간단한 소감과 더불어서 그냥 지난 조사에 서 얘기 못했던 어떤 얘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조사 결과 어떻게 보세요?

참가자 18: 저는 지금 경기도 PG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OOO이고요. 저는 예술 가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에서 얘기하는, 농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돈을 가지고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역할은 아니고 어떤 무형의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그거를 이제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PG이 그나마 서울에서도 인접하고 그리고 어 찌 보면 농촌 청년이지만 도시에 좀 가까운 게 저도 4년 전에 서울에 서 계속 활동하다가 들어온 케이스다 보니까 자문단에 참여했을 때 좀 약간 아직까지는 서울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혼란 스럽지만 최대한으로 PG에서의 생활 감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 1: PG로 가게 된 게 어떤 사업, 문화 사업과 관련이 있나요?

참가자 18: 그냥 자연이 좋았고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공기나 밤에 보이는 별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어릴 적에는 경상도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20살 때부터 대학 학부를 예술 쪽으로 해서

연구자 3 : 혹시 분야는 뭔가요?

참가자 18: 전공은 무용 쪽이고요. 브레이킹 관련해 가지고 브레이킹 댄스, 스트 릿 댄스 계열에 무용을 섞어서

연구자 3: 아까 농촌의 무형의 것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형의 것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몸으로 나타내는 그런?

참가자 18 : 주민들이 같이 하는 거는 뮤지컬 기업이고요 교육 연극이라든지 네 마을의 어떤 스토리를 기반으로 마을의 동아리를 형성을 시켜서 직 접 주민들이 배우기도 해보고 자기가

연구자 1: 이게 무슨 정부 사업이 있나요?

참가자 18: 평생 학습 프로그램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연구자 1: 평생교육원 사업인지 국가 평생교육원 사업인지 그건 우리가 나중에 정책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연구자문단들이 참여하신 사업이 어떤 정책 사업 소스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평가를 해서 내년 연구에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서요.

참가자 19: 저는 강원도 CP군에서 이제 한약재 농사를 짓고 있는 34살 OOO이라고 하고요. 부모님이 귀농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대구 이제 도시 생활을 하시다가 귀농하시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7살 때부터 농촌에서 살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대구에서 생활하다가 내려온 거고

연구자 1: 학교 다니고 그러면 IMF 때네. 그렇죠?

참가자 19: 네. IMF 전에 이제 귀농을 하셔가지고 좀 많이 망한 케이스예요. 저희 는 좀 많이 망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이제 경상도 CY군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 제 완전 시골에서 살았어요.

연구자 1: 부모님은 원래 고향이?

참가자 19: 원래 부모님은, 어머니가 대구, 도시 분이고

연구자 1: 처음에 왜 그곳으로 가셨다던가요?

참가자 19 : 아빠가 CY 분이시거든요. 아빠의 고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빠가 이제 농촌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고 이제 한약재가 돈이 된다는 걸 아 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잘 안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제가 하는 작물이 좀 냉한성 작물이어서 고지대를 찾다 보니까 저는 CP까지 올라 계속 올라오려고 올라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렇게 저희 이사 온 지 5년 됐고요, CP로는. 그전까지는 계속 경북 CY에, 사실 저는 농촌 생활이 너무 잘 맞거든요. 지금은 의외로 원래 지내던 집보다 더 약간 좀 번화가로 나온 거예요. 집 근처에 편의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전에는 이제 딱 정말 집 한 채밖에 없는 곳에서 살았었어요. 하루에 버스 2번 정도 들어오고 3번 정도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살다가 지금

연구자 4: 아버님도 한약재를 계속 하시고요?

참가자 19 :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걸 원래 하셨어요. 아버지가 대구 하의대에서 교직원으로 있어요.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한의대생들이랑 친하게 지내시면서 한의학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경험으로 하셨 었죠. 이제 직장일도 하시고 농업도 조금 이제 하시다가

연구자 1: 선생님은 대학 전공을 뭘?

참가자 19: 저는 디자인 전공했습니다.

연구자 1: 근데 이제 디자인 하다가도 마음 속에 난 다시 멈추고 가고 싶다라는

참가자 19: 그렇지 않았고요. 원래는 시골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나갔던 거였는데

연구자 1: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참가자 19: 네. 농사짓고 싶지도 않고 그랬는데 솔직히 이제 바깥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들이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친구들도 다 도시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 생활들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렇기도 했고 아버지가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제가 장녀예요.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있어요. 저희 삼남매. 그래서좀 고민 조금 해보다가 약간 좀 어머니 아버지한테 얹혀가듯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구자 1 : 따로 이렇게 전문 교육이나

참가자 19: 농업에 관련해서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는 받아보지는 않고, 제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만한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직접 이제 강의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지역 내긴 하지만 강의도 하시고 또 저는 또 따로 이제 청년 창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연구자 1 : 사업은 언제 받으셨어요?

참가자 19: 2018년에도

연구자 1: 그 사업 설계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참가자 19: 이제 기간이 끝났는데 그거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요.

연구자 3: 작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세요?

참가자 19: 천궁이랑 당기라는 작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하고 경작을 하는 거는 천궁이라는 작물을 하고 있고요. 가공도 하고 있는데 그건 당기랑 천궁 2개 다 같이 하고 지역 내에서 수매도 하고 있어가지고

연구자 1: 거기 CP에 그런 한약재 수요가 많아요?

참가자 19: 근데 천궁에 관련돼서는 작목반이, 이제 작년부터 조금 관심들이 생 기고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기는 워낙 전국 내 에서 저희 동네가 워낙 유명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연구자 4:이게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 등락이 좀 덜 심한 편인가요?

참가자 19: 심해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가격이 넘어서면은 수입이 터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게 국산이랑 그...

연구자 4 :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고랭지의 다른 작물들이 분명히 눈에 보일 텐 데, 두루 작물들이 한 방에 건질 수 있는 것들이 보일 텐데 그런 걸 안 하고 약재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왜냐면 브랜드 매출물도 있 을 것이고

참가자 19: 그것도, 근데 브랜드 매출물 같은 경우에도 늘 똑같지는 않거든요. 망 하는 해가 더 많아요. 똑같아요. 농작물이라는 게 다 잘 되는, 작년에 잘 됐다 그러면 올해는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한약재도 똑같은 거여 가 지고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천궁을 제가 경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 렸는데 천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작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저희 아 버지의 욕심 같은 건데 계속 데이터를 만들고자 계속 공부를 하고 계 시고

연구자 1: 되게 학구적이신 분이네

- 연구자 4: 형식 없이 다 질무드리자면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도전을 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기존의 고랭지 주 작목들이 젊은 청년이 들어가기에는 진 입 장벽이. 약재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거나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 참가자 19 : 있죠. 저는 솔직히 아버지 덕에 접하기 쉽게 시작했고 쉽게 활로가 뚫 린 상태거든요. 판매 자체가 어렵잖아요. 다 사 주는 것도 아니고 잘 지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소문이 나야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 저는 아버지가 어쨌든
- 연구자 1: 유통망도 있을 거고. 아까 작목반도 있다고 하면 하여가 아버님 말고도 농가가 꽤 된다는 거잖아요.
- 참가자 19: 네. 작목반, 당기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이 꽤나 많고요. 천궁 같은 경 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덜 활성화되어 있고요.
- 연구자 1: 하여튼 두 분 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개인 소개 끝났는데 저희 지 금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공감이 가는지 아 니면 덧붙여서 하실 얘기가..
- 참가자 18 : 하마디만 덧붙인다고 하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저하테 연구자문단 참여를 권유하셨던 분이. 경기도 가평이나 남양주나 계시는 분들이 예술가가 많다. 그래서 그분들도 괜찮냐? 왜냐하면 정규직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부모님 집에서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청년들도 해당이 되니까 괜찮다 해서 이 거 참여를 했는데 사실 참여를 하면서 좀 목적성에 좀 벗어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냥 저희가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들 대상이라 고 했을 때에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올해 농촌 청년에 대 한 부분들을 처음 시도를 했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게 좀 더 어떤 방 향성에서, 사실 청년들이 지금 농촌에 있는 곳은 거의 산업단지가 많 이 없는 곳이 많다 보니 그런 곳의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한 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연구자 4: 예를 들어 저희 지난주에 경남 북 청년들과 간담회 할 때, 소득 부분에 서 조사 결과는 200~300만 원 정도 희망이 많았는데 그게 적다는 이 런 의견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참가자 18 : 사실 저도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온 케이스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어 떻게 보면은 사회적 지위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나 이 런 것들이 필요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높았는데 농촌으로 오다 보니 그런 것보다는 약 간 만족도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공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200~300만 원 정도 적정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연구자 4: PG가 서울 인근이고 거기 서울 사람도 많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문화 와 뭐가 다 접목돼 있는 동네 같은데 레저도 발달해 있고 그러면은 이 게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 참가자 18 : 이게 사실상 PG라는 곳을 제가 살다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다 이 제 페션이나 레저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세요. 그런 분들이 서 울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셔서 제2의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죠. 지 금 살고 있는 청년들이랑은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연구자 1: 윗세대요?

참가자 18: 네네. 그리고 제가 계속 여기 PG에서 무언가 그리고 인근 지역인 양 평이랑 남양주, 동두천까지 뻗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여기가 이제 상 수도 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못 지어요. 교육 기관들을 못 짓는 그런 것들이 있고 창업하지도 못하다 보니 여기 있는 각 지역의 청년들, 미래 청년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정착을 할까 이런 고민을 계 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버넌스, 청년 포럼 위원회도 있다 보니까 그 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발제를 하고 복지재단에서 지금 경기복지 재단에서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시야가 좀 넓어지다 보니 PG에 서는 사실상 초등 10대 애들이 당연하게 20대 넘어가면 이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가까운 춘천이나 양 평이나 이제 서울을 많이 가는 거죠. 여가 생활도 당연하게 가까운 남 양주 이렇게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PG에서는 사실상 청년 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공무원 그리 고 가족이 하는 거 받아서 가게 하는 거 그리고 펜션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일자리로 하는 이 정도가 대표적이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여 기 PG에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없다. 놀러 오는 곳, 엠티라든지 놀러 오는 곳으로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관련해서 그런 것도 하지만 이제 일자리경제과나 문화체육과나 얘기해서 한 달 살아보기를 작년 에 시도했었고. 올해 말에도 이제 똑같이 진행할 거고 자녀출산팀에 도 얘기해서 이제 출산하시는 임산부들이 오셔서 거의 출산 휴가를 가잖아요. PG에서 한 번 살아보기 이런 거를 좀 해서 가평의 의지를 다시 제고시키고 그리고 청년들을 좀 더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을 지금 군청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자 1: 거버넌스, 청년 포럼에 참여한 청년들이 주도가 돼서

참가자 18: 그렇죠. 그리고 PG는 PG에서도 제가 보니까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서울을 피해서 온 청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연구자 1: 아까 얘기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참가자 18 : 그렇게 해서 작년에 어쨌든 5명을 시도했는데 한 명이 전입을 했고 그 청년이 계속 일을 하면서도

연구자 1: 선생님이 그럼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지금

참가자 18: 그런 셈이죠.

연구자 1: 일정 기간, 물론 농촌에 대한 기본 소양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멘토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역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버넌스활동을 하고 계시고

연구자 3: 여기 명함에 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참가자 18 : 예술 단체고요. 예술 단체

참가자 19: 저는 CP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리틀 포레 스트의 주인, 단독주택 마당이 있는 시골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이분들이 살아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연구자 3 : 살아보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참가자 19 : 네.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농촌에서 이렇게 가능할까? 농촌에 살려고 해도 벌레는 별로거든요. 단독주택에 산으로 포개지는 듯한 이런 마당이 있는 집, 원래 엄청 많고 정말

많고 근데 이건 정말로 이제 TV에서 보여지는 이제 그런 이상적인 것들이잖아요.

- 연구자 3: 이게 전체를 다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랑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랑 또 응답 값을 나누고 하다 보면 또 달라져요.
- 연구자 1: 이거는 저희가 청년 연구자문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고, 전국에 있는 청년 1,800명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 20대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농촌에 대한 생각, 30대 후반에 농촌에서 몇십 년 살아온 농촌 청년들의 생활 이런 게 어떻게 다른지가
- 참가자 19: 그런데, 이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년 뒤에 단독주택이 있는 삶,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또 집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정말 단독주택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연구자 1: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신가요?

참가자 19: 저는 이제 경상도에서 살 때는 집 앞이 다 마당이 흙이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신발에 흙이 묻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 멘트로 다 깔았거든요. 더 이상 흙이 묻지 않게. 그런데 다들 희망하시는 게 잔디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저희 이제 저희 동네에도 보면은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이죠. 오시는 분들이 보면 다들 이제 화단도 정말 열심히 꾸미시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당이 너무 넓어서 너무 힘들대요. 자기 관리도 힘들고 처음에는 연못도 꾸며야 되지 하지만 연못에 물때조차 관리가 안 돼요. 거미줄은 너무 많고요. 거미줄 오늘 치우면은

오늘 저녁에 다시 또 나오고요. 그런 것들도

연구자 1: 목가적인 건 목가적인 거고 현실은 이제 다르다

참가자 19 : 그리고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농촌 지역에 남녀 성비가 6 대 4라고 하셨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주 변에 농촌에서 지내시는 여자분들이 많지만은 출산과 육아 이런 게 좀 관련이 큰 것 같아요. 출산을 하고 나서도 이제 육아 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는 이제 농업인이니까 아이를 낳고도 뭔가 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1년 동안은 쉬어 야 되고요 몸이 돌아오기까지는 근데 그동안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육아 휴직이나 이런 걸 썼을 때 어느 정도 돈이 나오는 그런 게 있잖 아요. 그런데 시골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게 여건이 맞아야 받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농업인이 라고 해서 또 다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혼이기도 하고 아직 그것까지 잘 모르지만 또 아이들이 크면서 저희 면 소재지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병원 문제가 제일 크죠. 산부인과로 가려 면 1시간을 기본 1시간이죠. 짧아야 30분일 거고 왕복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릴 정도로 그런 것도 크고요. 시골에서 좋은 거는 아이들, 제 친구도 며칠 전에 얘기를 하던데 아이들 도시에서는 방과 후에 풀어 놓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어디든 학원이든 다 보내야 하는데 시 골은 눈앞에 모든 게 다 보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놀아도 그냥 위험 하다거나 그런 게 없다고 그리고 핸드폰도 최대한 덜 보게 자연이랑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옆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초등 학교 때 끝나고 나면 놀이터에서 꿈 놀이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고 놀 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소꿉놀이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런 것조차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엄

마가 뒤에서 지켜봐야 돼요.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 연구자 1: 노는 것도 돈이 들지요. 도시에서는
- 참가자 19 : 노는 것조차도 그런 걸로 하려고 그러면 또 입장권을 끊고 또 어디 가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은 그런
- 연구자 1 : 근데 좀 지나보면 애들이 학원이든 뭐든 도시 애하고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런 좀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 참가자 19: 진짜 이게 다 시골 안에서도 그런 게 다 생기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건 좀 힘들잖아요. 결국에는 엄마들이 되게 욕심내서 과외 선생님 조금 한다든가 계속 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 연구자 1: 그래서 하다가 이사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 전형적인 거든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런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규모가 안 갖춰지다 보니까제가 제안을 드린 게 이제 지역에 육아협동조합, 초등학교 이런 사교육 이런 거를 규모를 만들어서 개인이 대처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그리고 양쪽의 장점을 다 취하는 거죠. 도시 장점이랑 시골 장점을. 지금은 아직은 그게 너무 개별적이어서 문제인 거고
- 참가자 19 :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면 소재지 이쪽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건 너무 취약하고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면, 읍 쪽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거의 이제 소재지로 나가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 연구자 4: 대략 지금까지 다른 지역도 들어보면 여성분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도시 회귀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제대로 합류하지 못하는 또는 텃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는 건데

참가자 18: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연극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들. 워주민과 이주민의 생길 수밖에 없는 틈들이 있더라고요. 가벼운 예로 마을회관은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이 그냥 쓰는 놀이터 같은 건 데 새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가보면 거기에다 사용을 못하게 어떤 구조적인 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되게 단편적인 거지만 어떤 사회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사 오신 분들이 버렸다 이런 식으로

연구자 1: 기존에 없던 뭔가가 발생하면 그거를 새로 이사온 사람이 했다는

참가자 18: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근본적인 거를 문화예술로 풀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런 사람들의 화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하려면 어쨌든 조사 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 니 이제 작가가 지금 스토리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공감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농촌 청년들도 그것도 아마 똑같은 사례로 벌 어질 것 같다. 어르신들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누군 가가 들어와서 같이 뭔가 한다 그러면 자기가 나름대로 변화시킨다 고 하지만 그게 텃세로 보일 수도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 을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인식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팀원들이 들었을 때

연구자 1 : 농촌이 지금 사회적 거리가 팍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나고 이제 갈등이 발생하고 기존의 원주민들은 점점 늙어 가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질문들은 뭔가 문화라 는 게 이제 문화 이벤트의 개념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데, 단발성 문화 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활동으로서 문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되살리는 그런 작업을 이제 청년들 이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조사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이거는 중요한 문 제인데 그런 과정에 참여하면서 청년들이 원주민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귀농 연구를 오래 했거든요. 귀농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 사람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길 하나도 옛날 에 그분들의 노작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고 뒤에 살게 된 사람들은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에다가 재산권만 생각하 고 이거 공공의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옛날에 다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서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폐교를 가지고 마을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박물관 만들어서 저기 시골 구석에 사는 노인들도 다 뭔가가 사연이 있고 이 마을에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사 람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리는 거지. 지나가는 그냥 마을이 아니라 이 마을에도 뭔가 사연이 있다라는 박물관도 되게 중요한, 저도 요새 옛 날에 폐가에 있는 무슨 농기구든 뭐든 가져와서 이건 몇 년 몇 년부터 사시는 어떤 노인네 집에서 가져온 이런 거라고 해갖고 그런 역사 문 화 이걸 통해서 기존 지역사회에 대한 경외감과 인정 그리고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이런 것도 청년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갖고 경기문화재단 지원 으로 하시는 건지

참가자 18: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거버넌스는 이게 재단사업이 어쨌든 이재 명 정책에서 나왔던 걸로 시청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기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올해도 시간이 끝나요. 그러니까 물론 청년들이 어떤 자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토론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발제해서 청년 기구의 어떤 활동으로서 이게 계속 수익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발전이 된다고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재단 쪽에서는 저희도 저도 이 거버넌스를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이 사람들이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저도 지금 명확히 잡은 상황은 아닌데 거버넌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2년 정도는같이 커뮤니티 그냥 만나서 우리 놀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계속 리셋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저의 생각인 거고, 개인적으로 거버넌스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PG에서는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 이 거버넌스가 올라왔을 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상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 거버넌스는 권역별로다 있어요. 동부나 북부도 있지만 동부가 제일 약하긴 해요. 동부는사실 올해가 거의 처음이다 보니

연구자 1: 거버넌스의 지속성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참가자 18: 그렇죠. 당연히 그 문제죠

연구자 4 : 똑같은 설명을 계속해야 한다..

연구자 3: 공연하시고 하는 것들이 어디 미디어에 올리시거나 하는 게 있나요?

참가자 18 : 네. 지금 저희 채널에도 올리고요. 저희 군에서도 지금 홈페이지에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연구자 3 : 혹시 유튜브 채널명 알려주시면, 아 '담다'

연구자 4: 이제 농촌 생활을 몇 년 하셨지만은 아까 갈등 분야에서 원주민 전체의 문제가 있고 이주민 문제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 얘기도, 관료들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 는지 두 가지 정도가..

참가자 19: 저에게 최근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 내에서 사회 층 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CP에도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희는 원주민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외지인들이 문제였어요.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사회층 내에서 관 내에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업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외지인들이 여성분들이었어요. 여자가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도시 생활을 하신 여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이거 요거 좀 다 따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저희가 만든이야기였지만 지금 이대로 하던 것들이 다 맞는데 그냥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안 되니까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다시 또 관내기술센터 들어가서 항의를 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다 탈퇴를 하시고 외지인들의 사업이 되었죠.

연구자 1: 외지인들이 선정이 됐다고요?

참가자 19: 네. 외지인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외지인들은 그렇게 다 이제 흐트려놓고 한 발 다 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 한창 골머리를 많이 썩었죠. 그것 때문에 기존에 회장을 했던 친구라든가 그 친구들이 너무 아쉬워했어요.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쌓아온 것들인데 이런 외지인들 몇 명이 말을 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게 좀 컸었어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가지고 CP군 문제다, 어디 들어가면 무슨 이런 일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게 너무 심해서 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연구자 1 : 그런 청년들 간의 갈등은?

참가자 19: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고, 어떤 분쟁은 계속, 민간인들

이 계속하다 보면 생기는 거는 당연한데 너무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너무 좋아하던 단체였거든요. 저는 이제 평생 보는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 사귀기 위해서 후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매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회의하고 이런 게 너무 재미있었는데 어느 순간 부터 그렇게 해서 같이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지원 사업 받기 위 해서 정관 같은 곳에도 다 있어요. 1년 이상의 활동을 한 자여야 된다 거나. 그 규정이 외지인들이 보기에는 장벽이다. 그게 왜 필요하냐 했 더니 안 통하니까 농업기술센터가서 했더니 그런 거 둘 필요가 없다 해서 결국은 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놓은 일 이 있는데 그게 통하지를 않은 거고, 올해는 내가 받았으니까 내년에 네가 받아라라는 암묵적인 그런 게 있었던 건데 그런 것도 싫었던 것 도 있었을 거고요

연구자 1: 그게 제일 커요. 소위 그 지역 사람들이 계속 나눠먹기 한다

참가자 19 :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받았던 사람이 또 받는 건 안 되거든 요. 그래서 제일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제 당장 올해 탈퇴를 하셔야 된 다거나 그동안에 기여한 바가 컸다거나 이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분 이 탈퇴를 하셔야 되니 올해는 이분이 받는 게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 런 식으로

연구자 1 :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에 우리 이런 조직이 흡수해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한테 하자라는 룰이 있는데 유입한 사람 입장에서 는 그거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사회적, 지역의 비율 을 전혀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공정 이런 것만 요구하는 이런 게 그 냥 도시하고 똑같이 민원 제기하듯이

참가자 19: 맞아요. 민원제기 너무 지겨웠어요.

- 연구자 1: 로마를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주민들의 기본 소양이 필요한 거지. 이사 개념이 아니라 이민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도시에서 농촌은 이민, 이민에서는 문화 통합이니 문화 동화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문화 충돌로 봐야 되는데 그냥민원으로
- 참가자 19: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무원 담당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 그냥 다 덮고 문제를 만들어서 그때 탈퇴시키는 거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단체가 흐지부지돼 버리는 거죠.

참가자 18: 그러면 지금 그 단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

참가자 19: 워낙 큰 단체라 안될 수는 없어요.

- 연구자 1: 그러니까 지역에 이걸 이제 거버넌스로 풀어야 되거든요. 지역에 이제 새로 온 사람들한테 뭔가 이 소양,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알게 하고 지역에 있는 이런 단체들의 역사 이 사람들이 아까 내가 그랬듯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지역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 인정해야 하는데
- 연구자 3: 그러면 그때 만났던 분들은 지금 만나고는 계세요?
- 참가자 19: 네. 계속 이제 따로, 이제 거기 활동은 안 하지마는 속해 있기는 하거든요. 매년 회비 내고 있고 관련된 일들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외에 이제 거기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 연구자 1 : 농업회의소에서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농업 관련 사업들이라든가 농업 회의소는 알아요?
- 참가자 19: 농업회의소는 알아요. 농업회의소에서도 좀 책임을 하고 저희가 항

상 뭐라도 청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연구자 3: 지금 이게 농사라는 게 뭐 없지만은 대략 내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에요?

참가자 19: 하루에 일을 많이 할 때는 해 뜨기 시작해서 질 때까지 하고요. 그럼 10시간, 정말 짧게는 짧게 일할 때는 4시간. 비 오는 날이 쉬운 날이 죠. 오늘같이

연구자 3: 지금 농촌에서 생활하신 지 이제 4년?

참가자 18 : 네

연구자 3: 그전에 이제 뭐 시골에서 산 거 말고 본인이 좀 더 경제 주체로서?

참가자 19: 저 이제 일한 지는 이제 9년 차

연구자 3: 저번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한테 생애 곡선을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말고 농촌 생활의 생애 곡선을 이렇게 그려본다고 할 때 올라가고 있는 건지 행복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지

참가자 19 : 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같아요. 농촌생활에 만족하고 농사도 점점 잘 돼가지고

연구자 3: 디자인 하시다가 돌아온 다음부터 그래도 뭔가 이제 처음에 1, 3, 5, 7, 9 그렇게 위기를 겪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데 네 그 곡선을 대략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참가자 19: 저는 이제 곡선으로 따지면 이제 처음에 돌아와서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대박난다. 저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대박이 나 는 줄 알았어요. 항상 제가 뭐 했던 걸로 치면 저도 상향 그 후에 조금 또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저 이제 올해부터 작년 말부터 조금 다시 올 라가고 있는데 8년차 초부터 그 사이에는 좀 힘들었어요.

연구자 4: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의학 관련해서 조금 힘들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도 좋으신, 그러니까 한의학에 대한 수요가 좀 있나요?

참가자 19 : MZ 세대들도 그렇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찾아 먹고 있어요. 이제 몸에 좋다는 것들을

연구자 1: 직거래도 하세요. 그럼?

참가자 19 : 직거래는 안 하고 있는데 직거래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문제는

연구자 1: 유통은 직거래를 안 하고 이제 기존에 아버님

참가자 19 :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직거래를 하려고 포장재라든가 이런 거 만들고 있기는 한데

연구자 4: 이게 뭐 이렇게 도매시장, 경매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약재가 사실은 공동시장이나 이런 제도적 안착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유통 망 확보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참가자 19 :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거는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에도 반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 제약회사랑 이제 계약을

연구자 4: 바이오 산업하고?

참가자 19 : 네

연구자 3 : 삶의 만족도를 아까 그리실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

## 라가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소득도 같은 곡선인건지?

참가자 19 : 소득도 있죠

연구자 3: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가자 19 : 친구들과의 관계요?

연구자 3: 농촌에 살면서 사회관계의 관점에서 곡선이 올라가는지

참가자 19: 저는 친구들이랑은 늘 똑같은 거 같아요.

연구자 3: 그럼 소득을 기준으로 얘기하셨구나.

연구자 1:19번 선생님은 이제 소득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18번 선생 님은 어떠신지

참가자 18 : 들어온 지 4년이 됐으니까 그래프로 설명을 하면 처음에 어쨌든 간에 PG에 들어온 게 어떤 욕구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때 우연치 않게 이제 청년 일자리가 생겨서 이제 예술가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팀 으로 해서 들어온 거죠. 들어온 곳이 저희가 약간 이벤트파크라는 개 념의 카페나 레스토랑이랑 베이커리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 큰 부 지의 잔디가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갔다 온 게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할 수 있겠다. 우리끼리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무 언가 공간이 생길 수 있겠다. 저는 어쨌든 춘천 사람이니까 사실 이제 요즘은 이제 매체 통해서 춤이라는 게 조금은 많이 생소하지는 않잖 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틀 행사를 연다든가 퍼포먼스 대회를 연 다든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전국적으로 열면은 다 모이거든요. 그 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올 수 있겠다. 그럼 PG라는 지역이 물론 관광 레저로 완전히 대표적이지만 이런 곳에서 이런 공간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같이 갔던 멤버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느끼고 그날 저녁에 같이 이제 펜션, 거기서 펜션도 같이 했을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PG에 감동을 먹고 들어와서 이제 진짜 생활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상 이제 사장님은 물론 국비가 90%가 나오고 사장님이 10%를 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고용을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을 하라는 거죠.

연구자 1: 그 업체가 이름이

참가자 18 : 거기가 이제 OOO라는, 지금은 이제 야영장 숙박업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그전에는 레스토랑이랑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스 몰 웨딩도 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1년 6개월 정도 제가 있었 는데 중간에 제가 PG 재즈 페스티벌이 유명하니까 그러면은 좀 쉽게 약간 B급 페스티벌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게 a급 b급이 아니고 비 주류 B급이라는 게 비주류잖아요. 대중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B급 재즈 페스티벌을 저희끼리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맥 을 통해 가지고 디제이도 부르고 저희도 올라가지고 1박 2일로 놓은 거죠. 그때 그걸로 인해서 군에서 이제 저희가 청년들이 들어와서 뭐 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보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실현될 수 있 는 게 안 보이는 거죠. 매일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춤은 일단은 접어둔 거죠. 그래서 커피 내리는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펜션 오시는 분들 이불 청소하고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1년이 넘어가면서 그러면 그냥 우리 그만두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저희가 수익을 바라고 한 건 아 니니까 놀아보자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우연치 않게 그때 댄스 페스티벌 할 때가 수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연구자 1: 담다 조직은 언제 했어요?

참가자 18: 그때 당시 재즈 페스티벌을 할 때

연구자 1: 펜션에서 독립하면서 담다를 만든...

참가자 18: 그렇죠.

연구자 1: 사업도 안 받고?

참가자 18 : 그러면서 이제 구에서 이러저런 사업들을 이제 공모 사업들도 물론 많이 했지만 그리고 1년 정도 뒤에 이제 군에서 용역 계약으로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 재작년에 저희가 이런 것도 해보 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랑 어떤 교육 연구도 해보고 재작년부터 이 런 것들을 시도를 계속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온 친구들이 물론 춤 추는 친구들도 있지만 작가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있다보니 까 여러 그 친구들이 교육적인 거를 다 서울에서 했던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부녀 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 런 개념으로 제가 중간 역할을 하다 보니 성과 공유회 하면 너무 그때 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연구자 1: 우리 선생님의 행복 기준은 성취도인데 뭐라고 할까 지역 참여?

참가자 18 : 저희 단체 입장에서 사회 공헌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만족도가 항상 올라가고 있는..

연구자 1: 그때 내려왔던 분들 중에 한 팀장이 나가셨네요. 팀으로 처음에 하고

참가자 18 : 청년들은 다시 서울로 갔고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그 청

년들도 여기서 뭔가 꿈을, 그 기간을 가지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일이 있고 그들은 굳이 PG에 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없는 거죠.

연구자 1: 선생님은 어떻게 계속 남을 생각을 하셨어요?

참가자 18: 저는 사실 이건 약간 철학적인 거랑 연결되는 건데 사람들을 변화시킬수 있는 건 저는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어쨌든 간에 나름 이름도 알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돈적인 거 말고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의감이 좀 많이 드는 시기에 PG에 들어오게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민들의 소통과 그분들의 활동과 어떤 다른 조그만한 것들의 감동들이 있다보니 어릴 적에 저는 약간 품앗이 같은 문화가 너무 좋은데 그런 문화들이 이제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개인주의로 많이 바꿨다고는 하지만

연구자 1: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맞아요. 지금 하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뭔가를 찾아내고 그런 재미가 있는데 도시에서만 살던 청년들은 그런 게 없어 요. 자기 뭔가 영혼을 건드리는

참가자 18: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내년에 협동조합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창의 협동조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는 뭔가 사회 공헌을 한다고 하면 지금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나아가자라는 걸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창업 오디션에 이번에 붙었어요.

연구자 1: 새로 들어온 청년들, 본인이 끌고 온 청년들이?

참가자 18 : 가평에 있는 청년들 같이 이제 중간에 들어온 청년들과 서울에 있는 청년들

연구자 1 : 몇 분 정도가 참여할 것 같아요?

참가자 18 : 못해도 7명 이상일 것 같아요.

연구자 1: 내년 지역 우수 사례로, 문화 사례로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놓 으면 좋겠네요.

참가자 18: 어쨌든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끝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요.

연구자 3:19번 선생님 계신 곳은 그렇게 문화 관련된 활동을 하는 첫년들이 같 이 있나요?

연구자 1: 이런 분 한 분 계셨으면 좋겠다는

참가자 19: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처럼..

연구자 1: 네. 그게 점점 가면서 청년들이 문화적인 갈망이 크잖아요. 특히 여성 분 같은 경우도 이건 단순히 이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참여 해서 하는 거라서

참가자 19 :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가자 18 : 2년 전에 제가 제주도를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스텝으로 갔 었어요.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마을이 불이 타고 그렇죠. 주민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거기를 이제 연극을, 이제 체험으 로 투어를 만드는 거를 제가 스텝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 주민들한테는 어떤 이 런 얘기를 하면은 마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지금은 주민들한테는 자신들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야기가 결과적으로는 저는 좀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고 싶었던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시도하는 것들이 어떤 플랫폼이 된다고 하면 그런 설명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야기로

- 연구자 1 : 지역의 스토리를 이렇게 구축해내고 주민들을 융화도 시키고 하나의 농촌 문화로
- 참가자 18: 왜냐하면 지금 농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험 휴양 마을이라는지 이런 것들 다 결합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할링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마을의 어떤 힐링 콘텐츠를 스토리로 풀면 그 마을에서 소비가 돌아갈 거고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적인 것도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 연구자 1: 그전에는 70년대만 하더라도 마을 농업 그다음에 장례 이런 거 다 마을에서 치렀거든요. 이게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겨우 꽹과리 치던 할아버지만 남아 있어.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런 마을의 문화적인 게. 그걸 이제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박물관으로 남겨두거나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면 하나의 이제 구전이 구전이 아니라 비디오로 남겨지기도 하고
- 참가자 18 : 어떤 형태든 남겨놓으면 마을 자산이 되고. 근데 주민들, 마을회사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 자원들이 없는 거죠.
- 연구자 1: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역사를 문화로 장면으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CP 사례처럼 도시 여성들이 와서 그거 하나만 딱 보더라고 내가 단순히 이사를 온 게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될 텐데,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나 해서 청년들이 화합해갈 수 있는 하나의

뭐가가

참가자 18: 그렇죠. 자기 마을의 어떤 내용을,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면 그럼 네가 만약에 귀촌을 하든. 귀농을 하든 그래도 네가 가서 해봐라 이렇게 되면

연구자 1 : 협동조합에서 학교 같은 것도 할 생각. 농촌 문화 활동가를 키운다거나

참가자 18: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자 1: 그런 거 할 때 폐교나 이런 거를 활용하면 좋고

참가자 18 : 그게 약가 혀실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텃세랑 연결될 것 같 아요. 지자체 그리고 그 마을 폐교와 속해져 있는 마을 그리고 이거를 수행하겠다는 민간단체가 삼박자가 잘 맞아야 지속적으로 간다고 봤 을 때 근데 PG는 진짜 쉽지 않아요. 빈집도 없을 뿐더러 폐교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우리가 쓰고 있어 그것부터, 또 풀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인데

연구자 1: 접근을 못해요?

참가자 18: 접근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하겠다고 하면

연구자 1: 이렇게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기는 어렵다

참가자 18 : 그쵸. 근데 그러려면은 말씀하시는 대로 지자체랑 어떤 혐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을의 이장님이랑 사무장님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야 되는데 그거를 믿 작업들이 좀 중요한 거죠.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사회단체들이 어쨌든 거기를 안 쓰고 있지만

연구자 1: 기존에 이제 거기에 오래동안 했던 단체들이 뭐를 안 하더라도 그냥 점

거를 하고

참가자 18 :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그 단체들은 어쨌든 저희가 청년 들이다보니..

연구자 1:19번 선생님은 한약재 재배만 하시나요? 직원고용도 하나요?

연구자 3: 뭐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좀 해주시면..

참가자 19: 제가 성장하는데 어떤 게 더 필요했으면 좋겠냐는 말씀이신가요?

연구자 1: 청창농 지원 자금 3억 다 받으셨어요?

참가자 19: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도 내년까지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땅 값이 비싸가지고 땅을 잘 팔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설 자금은 5천만 원인가? 그래서 법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 제가 이제 마을분들이랑 잘 지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드론 조종도 하고 있거든요.

연구자 4: 약초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연구자 1 : 드론은 얼마짜리 가지고 있어요?

참가자 19 : 2천만 원 정도

연구자 3 : 웬만한 건 다 뿌리시겠네요

참가자 19: 원래 제가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던 거였는데 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어르신들하고도 이제 말할 기회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걸 하게 되면서 원래는 이제 제가 동네에서 낮에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저 집 딸은 백수구나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드론 덕분에 이미 농

사 일이 수월해졌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농업에 약간 저도 잘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저도 이제 유일한 청년이 거든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 마을 주민들하고 유대감을 쌓아서 이제 마을에 있는 한약재 같은 거 제가 다 수거하고

연구자 1: 그러면 법인 그러니까 유통, 생산에다가 유통까지 해서

참가자 19 : 어쨌든 도내에 있는 거니까 이제 생육 환경도 잘 확인할 수 있고

연구자 1: 그래서 후배 청년들을 거기 고용해야 된다

참가자 19 : 네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너무 이제 한약재. 한방 쪽으로도 워낙 이 제 단체나 이런 쪽으로만 한의학 쪽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다니고 있 기는 하지만 ..

연구자 1: 마이스터 대학이 어디 있어요? 강원도?

참가자 19 : 네. 저도 강워대 다녔어요. 한의약이라고 약용 작물이거든요. 그게 워 래는 인삼 쪽이었대요. 작년부터 해서 약용 작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산양삼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아직 까지는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더 세분화돼서 이제 지원 이나 관심이 좀 많았으면

연구자 3: 지금 명함에 있는 거는 농업회사 법인 이름이 아니네요.

참가자 19: 아직까지는 개인회사

역구자 1 : 지역 관련 농산물 팔아주는 것까지 해서 이제 지역 기여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뭔가 지역에서 내가 인정을 좀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드론 때문이네요.

- 참가자 19 : 그런 것만 아니고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이라고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 역구자 1 : 보통 내가 어디에 기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뭐가 존재감을 이렇게 내가 혼자 돈 벌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존재감 느끼는 거 같은 데요.
- 참가자 19: 작물이 잘 자라고 있을 때가 제일 뿌듯하고
- 연구자 1: 그거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 참가자 19 : 네. 그렇죠. 잘 모르죠. 오늘 약을 치고 며칠 뒤에 약을 칠 걸 계획을 하고 오늘 친 걸 보면서 농약이 어떻게 잘 묻었는지 이런 것도 보고 풀 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 무 자주 와가지고 잘 자랐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 비가 잘 안 와가지고 생육이 좀 힘들었다든가 이런 것도 데이터 같은 것도 찾 게 되면서 초반에는 올해 농사가 좀 힘든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점점 가면서 그래 이것도 경험이 이제 내년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 라고요.
- 연구자 4: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아까 법인하겠다고 하셨으면 청년농업 인으로 해서 그동안에 재배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나름 과학적으로 하 시겠지만 굳이 좀 필요하다는 어떤 서포트를 하면 데이터에 기만한 것 들을 컨설팅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
- 참가자 19 :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농업에서 농사라는 게 농사만 잘 지 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공 같은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공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한방 쪽이다 보니까 아

직까지 실천되고 있는 가공품이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도 애 로사항이 좀 많아요. 지금은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씩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드시면은 어느 쪽이 좀 좋으실 거라고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있고

- 연구자 2: 보시기에 약용 작물로 청년이 들어오기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참가자 19 : 네. 비전있다고 저는. 진짜로 정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 라 약용작물 인력 구성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잘 쌓아 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나눠줄 의향도 있고요. 알려주고 싶어요.
- 연구자 4 : 이게 지금 두 분 다 미혼이신데, 장래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결혼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계속 농촌에 있을 수 있을까라 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 참가자 18 :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는 어쨌든 지역 특성도 있지만 학연, 지연, 혈연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3개 다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지만 내가 굳이 여 기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 거죠. 그러면 동기가 생기긴 하거든요. 제가 지속적으로 여기 있을 거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노후를 여기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 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청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저희 설문했던 것 중에서 20년 뒤에 바라는 여가 활동도 그렇고 생활 환경도 그렇고 그렇게까 지 지금 바라보진 않아요.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죠. 막연하게 생각했 을 때 말했던 거기서는 공감이 돼요. 그때는 이제 얼마 벌었으면 좋겠 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되지만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년에 제 가 여기에 있을 수 없으면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

각을 해요. 심지어 제 고향인 곳도 가능하다

연구자 4: 대신 도시는 아닐 것 같다.

참가자 18: 오늘같이 서울에 온다고 해서 한숨 쉬고 왔습니다.

연구자 1: 답답하죠. 오랜만에 오면 더

참가자 18 : 오랜만에 와서, 여기 제가 6년 전에 일했던 곳이라서 한숨을 쉬었는데

연구자 1: 다들 한 번 농촌 맛을 들이면 안 맞아서 싸워서 도시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다시 도시라 하니까 내가 이런 데서 살았었나 하고 안 맞는 거죠. 하여간 경쟁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도시를 쉽게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참가자 18: 그래서 청소년 애들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지역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그냥 너희가 어차피 대학교 가서 이 지역을 벗어날 건데 그러면 여기를 다시 들어와 가지고, 벗어나서 느꼈던 걸로 여기에서 다시 살면 더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어차피 서울로 갔다가 다시 귀촌을 하든 귀향을 할 건데 그런 구조를,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면 아이가 청소년기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재밌게 해봤어요.

연구자 1: 청소년 시절에, 저는 강원도 속초가 고향인데, 고향을 너무 모르고 자라잖아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 대해 맞아요. 난 그래서 후천적으로 대학 때 막 찾아보고 속초라는 명칭의 의미나 그런 거를, 근데 초중고등학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냥 소위 개천에서 용 난다고속초는 벗어나야 할 지역이고 그렇게만 교육을 했는데 아예 이제 대놓

고 우리 나갔다 다시 오자 그렇게. 근데 하여간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는 그래도 뭔가 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을 알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과 후 교사를 본인들의 재능이나 전공 활용해서 하는 측면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게 또 부수입도 되고 그게 또 청년들이 기존 세대하고 다르게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다

참가자 18: 알고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살았던 곳에서 뭔가 젊은 청년들이 얘기를 해 주는 거랑

연구자 1 : 두 분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농촌생활을 했는데 농촌생활 안 하던 사람 이 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대규모로 청소 년 조사를 해보려고요. 청소년 일상에서 얼마나 농촌 경험을 하고 있는 지, 나중에 농촌에서 살아볼 의향이 있는지, 결국은 어릴 때 시골에 많 이 다니기도 하고 방학 때는 아예 거기서 막 한 달 간 지내고. 우리 어릴 때는 할머니 집에서 방학을 보내고,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그게 이제 유전자로 남아서 다시 오는 거더라고요. 어떤 삶이 인간적인 건지 결국 그게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키워야 한 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중요하 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5장

## 서울·경기 지역 청년 조사

## 서울·경기 지역 청년 조사

참가자 20: SH 쪽에 축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가족이 있다고 하기는 좀 애매 해요. 이제 그 일을 지금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큰아버님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저 태어나기 전부터 농촌에 거름 만들어서 판 매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연구자 1: 외갓집도 많이 가죠?

참가자 20: 많이 가죠.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많이 안 가게 됐어요.

연구자 1: 그래서 하여간 '농촌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게 있었나요?

참가자 20: 그때는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4살인 딸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큰 삼촌네 가면 농촌에 이렇게 크게 쥐불놀이를 하고는 했었거 든요. 이제 딸 볼 때마다 그렇게 경험을 해주고 싶어요.

연구자 1: 애들이 그런 걸 좀 경험하면서 여유롭게 키우고 싶다는 거죠?

참가자 20: 내가 얘한테 이런 걸 겪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생각보

다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또 어머님이 이제 BD로 들어가셨거든요.

연구자 3: 같이 가자고 하시겠네요.

참가자 20 : 그러니까 BD도 SA인데 저희 집도 아니고 BD가 좀 특이하게 위치해 있는데 길이 잘 되어 있어요. 길은 잘 돼 있지만 농촌이다 보니까

연구자 1: 미리 이제 가신 게 있으니까 그런..

참가자 20: 기회가 생겼어요. 거기 가면 앞에 농촌도 있고 마당도 있고 관심이 많아요. 대부분은 꿀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유튜브 같은 것들 보면서 많이..

연구자 1: 그런 거에 이제 내가 좀 적성이 있구나 그런 걸 발견하셨구나

참가자 20 :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관심 되는 거죠. 나중에 나도 나이 먹으면 이일도 계속 할 수 없는 거니까.

연구자 1 : 농촌 가서도 계속하실 수 있지 않나요?

참가자 20 : 그렇긴 한데 가끔씩 이제 답답하더라고요

연구자 1: 그래서 농촌 한 번 가서 살잖아요. 다시 못 올라와요. 소위 농촌 뽕을 맞으면 이렇게 농촌이 소득은 안되지만, 여유롭고 생활은 되거든요. 이제 소득이 넉넉치 않지만 먹을 건 다 해결이 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충족이 되니까 한 번 딱 농촌에서 살면 도시의 생활이 잘 기억이 안날 때도 있어요.

연구자 1: 다 오셨네요. 일부 저희 인터뷰는 시작을 했는데 정식으로 모임에 대해 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이 농

촌과 청년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OOO인데요. 전국에 청년 자문단 분 들이 계신데. 오늘은 이제 경기 서울 지역의 도시 청년들 모셨습니다. 마을 미디어 단체에서 피디로 활동하고 계신 OOO 씨. 그리고 SA에서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 〇〇〇 선생님, 그다음에 역시 ID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 OOO 선생님. 기존 통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 설문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올해 연구 결과 나오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같이 정책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신 걸로 생각되는데 이번 조사 혹시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등의 느낌 을 얘기를 해주세요. OOO 선생님 먼저.

- 참가자 21 :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서울에 서 태어났고 살고 있어서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서울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 가끔 하거든요. 결혼도 했고 이제 자녀도 있으니 다른 사이클 로 좀 살고 싶다. 다른 화경을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가까운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별로 공감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래서 저만 늘 좀 다른가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50명 정도 응답해주신 내용 보니까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거 보고 제 친구들이 다른 것 같다고 느꼈어요.
- 연구자 1: 아니 실제로 이제 대부분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전체 이제 작년에 우 리 연구하고 있는 대학생들 해 보니까 농촌에 실제로 살고 싶다. 그냥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상당수는 도시에서 계속 살더라도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 댁이나 친척 집에 가서 방학 동안에 몇 주씩 있었던 농촌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뭔가 빈 마음 그렇게 챙겨주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OOO 선생님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편인가요?

참가자 20: 많지는 않고 저도 보면 어릴 때 방학 때 갔던 시골집..

연구자 1: 부모님 고향이..?

참가자 20: 저는 전라남도 CS인데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도 이제 저 어릴 때 돌 아가셔서 이제 아주 어릴 때 잠깐 시골집에 갔던 그 정도의 경험, 대 학 다닐 때 농가 이런 거 그런 것만 있어요.

연구자 1: 그데 이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뭐가 하고 싶다.' 이런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계속 이렇게 주변에는 거의 없어서,,

참가자 20 : 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강원도로 일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강릉이랑 춘천을 1박 2일. 2박 3일 이런 일정으로 갔다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잘 갔다 왔냐 고 했는데 서울에 오고 싶다고 하던데요? 강릉이랑 춘천 정도면 시 골도 아닌데 자기는 진짜 서울의 어떤 시끌벅적함과 분주함과 이런 게 오히려 자기에게 이제 편안함을 준다고 서울 운전하면 서울 딱 진 입할 때 희열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 1: 그런 사람도 있고..

참가자 20 : 특이하다. 절대 자기는 시골에 사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기회 가 오더라도 안 하겠다라는..

연구자 1: 이번에 그래서 제가 청년들 한 2천 명 넘게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가치관을 보려고 해요. 근데 개인주의적인 삶을 중요시 하는지 아니면 공동체적인지. 그다음에 도시의 이런 편리함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농촌의 한적함을 선호하는지 이런 걸 같이 하거든요. 그랬 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참가자 20 : 조금 자세하게 물어봤었거든요. 너무 좀 격렬하게 싫어해서 이제 좀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는 제 또래 여성이에요. 일단은 좀 위험도. 도 시가 아닌 곳에 살 때 할 때 약간 느끼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일단 되게 크게 느끼는 게 있고. 이제 이제 문화. 생활 전반에 soc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느꼈을 때 이제 어떤 이런 가부장제 문화.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되게 크 더라고요. 어쨌든 또 그 친구가 이제 여성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느 낌은..

연구자 1:000 선생님.

참가자 22 : 앞에서 얘기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게, 저는 농촌 하면 그냥 농사 짓 고 이런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귀농을 해서도 무슨 농 사를 지어야 될까 이런 생각 들어요.

연구자 1: 지금 농촌의 청년들 중에 5%로만 농사지어요.

참가자 22: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아까 얘기하다 자영업, 숙박업, 게 스트하우스, 카페, 작은 가게 계속 선택지가 나와요. 카페나 작은 가 게도 이제 농촌에 가면 농업 쪽으로 되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해도 솔 직히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지금 주변에 자식도 있으니까 돈을 벌 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농촌에서도 충 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것들도 보이고..

연구자 1 :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데 뭔가 하면서 나의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것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가치를 찾자고 하는 청년들이 많더 라고요.

연구자 3: 물론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 연구자 1: 근데 농촌에 돈을 많이 벌려면 농사를 지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소도 키우고 그 다음에 법인 만들어서 이제 주변 농가들 농산물 사서 대량으로 유통하고 하는데, 그러면 역으로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농촌에 사는지 목적이 뚜렷하면 굳이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걸 처음 아셨다고요?
- 참가자 22 : 알고는 있었는데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방금 얘기하면서 또 와닿더라고요. 조금 더 방금 얘기하다가 좀 개안된 느낌이 좀 들었어요.
- 연구자 1: 그러니까 지금 농촌이 농업 공간은 더 이상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주민 중에 한 농촌 중에 주민 중에 한 25%가 농사를 지어요. 1/4 인데 청년들은 5%예요. 그러니까 95%는 자영업을 한다든가 일반 농촌에도 이제 공장들이 많아서 농공단지 해서 거기에 이제 취업해서 다녀요. 그리고 이런 사회 시민활동과 그런 데에서 근무하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도시는 좀 이렇게 직장이라는 게 획일화 되는데 여기는 좀 창업도 많이 하고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우리 OOO 선생님.
- 참가자 23: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가면서 주로 자연이 많은 농촌 지역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인데 그때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사는 건 어떨까라는 저는 되게 상상을 해보거든요.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켜서 내가 갔던 여행지의 시세나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항상 보는 편이고요. 물색을 하는데 서울과 말도 안 되게 삶의 질이 높은 것 같아요. 같은 가격대비 도시랑 농촌이랑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 연구자 1:3년 전에 1억 후반대에서 가면 40평대잖아요.
- 참가자 23 : 찾다 보면 계속 더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에서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계속 세입자로서 불안감이 있잖아 요. 근데 같은 돈을 가지고 이제 농촌에 가면 매매를 하고 어떤 내 소

유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 연구자 1: 도시에 살면 옛날에 임대 임차인으로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꿈을 자기 집이든 뭐든 자동차 좋은 거 사고 막 이랬는데.
- 참가자 23: 어쨌든 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꿈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서울은 막 청 약을 기다리기도 참 너무 막막하고 좀 그렇게 생긴 주거 단지에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농촌의 면 소재지 같은 곳이 눈에 들어와요. 저는 초등학교 주변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나로마트 있고, 초등학교 있고, 관공서 있고..
- 연구자 1 : 초등학교들이 보통 그런 데 있죠.. 그 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니까.
- 참가자 23 : 그런 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고민해보면 가끔 되 게 용기 있어 보이는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 면 소재지에 굉장히 좀 세련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서울에서 오신 것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 연구자 1: 지금 이제 ()()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 참가자 23: 그래서 저렇게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 연구자 1: 저번에 이제 CO에 첫년거리가 있고 LC 거기에만 한 300명 정도 있어 요. 거기에 무슨 방송국 같은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시에서도 군 에서도 이제 좀 도와주고 그런 걸 한 거죠. 공간도 좀 저렴하게 내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요새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어요. 청년정책들이 우 선이 되다 보니까
- 참가자 23 : 친구들 중에도 또 농촌 유학 같은 거 선택해서 AS에 가 친구도 있고 요. SA에 간 친구도 있고 그렇게 간 친구들의 사례를 보면서 나중에

아이가 이제 생겨서 진짜로 내가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 더더욱 좀 대 아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구자 1: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참가자 23: 저는 이제 내년 다음 달 출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생각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보게 되고 실제 사례들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YD인가 어디에 갔다가 거기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에 쫙 공고 붙어 있는 걸 이제 봤는데 일자리지원센터에 있는 일자리의 질이 좀 너무 낮은 거 같더라고요. 주로 이제 식당 주방에 가고 아니면 저기 약간 농공단지 같은 데에 이제 사무원 여성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아예 이제 진짜 험한 일 하러 가거나하는데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뭘 통해서 취업하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농촌에서의 삶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연구자 1 :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자기가 창업을 하든 협동조합을 만들든 해야 해요.

참가자 23 : 자기 자본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연구자 1: 그래서 혼자가 힘들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하죠. 자기 자본도 요새 청년 창업하면은 보조나 이런 융자가 나오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하고 똑같이 많은 소득을 한다 그게 아니라 임 시직을 이렇게 왔다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원하는 거 하고 싶다.' 그런 관점으로 전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건 좀 포기 는 해야겠죠.

참가자 23 :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저도 약간 여성으로서 그런 좀 안정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또래 집단을 만날 수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어 요. 서울에서는 정말 다 근거리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언제든 만날 수 있는데 여러 명의 가족들이 다 같이 내려가면 모를까 저만 되게 결단 을 내려서 내려갔을 때 굉장히 좀 외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분명 히 되게 폐쇄적인 그런 커뮤니티에서 내가 어떻게 좀 정착할 수 있을 까.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되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 역구자 1 :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쓸 때 장단점 있잖아요. 내가 단점이 없기를 바 라면 안 되잖아요.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장기적으로 나의 농 촌 생활의 이유를 더 설득력 있다고 가는 거잖아요.
- 참가자 23 : 지금은 어쨌든 장점을 더 많이 꼽게 돼서 계속 꿈을 꾸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관건인 것 같아요. 어디서 실현할지..
- 연구자 1: 조만간에 가실 수도 있겠네요.. OOO 선생님.
- 참가자 24 : 사실 아까 말씀하신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때만 농촌에 가보 고 가본 적은 많이 없어서 사실 이거 하기로 했을 때 뭐 할 말이 있을 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되니까 자꾸 농촌의 삶 생각 을 하게 되고 이제 얼마 전에도 가평을 갔다 왔는데 또 여기 집값은 얼마지? 이러고 있고 가평 옆 근처는 비싼데 더 시골은 또 엄청 싸고 그렇더라고요. 1억 초반이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을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데 JS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가 시골에서 마을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으면 나는 시골에 살 수 있고 괜찮겠다. 근데 과연 여기서 일해서 수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있으신 분들은 봉사로 하시는 건지 그냥 지원금 조금 받으시는 건지도 제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 가지고도 제가 된다고 하면은 시골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게 완전 농촌이든지

도시 외곽이든지 그건 신경은 안 쓸 것 같고 여기서 저는 사실 좀 농촌 제일 싫은 이유는 벌레거든요. 벌레 싫은게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이게 생각보다 많이 낮아서 좀 저는 조금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농사얘기하셨지만 뭐라도 내가 밭에 뭐라도 일구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연구자 1: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가장 큰 경제 이점은 텃밭을 한 여섯 평만 하더라도요. 먹을게 먹을 게 다 해결이 돼요. 쌀만 사면 돼요.

참가자 20: 그래서 머릿속에 텃밭이 있어요.

연구자 1: 그건 그게 농촌에서 하는 장점이에요. 채소 해결하는데 몇십만 원 들어요.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그걸 나의 소득과 연결되는 생활비하고 연관되는 거라서.

참가자 20: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워서 다 죽일 것 같아요.

연구자 1 : 그건 배우면 돼요. 여기 서울대 인근도 이제 농업센터 이런 데 있어요. 귀농학교 이런 데서 하면 기본적인 저걸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없구나..

참가자 20 :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가자 24: 그러니까 진짜 그것만 알아보려고 막 엄청 알아보면 사실 알 수는 있 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정보가 없어요.

연구자 1: 그러니까 했을 때 이주를 했을 때 장단이 있어요. 장점 다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얼마나 내가 구체적으로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는가. 만약에 소득이 적다면 내가 소득을 잘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왜냐하면 도시보다는 물가가 싸잖아요. 그다

음에 근데 내가 이거 농사 잘 몰라 그럼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그 럼 한번 해서 그러니까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준 비를 한 다음에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내가 인 생 프로젝트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요. 지금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한 2.5년 준비해서 내려와요. 이거는 이제 이사가 아니라 우리 잠시 살 다가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이민이에요. 문화가 다른 어떤 네트워크 가 지고 온 사람들이 언어도 약간 다르고 장소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회적 이민이라고 생각하고 그 준비를 잘해야죠. 이사는 준비 안 해도 되잖아 요. 제 얘기도 이제 농촌으로 가는 기본 소양 이런 것들이 농촌 이주에 대한 기반 소양도 해서 기본 정보 이런 게 좀 없다는 얘기잖아요.

- 참가자 24 : 이 연구에 조금 추가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지역에 대한 선호도 같 은 것, 도시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추가 했으면 해요. 제 주변에는 사실 되게 극명하게 강원도나 제주도 생각하는 친 구들이 가장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접해봤으니까. 여행지 근 처 밖에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나는 옥천으로 가고 싶어라든지 나는 장성으로 가고 싶어 이런 친구는 없거든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 런 선호도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 연구자 1: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안 했고 이제 농촌 쪽에서도 특징을 가지고 관광 지가 가고 싶으냐 아니면 농사 잘 되는 곳 가고 싶으냐 아니면 지역 공 동체가 잘 되는 데로 가고 싶으냐 그런 건 조사 했어요.
- 참가자 24 : 근데 도시 첫년이 그 지역이 지역 공동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 를 사실 잘 몰라요. 단편적인 것만 아니까.
- 연구자 1: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귀촌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귀농귀촌 종 합 대책 제가 설계를 해서 올해부터 또 추진이 되거든요. 그게 2차 계

획에 귀촌 플랫폼으로 네이버 같은 곳에서 원하는 지역과 그 지역의 부동산 정보, 그리고 일자리 정보를 연결하는 작업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원도 같이 모호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뭘 하고 싶은 지 그걸 해갖고 이렇게 좀 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뭔가..

참가자 24: 체크 박스를 하다 보면 지역이 이렇게 좁혀지는..

연구자 1: 거기에 이제 나오게 그런 걸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근데 그게 지금은 구체적이지 않고 계속 안에서만 맴돌다 보니까 실현시키기가 쉽지 않은구조예요.

참가자 22 : 여자들이 할 게 별로 없는 게 일만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편하게 자연에 살고 싶은 건데 와이프는 반대를 해요.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일을 안 해도 돼요.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것 같아서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인테리어하니까 가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저는 여기 농사 안되면한 번에 한 시간 거리에 다 도시로 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와이프가 거기서 집에서 친구도 없고 여기서 놀러 갈 데도 없고 가만히 있겠죠. 도시는 이제 조금만 가면 친구들도 있고 카페도 많고 애들키즈 카페도 많고 여기 좀 그런 시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연구자 1: 그렇죠. 그건 단점이죠. 그러니까 장단점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걸 커버할 거냐 했을 때, 농촌에서도 여기 읍소지 개간을 해요. 읍소재지 의 학교는 과밀이고, 군 소재지는 거기 웬만한 지역에 공공시설 문화 센터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이라면은 고민에 따라 이렇게 딱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가자 22 : 물어볼 데가 없어요.

연구자 3: 맞아요. 아까 벌레 얘기하셨는데 저는 농촌에도 오래 살아보고 도시에

서 오래 살아봤는데 농촌은 생태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벌 레가 많긴 한데 각각 조금씩 있어요. 이미 자기들끼리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종류들의 벌레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도시 같은 경우는 특정한 특정 벌레가 그 해에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죠. 약 간 그래서 그냥 벌레는 사실 도시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 시에 더 많고 대신 종류가 한정돼 있고 약간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 아요.

- 참가자 24 : 약가 저희 시골이 되게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불빛으로 모여든 벌레 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 연구자 3: 그래서 저도 어쨌든 원래 제가 농촌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지혜 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보다 안쓰는 공간의 불을 더 밝게 한다던지 같은.
- 연구자 1: 그것도 준비해야지. 벌레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이제 벌써 우 리 유튜브 많이 보신다 했는데 다 요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점 아까 얘기하면 단점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내가 벌레 대책 한번 잡아보겠다. 취업 대책 아니면 텃밭 가꾸기 대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식의 이제 인생의 한 2년 이제 이민 대책을 세워서 만들 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리고 아내분들이 지금 지역에 가서 어떤 일 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친구 만드는 거 그런 건 이제 힘들겠지만 지역에서도 여가 잘하는 거 동아리 뭐 이런 거 활동하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근데 도시에서만큼은 안 되겠죠. 저희가 약간 늦게 시작했으니까 먹으면서 그냥 얘기하다가 12시 반쯤 끝내는 걸 로..

참가자 22 : 오늘 봤어요. 오늘 아버님 기일이더라고요. 끝나자마자 가서 제사 지

내러 가야할 거 같아요. 아버님한테 죄송한데..

연구자 1: 하여간 뭔가 다섯 분이 다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인 정보와 아주 초보적인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이 농촌 가는 걸 이제 우리 말 쓰는 이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데 이제 농촌 가서 그냥 도시하고 똑같이 생각으로 막 거기 기존에 살 고 있던 사람들의 문화나 삶을 존중 안 하고 민원을 왜 이렇게 해주냐.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사가 사람이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수십 년간 그 도로 하나도 거기 있는 그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거고 학교도 그 지역 기 부채납에 의해서 주민들이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딱 가서 무임승차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집 사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차별받아 이런 식의 접근 을 하면 안 되거든요. 뉴질랜드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귀 촌에 대한 소양이 없으신 분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하고 더 갈등이 심해요. 농촌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 못 배우고 농촌 벗어나지도 못한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돼요. 이런 게 도시 문화 하고 농촌 문화가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건 대부분 그런 어떤 먼저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이것도 원주민이거든요.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농 촌 이주에 대한 기본 소양과 더불어서 준비와 관련해서 장단점을 좀 분 석을 하고 단점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게 좋 지 않을까. 그 귀향이나 이런 걸 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당장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일부도 얘기하셨는데 지 금 계획상에 그거 말고 당장 돈이 어떻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정보를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OOO 선생님 당장 만약 간다면 몇 년은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어떤 것들이 중요하신지..

참가자 21 : 이것도 이제 정부의 일환이기는 한데 어쨌든 구체적인 대상지가 사실 은 없으니까 그걸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비용도 수천이 들어갈 것 같고 이제 그중에서도 사실은 학교 자원 이런 것들이 좀 들 지 않을까.

연구자 1: 애들 교육에 대해서..

참가자 21 : 근처의 학교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병원 이런 게 이제 갖춰져 있는 있으면서도 자연도 괜찮고 이런 공동체도 구성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서 찾아야 되니까 만약에 어떻게 운 좋게 그런 대상 지가 발견이 되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속도가 붙겠죠.

연구자 1 :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완주 그다음에 상주도 있고. 그분들 이 대부분 다 계세요. 그러니까 멘토 역할이 되겠죠. 먼저 가서 정착한 도시 청년들이 이 지역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런 구 체적으로 듣고 그분 통해서 이제 한 번 그 지역에서 한 몇 주간이라도 아니면 방학 휴가 내서 애들 좀 살아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있다 보면 내가 생각한 장단점이 이게 진짜 장단점인가 단점이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건가 같은 상상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카페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갖 고 이제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 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이미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OOO 선생님. 전혀 이제 농촌 그 런 생각이 없으신 거죠?

참가자 22: 아니 그건 아니고 와이프가 어렸을 때 CH에서..

연구자 1: 그럼 CH으로 가면 되겠네요

참가자 22: 근데 저 CH에 가서 갈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 인프라가 이쪽 경기도 쪽에 쌓여 있으니까 여기는 CH 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처음부터다시 쌓아야 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지역에 GD나 PY 이런 데를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가져와서 그런 데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기능은 좋은데 제가 쌓아야 하니까.

연구자 1: 그러니까 30분, 1시간 거리면 거점이 있더라도 가능하니까요.

참가자 22: 인터넷으로 얘기 많이 들어오니까요.

연구자 1 : 그래서 그거 좀 제가 팁을 주면 부인한테도 농촌의 삶에 이렇게 대해서이게 좀 하나하나 정보를..

참가자 22: 그래서 여행만 가면 다 그런 쪽으로 가요. 일단 얘기는 이게 많이 좀 빠지게 해놨고요. 근데 확실히 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벌레는 와이프도 싫어해요. 집을 지을 때도 잘 지으면 별로 안 들어오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연구자 1: 이게 저는 이제 딸이 셋인데 물론 이제 큰 딸내미는 농촌 유학도 보내고 하면서 그나마 좀 덜한데, 둘째, 셋째 딸이면 아주 벌레를 기겁을 하죠.

참가자 22 : 저희 남자들이 군대도 갔다오고 때려잡고 막 그랬는데 와이프는 보고 난리가 나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벌레는 많지가 않은데 생각보다 놀란 게 많지 않은 벌레가 좀 커요.

연구자 3: 이것도 경험이 쌓이면 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가끔 맞닥뜨리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구자 1:000 선생님

참가자 23 : 일단은 어쨌든 도시 생활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일자리를

다시 찾고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고민이기 때문에 쉽게 결 정하기가..

연구자 1 : 혹시 가족분은?

참가자 23 : 같이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생각이 일자리나 혹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거를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움직이는게 좋다고 하죠.

연구자 1: 거기 가면 이제 우리 집 살 수 있으니까

참가자 23 : 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시골에 정말 농촌 지역에 집을 사도 되나?

연구자 3: 아 안오르니까..

참가자 23 : 서울에서는 그런 워낙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사면 오르고 올랐을 때 팔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데 어쨌든 농촌 지역에서의 집은 되게 감가가 있는 집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전제품이랑 비슷하게 보고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니까

연구자 1 : 좋은 걸 선택을 하면 감수를 해야 되는데 감수를 안 하려고 그러면 안되죠.

참가자 23 : 근데 다 하려고 하니까 결정이 어려운 거죠.

연구자 1: 그게 제가 MZ 세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좋은 것만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동을 못해. 어떤 일을 했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있어도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성비를 중요시 한다라는 게.. 내가 이익을 어떤 부분에서 얻는다면 나머지 불리한 건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 측면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참가자 23 : 도시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편리함을 너무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마음과 그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집에서 5분 거리에 수영장이 있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가면 분명히 훨씬 쾌적할 거란 말이죠. 사실 이렇게 복작거리는 수영장 안 가도 되는데도그럼에도 이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될 것같아요.

연구자 1: 그러니까 일자리 생계가..

참가자 23 : 나는 인테리어를 어디 가서든 할 수 있어라는 그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갈 것 같아요. 도시를 떠나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가 좀 기술 습득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드론이라도 날려야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연구자 1: 우리 OOO 씨라고 드론 하나 사갖고 노인들은 드론 못 다루니까 일 년에 드론 가지고 몇천을 벌더라고요. 옛날 요새 논농사는 다 기계예요. 밭농사. 근데 약 뿌리는 게 제일 많거든. 중간에 왜냐하면 풀을 다 뽑거나 이런 거 하는 게 또 결국 인건비 그것 때문에 사람하는데 이거 드론하면 일부 수확할 때 손작업이 있긴 하지만 훨씬 싸고 편하죠.

참가자 23 : 화훼를 하고 싶더라고요.

연구자 1: 최근 농업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또 옛 날 농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화훼 그쪽도 스마트팜 스마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꼭 스마트가 아니더라도 뭐 한 300평 정도 하우스를 딱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있어요. OOO 선생님은?

참가자 24: 저는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에 거의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너 여기 가서 이 일하고 이만큼 돈 줄게.' 라는일자리가 생기면 제가 거기서 집을 구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적응하는 건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일자리가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농촌 가고 싶어서 일이 뭐가 있을까는 순서가 다르고

연구자 1: 그러니까 그 일자리라는 거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

참가자 23 : 내 적성과 내 능력에 맞는.

참가자 24: 차라리 그런 게 명확해지면 사실 가는 건 쉬울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당연히 도시에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 쉬운 건 아니겠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거기 가서 제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혼자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연구자 1:000 선생님은 아주 행복한 거야.

참가자 22 : 서울 기본 아파트 평균가가 10억이잖아요. 평균가가 10억도 싸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면 시골 가면 빌딩을 지어요. 진짜 빌딩을 지어요. SA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가 평균가가 지금 6~7억 하거든요. 지금저희 집 한 채 살 돈이면은 진짜 시골하고 전원주택 마련해요. 요즘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저희 집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연구자 1 : 그러니까 지금이 혹일 수도 지금 더 떨어져 갈 수도 없어

참가자 8 : 집값이 안 오르는데 떨어지는 것도 좀 느려요. 오르는 데는 5억 오르면 서 여기서 떨어지면 2억 떨어져요. 오르면 오르는데 시골은 평상시에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서 지금 사는 것도 괜찮아요.

연구자 1 : 지금 시골에 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워낙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참가자 24: 예. 뭐. 비슷하면..

연구자 1: 원하는 집이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몇십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단독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빈집을 사서리모델링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절대 사람 안 살던 곳에 집을 짓지 마라.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이 있던 곳에 집을 짓고.. 절대 사람이 안 살던 곳에 집 짓지 말라는 거 있죠.

참가자 24: 지금 어디서 봤는데 귀촌을 자기 어디 그러니까 다니다가 이 지역에 너무 좋아서 와서 살고 싶은데 집을 못 구했대요. 그래서 그 근처에 무슨 호텔인지 모텔을 잡고서 한 달을 거의 동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니까 조금씩 친해지는 어르신들이 말하길 저기 할아버지 어제 돌아가셨다. 약간 이래서 그렇게 알려주고 그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 1 : 집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와요. 집은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참가자 24 : 또 그런데도 부동산이 많지도 않고

연구자 1 : 있어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집 안주거든요. 그것 도 근데 좀 살고 제가 막 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안타까워 보이고 그렇게 하면 이것도 지역에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알려줘요.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 얘기하셨고 지역 정보 있으면 본인이 해결 할 수 있죠. 이제 뭐 일자리든 뭐든 시민사회 활동 같은 것들은 사람이 없어요.

참가자 21: 사람 만나고 조직하고 기획하고 하는 일이라서...

연구자 1 : 농촌에 그런 사람이 제일 부족하거든요

참가자 21 : 그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비슷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 1: 이번에 이제 지역의 활동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결이 되면 장소 찾는데 또 순천 인근에 좀 많이 있죠. 곡성이나 그런 데 가면 곡성도 꽤 공동체가 있거든요.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한 거 얘기 다 해주셨어요. 혹시 어떤 식의 이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뭐가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 거리상이나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기본적 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하고 커뮤니티 우리 연구단 커뮤니티 참여하실 분들에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리드를 하는 게 좋아 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구진이 또 중간에 연구 또 박사 받으러 가야 되 고 저는 또 다른 연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귀농 귀촌 청 년 그다음에 농촌의 학교, 그다음에 주민들의 평생 교육, 교육학, 학생 그런 거 제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커뮤 니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갖고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민감한 건 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보고서가 나오 고 우리 연구자문단 활동 보고서, 그다음에 설문조사 한 2천 명 청년 조사한 거 일부는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죠. 이런 결과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국가 통계를 분석한 것도 많은 부분 처음 알려지는 거예요. 농촌 청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데 보수는 적지만 그런 걸 선호하는 청년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결과거든요. 그리고 농촌 도시 청년들보다 덜 빡빡하게.

- 참가자 22: 그런데 입장이 이쪽으로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돌보고 쫓아간다고 농촌 지역 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그쪽으로 도시에서도 많이 우리 도시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죠.
- 연구자 1: 그런데 일자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게 사람이 적게 살거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일자리인데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서 자기가 만족감이 더 높은. 그래서 상당 부분 창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일자리 그러니까 도시 같은 일자리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일거리는 많아요. 일거리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확실히 저기 임시직이 많죠. 그게 뭐냐 하면 농촌에는 상시적으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우리 OOO 선생님처럼 무슨일 있다고 그러면 다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많은 거지. 쫓기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임시 자리니까 내가 원할 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거리는 많다. 제가 이렇게 하지만 일자리는 적지만 일거리는 많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되죠.
- 연구자 3: 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면 일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 정기적인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죠. 지금은 적은데 사람이 모이면 또 생길 거고.
- 연구자 1: 그런데 하여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농촌은 인구 희소 지역이에 요. 인구 희소 지역. 도시는 인구 밀집 지역이고 그러니까 인구 희소 지역에서 그런 일자리가 나오게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기업들도 싼 인건비 때문에 농촌에 가서 공단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거 하다가 더 싼 데 가서 외국 나가라고. 근데 경제

적으로 뭔가 이제 해결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이런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일정 부분 행안부에서 2년간 매달 200 만 원씩 인건비 한다던가 해서 이제 생활비 지원해주는 식으로 해요. 어느 정도 이제 안착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어떤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제 일부에서도 농촌으로 가는 청년들한테 그냥 그 기본소득을 해서 지원해줘요. 그리고 특히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소위 이제 격오 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일자리도 제한 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 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이제 프랑스에서 이미 그런 제도가 있 고요. 프랑스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위주로 해갖고 산간 지역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는 전에 농민들이 되면 직불금이라고 주는 거예요. 청 년들 플러스 주고 그런 격오지에 가는 수당을 또 줘요. 그걸 더 심하게 하면 그런 삶을 아예 사는 것 자체로 해갖고 물론 경관 보존해주는 그 런 역할도 하면서 거기에 사는 것 자체에서 돈을 주기도 하죠. 그런 접 근은 이제 되게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제안은 농촌에 사는데 도시 같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한테까지 주기는 힘들고 사람들이 잘 안 사는데 그 지역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인 경우에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죠.

참가자 24: 갑자기 궁금한 거 제가 이거 자료 보다 보니까 집세가 무료인 경우도 있는 거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요?

연구자 1 : 그게 이제 정부 사업에 귀농 같은 경우 농촌 체류형 농업 창업 센터라 고 해갖고 1년, 귀농의 집 하면은 6개월, 그다음에 연결해서 임대주택 LH 임대주택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년간 살아보게 하고 그 청년들 가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셰어하우스 비슷하게 살아가게 한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연결하게 하고 한 길게 한 3년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잘 되는 데가 이제 완주. 의성 잘 되어 있 고 문경 그다음에 남원, 순창 이렇게 잘 된 지역도 있는데, 거기의 특징 은 먼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한테 멘토링을 아주 잘해 요. 그래서 많이 간 지역에 더 많이 가요. 그럼 이제 활동가들이 결국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 참가자 22 : 광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광고가. 농약 뿌리는 것도 들어오는 거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드론 조종하는 건 여자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 연구자 1 : 그렇죠. 어제 한약재 하신 분도 여자분인데 주변 고령 농가들 다 있습 니다. 그래서 드론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쟤 뭐 백수인가 뭐 여자애가 왜 고향 와서 그냥 있는 것 같으니 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교류를 하게 됐다고..

참가자 22: 제가 하는 거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연구자 1: 그러니까 특히 지금 농촌이 어떠냐면은 농촌에 마을이 3만 7천 개가 있어요. 무슨 리, 무슨 리 거기에 40세 미만 청년이 몇 명씩이냐면 3개 마을에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마을 하나에 한 명씩 들어가게. 그러면 한 2만 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걔네가 들어가서 그 마을 일을 해주는 거야. 드론도 해주고 그 럼 주민들이 좋아하죠. 그전에 놀리는 농지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개 념도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청년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도시 같은 그런 일거리, 일자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거기 농촌 특 성에 맞는 그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월급을 주는 이 일자리만 생각하 지 않으면은 할 일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할 일이 경우에 따라서 망치질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노인들이 못하는 그다음에 노인들 읍내까지 자동차로 운전 해주는 것만 하면 돼요. 그거 하루 딱 뭐 해주면 저쪽에서 뭐 해갖고 갖다주는 돈을 안 주더라도 다른 방식의 페이가 있거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면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농촌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3만 7천 개 되는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딱 들어갈 때 얘기가 있듯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인구의 인정받을 기간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걸 지나면 이제 그 마을을 경영하는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한 10년 있으면 이제 이장 될 것이죠. 이장되면 거기가 내가 경영하는 마을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한 발 얻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한 10년만 좀 살면 그지역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연구자 3: 대장이 되죠.

연구자 1: 지금 그런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쪽의 기회를 찾으면 다르죠. 그냥 구경꾼하고 내가 어디 구석에서 좀 잘 살아볼까 이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약간의 처음에 혈연, 지연 이런 것 때문에 고생도 하고 그러겠지만 소위 마을 리하면은 보통 아파트 단지 큰 대규모단지 한 다섯 개 합천 정도 면적 되거든. 거기에 리더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거죠. 인터뷰하면서 막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연구자 3: 되게 농촌에 살고 계신 그러니까 귀촌에 성공하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런 게한계가 있어서 좀 아쉽네요.

연구자 1: 그분들이 또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주 혁신도시에 연구원이 있거든요. 그 전국의 혁신도시가 도별로 하나씩 있잖아요. 나주는 이

제 광주 전남 혁신도시라고 해서 그것도 괜찮아요. 지역의 혁신도시로 가는 거예요. 혁신도시도 이미 이제 집값이 많이 비싸긴 한데 대부분 혁신도시들이 인근에 한 5분만 지나면 바로 농촌이에요. 나주도 이렇 게 이제 벌레로부터 자유롭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읍내에 서 생활을 그러니까 저녁이면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저기 술 마시고 이런 거 아주 그냥 저희도 바글바글해. 그게 싫으면 그 인근에 이제 농촌에 가서 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 또 나름 도시 같은 일자리가 또 많기 때문에.

참가자 24 : 서울에 있다가 나중에 본 거잖아요. 거기에 청년부들은 만족도가 어 떠세요?

연구자 3 : 제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 그것도 사실 사람들 성격이나 그런 경험에 따 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여기서 맨날 한 시간씩 대학원을 출 퇴근 하면서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굉장히 비싼 집에서 좁은 원룸에 살고 이랬었는데 내려가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딱 버스에서 내렸 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소음과 항상 모든 소 음이나 빛 공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자유로운 그 자유로움 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대신 냄새가 갑자기 나요. 소똥 냄새가 난다 거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들이 없고 어떤 걸 포기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아내는 좀 사는 게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 하면 아까 커뮤니티 나이 또래 친구들이 없어서 물론 적극적으로 커뮤 니티하고 하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고 그러니까 결국 은 지금은 주말부부하고 있죠. JD에 살고 계시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튼 저는 되게 만족하고 너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딱 말씀하신 대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나주 탈출만 생각하 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있죠.

참가자 24 : 직원분들도 이제 기혼이시지만 미혼인 분들은 사실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연구자 3: 그래서 연애를..

연구자 1: 거기에 거기도 이미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

참가자 24: 그러면 그 안에서..

연구자 1 : 그렇죠. 결혼 문제는 그 내부의 미팅 프로그램도 있고 뭔가 이제 회사에서 대학원 배치하는 사람들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연구자 3: 근데 장거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연구자 1 : 인근에 또 광주 또 있고

연구자 3: 저도 집은 혁신도시에 없고요. 그 근처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은 매우 싼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4천만 원대의 전세를 20 평이지만 아주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물론 저는 아주 싼 집에 그중에서 싼 집이긴 한데 저도 그 안에서도 한 1억 2천 정도의 전세 29평에 살았었고 저도 그 돈이면 작은 원룸 하나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저도 똑같은 고민으로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지려다 보니 되게..

참가자 22 : 개발되고 하면은 겹치면서 돈 많이 보상을 많이 받던데요.

연구자 3 : 근데 그건 정말 로또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좀 어렵죠.

연구자 1 : 아니 그러니까 모든 장점을 취하려고 하면..

연구자 3: 다들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를 저희가 평생 살면서 겪어왔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가성비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 1: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도시에 사는 청년 중에서도 아주 소수다. 제 가 이제 조사를 도시민 귀농 귀촌 의향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한 5%도 안 되니까요. 의향이 있는 사람, 물론 이제 육십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십프로 넘어가죠. 일단 그분들은 이제 실제로 농촌에서 살았고 고향 돌아갈 고향이라는 게 명확하게 계시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분들 그런 의향이 있다라는 게 되게 이제 장점인 거예요. 95%는 도시 에서 벗어날 엄두도 못 내는 거지. 도시에 가면 거기에는 아주 그냥 사 람이 못 살 것이고 그런 심리적인 적이 있거든요. 장벽이. 그런데 그런 심리적 어떻게 보면 그 심리적 장벽이 제일 커서 그건 어릴 때 어떤 여 러 경험에 의해서 의향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애가 지도 보고 그 랬잖아요. 서울하고 여기는 도시 나머지는 시골. 서울 빼고 다 시골이 야. 그거는 자기는 시골에서는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살던 아까 얘기지만 어릴 때 시골도 살 수 있고 거주 환경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더 많은 거죠. 난 도시에서 살 수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생각이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할 수 있죠. 왜 시골에 사 는 게 중요하냐면 생각이 유연하고 다양하고 그다음에 좀 포용하고 얌 체 같지 않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리고 인간적인 삶이라는 게 그런 사회를 좀 구축하자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애들한 테 그런 걸 경험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게 그걸 경험하신 분들 이 지금 다 이런 공동체 일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가자 22 : 도시에 애 좀 뭐 좀 놀아주고 싶으면 다 돈이 되니까..

연구자 3: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하셨는데.

연구자 1 : 농촌 하면은 애들이 작은 학교에 다니고 이러지만은 비용이 안 들어요. 그리고 농촌 학교는 방과 후가 다 공짜예요. 제가 이제 농촌 학교 연구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무슨 문화 단체라고 도시에서 악기 배우면 뭐 한 30만 워 들어.

참가자 24: 시골 학교 애들이 오히려 막.

연구자 3: 두세 개씩 해.

연구자 1: 그게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농촌 유학을 보내요.

참가자 23 : 오케스트라 막.

연구자 3: 맞아요. 골프장 다 있고 보면 맞아요.

참가자 23 : 거의 사립 초등학교에서 할 것 같은 것들을 다.

연구자 1: 그래서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물론 모든 농촌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데가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2007년에 그런 사례를 발굴 했어. 그 10개의 학교 만들어서 하니까 그것도 언론 보도되고 그 인근 에 퍼지고 그래서 제가 그 연구하면서 우리 딸내미 농촌 유학을 시작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모집이 안 됐었는데. 예전에 그랬었죠.

참가자 24: 따님은 그때의 기억을 되게 좋게 기억하고 계시는

연구자 1: 그래서 걔도 이제 저는 서울 잠실에 살다가 지방 이전하면서 세종으로 가고 이제 마누라도 세종에 있어서 이제 나주에 저 혼자 이제 오피스텔 이 있어요. 딸내미 중에 첫째가 하도 제가 막 그렇게 해서 첫째는 되게 이제 네트워킹이 좋아요. 저는 이제 그 다니면서도 학원을 안 보냈어. 요. 거의 그런 게 싫어서 지역에 보내고 그런 좀 자유롭게 하니까 확실 히 자유로워. 엄청 잘 틀에 박힌 생각보다도 자기 주도적이죠. 근데 물 론 개인 성향이 또 그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 그런 애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게 이해가 가요. 나중에는 애들이 적 으니까 취직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교육적으로 대학 갈 걱정 안 해도 되고 대학 좋은 데 나왔다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오히려 이제 제대로 인생 경험을 하는 애들이 더 리더가 돼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가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뭔가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런 애들은이기지도 못해요. 리더라는 거는 꼭 위에서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이런 자연 체험하고 뭐 이렇게 깍쟁이 짓 안 하고 뭐 이런 거에서 나오거든요. 애를 깍쟁이로 키우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다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자체가 지금 5%라는 거죠.

연구자 3: 아이를 교육할 때 투자 대비 효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도시에서 살면서 이제 집 이자 내고 아이들 학원비 한 달에 뭐 해가지고 거의한 2,000을 아이한테 쓴다고 했을 때, 농촌에서 살면서 만약에 1,500을 아낄 수 있어요. 1,500이면 애한테 해외여행을 한 1년에 몇 번씩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똑같이 똑같은 돈을 썼을 때 정말 다양한걸 시킬 수 있거든요.

연구자 1: 그런 측면에서 가성비인거죠.

연구자 3: 그렇죠 가성비가 너무 좋죠. 물론 서울대 이런 데 보내고 싶으면 도시의 강남 교육을 받는 게 유리하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자 1: 아니요. 지금 또 농어촌 특별전형 그렇게 있어요.

연구자 3 : 있죠. 맞아요.

연구자 1: 학교마다 적어도 6년간을 농촌에서 보낸 애들만 특별히 뽑는 게 있어 요. 그런 거 하면 시골 학교에서 등급 높게 받아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것도 몰라. 농촌에 지내면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애들이 자꾸 그러 니까 다시 도시로 이사시키고 그러면 그거 말짱꽝이죠. 그러니까 소위 열악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또 열악하지도 않아. 좋은 학교는, 그런 데 서 학교 전임 교육받고 그래갖고 인근에 학교 가서 좀 등급 좋게 받으 면 더 좋은 데 가고.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좋은 정보인데 잘 모르지. 그 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애들 교육 측면에서는 가성비가 솔직히 좋죠.

- 참가자 23 : 어쨌든 이게 계속 실효성을 거두려면 사례 발굴이 빨리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계속 노출이 돼야 할 것 같아요.
- 연구자 3: 사례 발굴은 연구자 개개인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보고서에서 끝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 참가자 23 : 이제 그게 일반 청년이나 시민들이 보고 싶을 만한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데 딱딱하게 나오면, 자료집 형태로 나오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 연구자 1: 우리도 이제 연구한 다음에 보도 자료를 만들어요.
- 연구자 3: 요즘 미디어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고 저희 연구원 안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연구쟁이들이다 보니 좀 이런 표현력이 서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저희 연구자문단에도 유튜 버 되게 한 20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PD도 계시고 하니까 아니 저희가 끝나고 결과물들을 좀 공유를 드리면 나중에 재밌게 5분짜리 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또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 연구자 1 : 연구단을 활용해서 사례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고민 하는 그 지점을 해결한 사례예요.
- 참가자 24 :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 방법이나 정말 얼마에 살고 있고 얼마

나 세이브가 됐고 이런 게.

- 연구자 1: 그러니까 가성비 따지니까 이 대차 대조표를 하나 한다면..
- 참가자 24 : 그런 게 계속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청년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 연구자 1: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득이 명확해야죠. 이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간 돈으로 환산하니까 이건 마이너스라고 잴 수 있죠. 그리고 또 농촌에 가면은 이거 평생 커리어에서의 만족감이라는 양이 있잖아요. 그 도시에서는 이제 고용이 짧고, 있더라도 40대 초반이면 은퇴도 걱정해야 되고 뭐 그런 거랑 해서 비교를 하는 걸로.
- 참가자 24 : 도시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딱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례가 많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 연구자 1: 사례와 실제 돈으로..
- 연구자 3 : 수치로 보여지는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뭐 개인들이 찾게하는 게 아니고 노출이 되어야 하고.
- 참가자 24 : 그런 포털 사이트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게 정부가 잘 보여줘 야..
- 연구자 3: 사실 요즘 네이버에도 네이버 팜이라고 해서 되게 메인에 노출이 생각보다 많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기는 해요.
- 참가자 24: 그리고 이제 서울에도 마르쉐라는 마켓이 있잖아요. 농부시장. 거기 서 이제 농부시장 안에서 농촌 지역에 이렇게 답사를 많이 가고 그래 요. 도시 청년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꽤 많이 신청자가 있고 가서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농부님들이 먹는 식사를 같

- 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 연구자 1 : 우리 생협, 생계발전, 한살림 이런 데 해갖고 우리 생협 매장에 농산물 만드는 농가에 가는 거야. 거기서 체험도 하고 애들이랑 같이 해서 먹 는 농산물이 어떻게 길러지고 왔는지 그걸 하면서 교류하고 그 농가한 테 또 직접 사기도 하고 이런 식의 활동하는 게 다 마르쉐인데 생각을 하는 이거 이런 건 오래 됐어요.
- 참가자 24: 한살림같은 것은 MZ 세대는 별로 아니고, MZ 세대들은 아직까지는 좀 되게 핫한 곳에 있는 그로서리 마켓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 연구자 1: 같은 현상도 다른 말로 표현하듯이 맞아. 브랜드도 좀 달라야 돼.
- 참가자 24 : 브랜딩을 좀 해야 좀 MZ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 연구자 3: 저희 나주 혁신도시에도 그런 한살림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안 그렇 죠. 그로서리 숍들이 생기고 있어요.
- 참가자 24 : 사실 그냥 영어로 썼을 뿐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로서리 숍에 는 다 수입품이고 훨씬 비싸고 맛도 없고 근데 그냥 포장을 너무 잘해 서 사람들이 찾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농촌에서 농부들 하고 함께 이렇게 조합 만들어서 되게 멋진 공간이나 카페 같은 거 하 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 연구자 1: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내다 보면 이제 창업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서 가는 게 아 니라 가서 뭣 좀 지으면서 일자리를 내가 만드는 그런 뭔가 창업 프로 그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 참가자 24 : 그 도시에 살면서 그 95%가 사실 도시를 못 떠나지만 주말마다 어쨌

든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역에 살아도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굴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정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소득을 얻으시는지 궁금하고 내가 고사리 따가지고 1년 먹고 살 수 있을지 이런게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연구자 1: 많이 벌지는 않아요. 많이 벌지는 않는데 그게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 친환경 농산물만 해서 본인이 도시 소비자 한 300가구랑 농가 몇 개 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연결해서 판매해주는 그 아이템으로 이제 창업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 거가 되게 많아요. 그걸 이제 직거래 방식인데 아주 타깃을 명확하게, 특히 애 키우는 그런 가정들은 이제 그런 친환경 수요가 많기때문에 그런 거 꽤 많죠. 거기 농업 관련된 친구들 다 그런 아이템 다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농사지을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찾으면 그런 성공 모델 카피만 하더라도 아주 꽤 할 게 많아요. 도시의 일자리의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그래서 농촌에서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내가 살고자 하고 그 마을을 경영해보겠다 라는 생각만 좀가지면 그게 기회가 되는데 왜냐하면 경쟁이 없거든. 그런 어떤 애착과 리더십과 이런 것만 발휘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이제 많이 배워야지 해도 있다 보면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연구자 3: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게 되게 소심하신 것 같아요. 말도 저명하신데 '뭐 하세요?' 하면 어디 뭐 협회장 하고 계시고 실제로 성격은 적극적 이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있으니까 하시게 되고 소득도 그거 에 따라서 또 오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 연구자 1: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또 많아지면 거기에서 또 청년들 간의 갈등이 또 있어요.
- 연구자 3: 이게 농촌이라는 곳이 도시보다 더 자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워읔 나누는 과정에서 좀 갈등이 생기죠. 사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든 갈 등이 있다고 봐야 되고 좀 더 많이 보이죠. 농촌은 더 좁기 때문에.
- 연구자 1: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겪게 되는 건데 어디든 다른 방식의 저건 있으니까 도시에 있으면 뭐 그거는 더 심화하는 거 죠. 근데 농촌이 그나마 그래도 인간적이고.

참가자 22 : 벌초만 가면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연구자 1 : 그러니까 단점을 보고 못 들어갈 이유를 찾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 장점 보고 이렇게 찾으면 하는 거예요. 확실히 하여간 그런 여유롭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농촌에 사는 게 훨씬 낫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이 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는 것도 적성이 있는데 우리가 뭐 수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 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드너 교수가 연구하 는데 그게 뇌 특정 부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밝힌 게 다중지능 이론이야. 지능이 8가지가 있다. 지금까지 생리학적으로 연결 가능한 8가지 지능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수리 지능. 언어 지 능, 공간 지능 그다음에 영적 지능 있어요. 이렇게 무당이나 이렇게 10%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모든 적성이 다 발현이 되는 게 아니 에요. 이 경험과 만났을 때 발현이 되거든. 그게 지금은 한 5% 이렇게 발휘가 돼요.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자연적인 걸 좋아하 는 거예요. 옛날 그런 경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그 천성에다가 그 경험 이 딱 발현이 돼서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그 사람

들한테는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게 행복하죠. 도시에 살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 정리가 다 안됐는데 제가 이제 오래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농촌은 내추럴 인텔리전스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때문에도 그렇고 농촌도 그런 사람이 살면은 굳이 돈이 안 되더라도 농촌에 살거든요. 내추럴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면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사는 거니까 그런 농촌은 좀 다르죠.

## 제6장

## 충북·충남 지역 청년 조사



## 충북·충남 지역 청년 조사

연구자 1 : 지금 말씀드린 분석 결과 내용에 대해서 소감을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랑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참가자 26 : 저는 SH에서 온 OOO이고요. 우선 대표 소속을 마을학교라고 했는 데 이제 SH에 있는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청년들을 반기고 안내 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 사무국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손이 필요한 부서에서 조 금씩 조금씩 일을 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아마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데 참여하게 됐는데 질문이 구체적이어서 답을 하기가 좀 수월 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 좀 궁 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간담회 자리가 조금 부담은 됐지만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서 왔구요. 근데 이제 막 엄청나게 충격적이거나 새로운 내 용은 없지만 자료를 처음 봤을 때는 이거 좀 현실과 동떨어진, 내가 모르는 세상이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뒤에 '청년이 바라 는 농촌'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고 다시 보니까 너무 참고가 되고 이런 세상이구나 느꼈고요. 근데 궁금한 부분은 하나 있었는데 지역사회 참여 부분을 농촌 청년과 도시 청년 나눠서 하셨잖아요. 근데 도시에 서의 지역사회라는 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연구자 1 : 농촌과 똑같이 마을, 동 행사든 뭐든 동이든 본인 아파트 단지든 그 수 준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다를 거 같아 요. 동호회든 거기도 무슨 체력 단련회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참가자 26: 약간 청년이라는 단어가 청년이 아닌 세대랑 청년이라고 묶는 세대랑 이렇게 어쨌든 뭔가 벽을 치는 느낌이 저는 늘 있는데 그것처럼 농촌 청년, 도시 청년 물론 농촌 청년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연구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없으니까 연구를 해주신 거지만 농촌 청년, 도시 청년 이렇게 딱 하니까 도시 청년은 뭐가 다르지? 도시의 지역사회는 어떤 곳이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연구자 1: 그렇군요. 다음 선생님

참가자 27: 저는 CI에서 왔고요. 지역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설문처럼 이렇게 파일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게 답변 표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가지고 물론 짧게 대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사실은 이 질문에 있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지 못한게 좀 아쉬웠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이야기들을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농촌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자 1: 지금 하시면 되는데, 조사에서 못한 얘기를 듣자고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요.

- 참가자 27 : 청년이 바라는 농촌 조사 결과를 보면서도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들이 있어서 공감하면서 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만 앞에서 봤 던 부분은, 다른 도시 청년과 비교하는 부분도 있죠. 여기 보면 도시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이 농촌 청년보다 더 많다고 나오는 이 부분이 약간 의아했거든요.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 회 활동이라는 건 뭐였을까 하면 제가 그냥 도시에서 경험했었던, 도 시에서의 경험과 농촌에 와서의 경험을 놓고 보자면 청년이라고 해 서 특별히 도시 청년에 비해서 특별히 더 낮을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답변의 차이가 나왔는지
- 연구자 1: 자료를 보시면 친목,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 여가단체, 시 민사회단체, 지역사회 모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하는 지역사회 모임을 그걸 이제 지역사회 참여라고 했는데 지역사회 모임의 경우 40세 이상은 농촌이 더 많죠. 근데 이제 그 밖의 이런 문 화적 활동은 도시가 더 활발한 거죠. 도시에도 여러 가지 농촌과 다른 방식의 이런 사교 모임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꼭 그 지역 우리가 얘기 하는 마을 공동체 이런 게 아니라 특히 뭔가 종교를 같이 하거나 취미 를 같이 하거나 그런 기회가 농촌보다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 참가자 27: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 으로는 여기 생활환경 부분에서 CI군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 임대주 택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평수가 7평 그니까 7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공용으로, 이게 농촌만 그런 건 아니고 도시에서 만들 어지는 청년 타깃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주거 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전히 지역사회든 아니면 국가기관이든 청년이라는 청년을 바라보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딘가로 건너 가는 어떤 중간 단계로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받는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정상가 족을 꾸리는 어떤 단계의 단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이 사는 집 은 그냥 원룸이어도 되고 7평짜리 집이어도 되고 공간 분리가 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약간 정책적으로 만드는 주거 사업에서조차도 청년 세대라고 하면은 굉장히 분리되지 않은 공간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는 이 생활환경에 대한 응답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체적인 현재 청년 세대 요구, 사실 청 년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인 거잖아요. 고령의 가 구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주거 정책에 이런 이야 기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가자 28 : 안녕하세요. 저도 CI에서 왔고 저는 농촌활력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연구결과 재밌게 잘 봤습니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청년을 되게 불쌍하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질문에서부터 뭔가 다양한 모습들을 더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있는 현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 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면서 조금 느꼈던 점은 사실 제 친구들이나 얘기하다 보면 사실 교통이 농촌 사 회에서 조금 많이 힘든 주제고 사실 여가생활이나 주거 모두 다 교통 이랑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분석한 것을 보니까 교통들이 이제 어떤 것의 부수적인 이유로 들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교통이 장벽이 되는 경우 가 많아서 오히려 이 카테고리를 독립적으로 빼서 분석을 해보시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사실 교 통이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뚜벅이로 살다가 차를 끌고 다니기 시작 하는데 사실 돈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청년으로서 농촌의 사회라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사실 청년들한테 기회가 많다 보니까 뭐가 내가 더 뭐가 악장서야 하고 조금 더 솤선수 범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 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 다.

- 참가자 29 : 안녕하세요. 저도 CI에서 왔고요. 지역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 다. 저는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소감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먼저 농촌과 도시 청년들을 보는 데이터가 사실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부채, 직업 만족도, 문화 여러 가지 이슈로 나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고 제가 흥미로운 부분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취재로 한번 보도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었는데요. 다만 이제 보니까 도시와 청년들의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 로 벌어지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여가 중시 비율만 보더라도 농촌 50.6%고 도시가 40.4%라는데 이 정도 차이라면 도시와 농촌을, 농촌 청년이 그렇다고 내가 출세를 원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 연구자 1: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한 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인 거거든요.
- 참가자 29 :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농촌과 도시 청 년 둘을 비교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과장되게 강조되 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도시와 농촌의 청년 문제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세대 문제로 봐버리니까 저는 이런 특정한 것 들이 약간 과잉 표상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세대 내 문 제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세대 내에서 청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농촌과 도시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뽑고 조사를 했다라면은

훨씬 좀 입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치 든 사회적인 위치든 청년들이 도시와 농촌의 청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아니라 계급문제로 볼 때 훨씬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라는 농촌 여기 보면 자연이 이제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정년퇴직하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조사를 해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진짜 농촌 현실, 농촌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사라고 하지만 이번으로 사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도 않고 다만 이제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농촌 청년 문제, 농촌 청년들이 현재 어느 계급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보고 그에 따른

연구자 1 : 그러니까 여유 있는 청년들은 여가 중시에, 일보다는 여가 중시가 많았을 거다라는 가정이죠?

참가자 29: 그렇죠. 청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계급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장기노동자도 있는 반면에 부모들한테 상당한 자산을 물려받아서 기업들을 운영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사회단체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카르텔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못 치고 올라가게 만들어요. 정보나 이런 데 있어서 사회관계 이런 걸 다선점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계급화, 세습화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걸 보려면 저는 세대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로 계급 문제로 가야..

연구자 1: 제가 한 번 청년들 소득에 따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 연구자 2: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지적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한데 저희 연구에서 주목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청년의 삶의 질의 문제에 초 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잘 사는 청년들이 있고 못 사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럼 못 사는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가 이렇게 가 면 이제 논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거는 절대적으로 읍면에 거주하는 청년의 양이 적다. 그러면 일단 절대적으로 쪽수를 늘 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 배경과 역량을 갖 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20~30대가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만으 로도 만들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가 노리고 있는 거는 청년 내부의 다양성을 보기보다 읍면에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를 보여주긴 할 거지만, 그 처지 각각을 부각하기보다는 일단 농촌에 사는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경향과 이런 삶의 형태와 가치관을 갖 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 요하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주장, 농촌 청년 부흥회를 일단 좀 하는 게 사실은 올해 1차년도 연구의 목표예요.
- 참가자 29 : 연구원님 말씀 중요한데 제가 지역에서 사람들을 볼 때 느낀 점은 그 공통된 가치관이라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청년들과 월세를 사는 청년들은 다릅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본인들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 했으면 좋겠다.
- 연구자 2: 경북 간담회를 했을 때, 부모님이 부농이시고 본인은 농고 나와서 농수 산대 나와서 되게 완전 엘리트 코스로 하고 계시는 청년 남성농업인이 오셨어요. 그래서 29번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어떤 느낌인 지 알겠어요.

- 연구자 1: 오히려 그런 청년들은 일을 더 중시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여가를 중 시한다라는 게 꼭 돈의 문제는 아닌 측면이 있죠. 그치만 그런지 어떤 지 그거는 한 번 볼게요.
- 연구자 3: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 바라는 농촌은 지금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응답하시고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응답하시고 하다 보니 까 그냥 사회 전반적인 경향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도 있어. 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어떤 응답자에 따라서 또 다 시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 연구자 1 : 이걸 이제 전국 1.800명한테 또 이렇게 체크하는 걸 조사를 해놨거든 요. 그래서 이제 도시 출신이다가 농촌으로, 농촌에 대한 판타지를 가 지고 온 청년들이 그리는 이런 그림이 있을 거고 농촌에서 계속 사셨던 분들 특히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고 그래서 따 로 나중에 분석을 추가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결과는 여기 청년 연 구자문단 50명들이 그러낸 그림인데 그런 좀 차별화된 그림은 저희가 또 할 겁니다.
- 참가자 30 :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SH에서 스타트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OOO라고 합니다. 저희는 로컬푸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면 서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거 조사에 참여하면서 여 러 가지 생각을 제가 스스로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저는 제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시골에 사업하러 내 려와서 다시 전국으로 뭔가 사업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 제 가 사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을 보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사업이라는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일자리와 소득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살펴봤 는데 되게 놀라웠던 점은 농촌 이제 평균 임금은 낮았는데 가구 소득

은 낮았는데 1인당 1인 청년의 소득은 도시보다 높다라는 결과. 그 리고 농촌에 이제 근무하는 청년들의 생각이 농촌의 장래성과 안정 성이 보장되어 있다. 여가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사실은 이걸 합치면 안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소득도 높고 여가도 추구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왜 안 내려올까라는 궁금증?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해 볼 건데 제 주변에 저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 청년들이거든요. 월급을 주고 있는데 작년까지 만 해도 거의 최저시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서의 공통된 룰이었어요. 거의 그게 그거 이상을 본 적이 없어 요. 그런데 이렇게 평균 소득을 보니까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게 평균이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이게 평균이 나오지? 내 주변에 없는데 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처음에 연구의 전제로 농촌 청년 인구 라고 했을 때 읍면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라고 하면 SH에도 신 도시가 있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 하시고 대부분 공무직을 수행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포함이 되 어 있겠구나. 이 사실 결과치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게 그러면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평균을 한 거라면 과연 이게 과 연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의 청년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이렇 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런 농촌에 왜 안 내려오지라고 생각이 들었 던 점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원래 저만 와서 생활을 하다가 아 내가 내려오게 됐어요. 원래 서울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내려왔을 때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기존에 받았던 월급보다 훨씬 더 적게 받을 거고 대신에 삶의 여유는 추구할 수 있다. 대신에 여가도 추가하면서 돈을 같이 많이 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그건 좀 욕심인 것 같 다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바라본 저희 지역에서의 사람들, 청년 농부 도 있고 청년 공무원도 있고 저희같이 회사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했

을 때 여가를 추구하러 온 친구들은 그돈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더 빡세게 하는 친구들은 또 돈을 많이 벌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제가 봐왔던, 제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이래?라는 부분이 이 소득 부분에서 좀 나온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연구자 1: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거는 읍면을 구분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농촌 청년이라 했을 때 인구희소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농촌 청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행정구역상 읍면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농촌정책을 펼치고 있기때문에 면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입학 전형 혜택을 주거든요. 옛날에 한 번은 하도 문제가 돼갖고 이게 농촌이냐도시냐 이렇게 논란이 있는 지역인데 대입 전형 혜택을 받아요. 결국은 그런 기회 찾아서 도시 같은 농촌에서 살고 상당수 청년들이 그런도시화된 농촌에서 도시의 과밀을 피해서 약간의 여유로운 주거 공간그걸 또 선호하는데 그런 것도 또 수요거든요. 그래서 농촌이라고 했을 때 농촌 청년이 뭔가 취약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평균 개념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투입되는 거는 그러지 않은 청년도 꽤 있고 도시 같은 어빌리티를 누릴 수 있는 농촌도 농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좀 더 그걸구분을 해서 인구가 희소한 인구 3만이 되지 않는 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열악하가는 한 번 보겠습니다.

연구자 2: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국가 승인 통계 분석을 한 건데 이게 표본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표본이 대규모거든요. 그리고 추출을 할 때 표집을 할 때 되게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표본편의가 거의 없어요. 이 주거실태 조사 같은 경우도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편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재벌 아들들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그 상극단 과 하극단이 다 합쳐져서 지금 평균치를 비교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어쨌든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농촌의 경우가 약간 120만 원 더 많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분위로 나눠서 상층하고 하층에 도대체 몇 퍼 센트가 도시 농촌에 있나, 그러니까 양극화 정도를 비교해 보는 거는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참가자 30 : 최근에 제가 이제 작년까진 그랬는데 올해 연봉을 좀 많이 올렸거든 요. 저도 사실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직원이 3명인데 약 간 다 추구하는 방향성이 농촌에서 농촌으로 내려오는 친구들이고 자기 삶의 여가나 워라밸이 좀 중심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급을 한 25% 정도 딱 올렸는데 제가 거기서 테스트해보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내가 돈을 이만큼 더 줄 거고 우리는 앞으로 더 바빠질 거야 그러면 너는 너가 생각했던 그 여가를 조금 내려놓고 더 일할 수 있어?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 균형을 지금 사실은 맞춰가는 단계 인데 그 친구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제 표본이 너무 작죠. 의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공고를 냈을 때 타 지역에서 지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사실은 농촌에서 청년들이 새롭게 유입 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라고도 알고 있고 일자 리 중에서도 좋은 일자리 자기 시간들이 더 많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부가가치를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그 걸 통해서 도시 청년이든 도시 근교 청년이든 그래서 내려오게 만들 려면 결국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 어서 최근에 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고 그런 어쨌든 그런 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요새 친구들은 생각을 참 많이 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참가자 31 : 안녕하세요. 저는 YC에서 온 OOO이라고 하고요.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사업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농촌 출신이었다가 지금은 시내에서 마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시선으로 좀 많이 봤었어요. 저도 농촌 출 신으로서 다시 또 농촌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시에 있는 청 년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부족한 것을 너무 느껴서 그래서 이 거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했었는데 결국에는 농촌에 그런 여건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는 건 항상 느끼고 있어요. 교통 문제도 당연히 있 고 여가 생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부족하고 그리고 특히 일자리 가 없는 것도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게 되 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시내에 있는 청년들한테 농촌 되게 좋다 농촌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가 지더라고요. 관련된 일자리도 알려주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너무 관 심이 없는 게 도시 청년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 지금 이런 결과들 보면서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연구자 1: 제가 대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20% 정도는 관심 있더라고요.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도시 청년들 조사를 했는데 잠재그룹을 찾아 내는 거 하고, 또 우리 연구원이 매년 국민의식 조사라고 해서 귀농 귀촌 의향을 이렇게 조사를 해요. 거기 보통 한 15에서 20%는 관심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이거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한 테 적절한 정보를 주는 그런 건 가능할 거다. 그래서 농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는 어릴 때 여러 가지 부모, 친척 방문이든 뭐

든 해서 한번 이렇게 농촌에서 딱 놀아본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 아요. 제가 이제 전공이 교육학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농촌에 관심을 가지나 했더니 기성세대들은 대부분이 과반수가 이제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귀농 의향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세대적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줄어들어요. 교육학에서는 보통 그런 성향이 청소년 시기까지 형성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새로 형성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관심 비중이 줄 긴 하지만 15~20%는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그런 경험 있는 사람 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년에 청소년들 조사 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시골에서 자란다고 해도 자기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을 알게 하는 그런 교육이 상당히 중 요하고, 도시 학교의 경우 요새 농촌 유학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좀 더 많은 농촌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필요하다. 조사결과에서 농 촌이 이렇게 좋다는데 왜 안오냐 의구심이 든다 하셨는데, 시골은 살 곳이 못 돼라는,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이게 큰 심리적 장애인데 시골 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 수도 있고 농촌에서도 살 수 있고 어 떻게 보면 삶의 역량이 되는데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연구자 2: 서울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연구자 1: 그래서 당장 대학 모집도요. 기업에서 특정학과 반도체든 뭐든 해갖고 인력 육성하려고 지방대 아무리 육성해도 지방대로 안 와요. 서울 벗 어나면은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이제 피서철에 가는 곳 정도로 인식하니까 내년에는 하여간 그런 청소년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청소년 교육활동하시는 청년들이 꽤 많더라고 요. 미국은 푸드 리터러시라고 해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농촌 관 련 교육을 되게 강조를 해요. 프랑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많이 아쉽죠.

참가자 32 :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차장 이용기 앞에 대문짝만하게 있는 데 3천 원 내기가 조금 약간 농촌에 살다 보니까 돈 내면서 주차한다 는게 쉽지가 않아서 계속 뺑뺑 돌다보니 늦었습니다. 저는 농업을 하 고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고 있고요. 4H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었거 든요. 그래서 아까 카르텔까지 이야기가 되지만 약간 폐쇄적인 건 맞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들어오라고 해도 솔직히 안 들어오 거든요. 다른 사람들 보고 이제 권유를 해도 활동을 하자고 해도 솔직 히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조금 더 이제 지역적으로 계속 저 도 활동을 하고 싶어서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역 봉사를 하자라 고 해서 이제 세무사, 목사 이렇게 주변 분들이 몇 명 모여서 이제 활 동을 했었는데 저희는 주제가 그거였어요. 청년분들한테 우리가 알 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요즘 트렌드적인 그런 직업 같은 걸 좀 소개를 시켜보자라는 게 원래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스마 트 스토어나 아니면은 인터넷 판매 쪽 그리고 IT 쪽, 사회복지 이런 분들 초빙해 가지고 이제 강연 같은 걸 좀 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 제 저녁에는 홀덤펍이라고 그거를 좀 이제 자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2 : 홀덤펍이 뭔가요?

참가자 32 : 홀덤펍이라고 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젊은 문화 쪽에 그런 펍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녁에 제가 확실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일을 하는데 저녁에 여가를 하다 보니까 여가 생활을 즐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도시에 잠깐 나갔다가 그런 문화를 보고 너무참신하고 재밌다라고 해서 그런 걸 요즘에 하고 있는데

연구자 1: 규모가 돼요? 모이는 사람들이?

참가자 32: 조금씩 오고는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연령층은 되게 다양하 게 오고 있어요. 문화적 공간으로는 되게 좋기는 한데 약간 불법적으 로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유지하는 데 어렵기는 합니다. 근 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도 되게 다양하고 군인도 있고 무슨 중소 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간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 도 있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단체를 처음 만든 게 그때였어요. 그러 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찾아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간부예요. 간부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정작 토박이 사람들 은 다 그냥 잡일을 하고 있어요. 간부가 아니라. 3교대나 아니면 단순 일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다 외부에서 오더라고요. 토박이가 잘 성장해서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 치까지 간 사람들은 드물더라고요. 제가 조사결과에서 가장 놀랐던 게 20년 후에 바라는 생계 활동에 주 40시간에 월 200~ 300만 원을 선호하는 빈도가 높은 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부터 이 내용을 봤었는데 20년 후에 제가 200. 300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 어떻게 이 생각을 하지?라는

연구자 2 : 물가 인상은 고려 안 하고 그냥 지금 기준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참가자 32 : 당장 5년, 10년 후만 생각해도 이 300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해서 근 데 그 뒤에 보면은 IT 웹 개발자가 돼서 월 500만 원 소득 그리고 네 번째도 200~300을 벌면서 사이드로 100만 원을 더 벌겠다. 그게 결 국에는 400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현실이고 앞의 것들은 현실이 아 닌 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뒤에 글로 봤을 때는 400인데 근데 이게 최고 문제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농촌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아르 바이트생도 그렇고 주위에 대화를 나눴던 분들, 청소년들 이야기를 나 눠봤을 때 문제 인식이 낮은 곳 같은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연구자 1: 문제 의식이라는 게 어떤?

참가자 32 : 자극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그러 니까 주변 동기가 잘 되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라는 게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없어서 내가 동기 부여가 안 돼도 솔직히 그냥 이 사람들이 되게 평범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노 멀하고 평범하니까 그냥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그런 느낌 자 체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살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도 그냥 왜요라고 했을 때 너는 그렇게 살아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왜 그렇게 너는 빡빡하게 살아 이렇게 오히려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쪽 에서 오는 허탈감 약간 오히려 상대적인 허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 서 오히려 주입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러니까 제가 최고로 뽑았던 답은 농촌의 IT가 가장 어울린다라는 생 각이 많이 들었어요. 공간에 대한 제약이 덜하다고 해야 될까요. 스 마트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요즘에 되게 뜨는 그러니 까 어떻게 보면 웹을 통해서 이제 뿌리는 일 자체가 되게 트렌드적인 일인데 그게 상대적으로 도시에 안 있어도 되는 그런 일들이고, 우선 도시하고 교환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직업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일인데 이런 게 농업 농촌으로 반강제적이라고 투입 되면 훨씬 더 활력이 살아나지 않을까. 근데 모르거든요. 농업 농촌 에 있는 애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왜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솔직히 주변 친구가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라는 게 알려지면 나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없어요. 그러 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덜 하 다 보니까 오히려 인터넷으로 벌 수도 있나라는 게 되게 장벽이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이걸 배울 수 있는 학원도 없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농업은 못 들어와요. 폐쇄적이어 서가 아니라 수익이 안 돼요.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근데 돈은 안 되니까, 저도 오 히려 홀덤펍 같은 다른 데 눈을 돌리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임을 하고 있어서 농업농촌 이제 4H 모임을 하고 있어. 서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했던 기반들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대부분이고, 물려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되게 번뜩이는 아 이디어를 갖고 있고 기획 능력까지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이 들어와 야지 뭔가 이제 버틸 수 있지 그냥 자연, 힐링 이런 걸 꿈꾸고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이제 모 임했던 애들도 결국에는 나가더라고요. 질적으로 내가 일하는 데 있 어가지고 뭐가 퀄리티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렇게 퀄 리티 있는 일들이 들어가줘야지 농촌이라는 곳에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농촌분들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원하 는 답변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모르니까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 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연, 치유, 이쪽으로만 힐링 이쪽으로 만 농촌을 대입시켜버리면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소수의 집단이 지 않을까 싶어요. 그니까 농촌의 땅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도 시의 땅보다 농촌의 땅이 더 많은데 자연, 힐링 쪽으로만 가버리면 비 는 곳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자 1: 선생님 같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래 서 농촌에서까지 그렇게 막 일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싶지 않다라는 분 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이라는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할 거냐 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개발된 공간이라기보다는 다워적 기능 이 유지되는 그런 공간으로, 인구가 좀 희소하더라도 거기에 생물학적인 것도 보존이 되면서 그런 측면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산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또 많은 기회가 있도록 하면서도 농촌의 지향성 그러니까 도시의 과밀된 것을 벗어나서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또 있으니까. 덜 경쟁적인 환경에서돈이나 이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 간의 어떤 사회적 자본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서 하여간 농촌의 다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씩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농촌에 정착하게 된 계기나 왜 내가 농촌에 살게 됐는지 말씀을해주세요.

참가자 26 : 원래 농촌출신인데요. 다른 농촌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주변 사 람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다 도시로 가고 성인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로 가는 게 당연한 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연히 SH에 오게 돼 가 지고 이제 일반 농대를 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알게 돼서 소규모 농사를 짓는 어떻게 보면 집단에 들어가게 된 건데 거기에서 는 이제 농촌이라고 하는 곳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 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많은 얘기처럼 그냥 똑같이 사람 사 는 곳이고 우리 동네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과제가 있고 그것들 아 무튼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인데 왜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농촌에 서 태어나서 자란 부모님 밑에서도 농촌에서는 살 수가 없다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야 되는가.. 그래서 SH에서 지내면 서 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간 과정으로 인식하셔 가 지고. 나는 계속 농촌에 살고 싶은데 원래는 고향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셔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머물 고 있습니다.

연구자 1: 농촌에 사는 게 그냥 좋다는 얘기죠?

참가자 26 :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SH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왜 도시로 가야 되지?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 는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냥 가까운 형제 자매만 보더라도 힘들게 힘들게 대학 가서 힘들게 힘들게 취직해서 힘들게 힘들게 빚갚으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나도 똑 같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죠. 그냥 좀 덜 벌고 좀 불편하게 살 면 되는 거 아닌가

연구자 1: 〇〇학교 전공부를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결심은 누가 영향을...

참가자 26 : 이제 누가 그냥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곳인지 모 르고 실수로 저를 보내셔가지고, 그냥 일반 농업 대학인가 보다 하셨 어요

연구자 1 : 공부는 만족스러우셨어요.?

참가자 26: 네. 근데 힘들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제 당장 농대를 다니 고 공부도 하고 싶고 나는 농사를, 집에서는 반대하지만 농사 아무나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돈도 없는데 땅도 없다 농사 못 한다 이 렇게 하시지만 근데 주변에 다 농사짓고 살거든요. 저희 외가. 친가 다 농사를 짓는 집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농업 관련된 삶이라든가 농촌 관련된 삶이라든가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게 그런 환경으로 계속 끌고 가셨어요. 제가 막 농고도 가고 싶어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럴 까, 이모가 농사지은 콩 먹고 쌀밥 지어 먹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 는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왔을 때 현실 은 녹록지 않지만 어쨌든 농민을 기르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른들도 있고 농지를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고 농촌의 다양한 삶을 구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지? 근데 농사가 당장은 어렵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뭔가 그렇게 적성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고 땅도 없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 농사를 짓고 싶을 때 지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농촌에서 생활을 좀 해봐야겠다. 근데 계속계속 사실 저는 고향에 가고 싶고 너무 이렇게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직까지 주변 사람들이 별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연구자 1: 고향은 어디?

참가자 26 : 강원도 인제요

참가자 27: 저도 사실 26번 선생님하고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을 또 얘기하자면 경북 구미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맨날 들었던 얘기가 잘 되려면 서울가야 된다 그 정도?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용돈도 좀 어느 정도, 알바를 한다거나 이러면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구미 시내에서 안 놀고 애들이 다 대구 동성로 가서 놀아요. 노는 것도 동성로 가서 놀아야 잘 놀았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더 형편이 되는 친구들은 서울로 가고 이제 기차 타고 서울 가서 놀다오고 그랬는데 그냥 저역시 동성로 가서 같이 놀던 무리 중에 한 명이긴 했지만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그 얘기에 묘한 반감이 있었어요. 내가 나고 자란 동네가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도 구미에 사시고 내 친구들도 구미에 살고 우리 엄마 아빠 열심히 사는데 구미에 살고 있는데 왜 구미에 사는건 되게 패배한 것처럼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그냥 이제 크면서 지역에서 살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동시에 제가 갖고 있었던 꿈이 기자가 되는 거였는데 이 두 가지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마침 CI였던 것처럼 이제

제가 4학년 졸업하기 직전에 CI신문에 공채 같은 거가 떠서 그걸 보고 또 제가 이제 언론 정보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이 CI신문이 되게 좋은 괜찮은 지역 언론으로 또 배우기도 했어서 저기라 면 내가 기자로서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지역에서 무언가 해보고 싶다 라고 했던 그것을 좀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CI에 오 게 됐던 거였고요. 이제 농촌살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 는 이제 신문 일을 하면서 농촌에서 살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어 요. 그전에는 저는 사실 농업 농촌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기는 하셨지만 그런 걸 그냥 제 어깨 너머로만 보러 갔던 거고 제 일은 아니었으니까 잘 몰랐 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이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도 배 우지 않고 미디어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배우지 못할 수밖에 없기는 하 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게 너무나 힘들고. 힘들 다는 게 그냥 어떤 불쌍하다 아니면 어떤 동정과 시혜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힘들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 속에서의 농업 농촌이 너무나 속상함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내가 농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지 역에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참가자 26 : 너무 재밌는 게 저는 경부 상주 출신인데 저희는 잘 놀려면 구미로 갔 어야 했어요. 다 그랬거든요. 저희는 영화관이 없었어요. 영화관이 있는 구미로 갔어야 했거든요. 근데 구미는 대구로 갔어야 된다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참가자 27: 이게 되게 문화생활의 여건, 그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더 큰 도시로 가고, 듣다가 들었던 생각이 지금의 PZ 사람들 그러니까 PZ 토박이 들은 다 되게 그냥 되게 단순한 업무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처음에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문화생활에 있어서 뭔가 기반이 되고 여건이 되는 과정들은 이미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회가 얘기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지역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릴 때 이미 다 뻔하니까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상주 사셨던 선생님도 어릴 때는 동네, 큰 동네에서 놀았던 것처럼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애초에 농촌이라는 공간 자체가 너무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그 공간에서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정주 여건 자체가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돈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결국 농촌에는 계속해서 의지가 있어서 내가 어떤 사회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남지 않는 상황이 되고이게 되게 악순환이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참가자 28: 저는 원래 CI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다시 CI로 오지 말아야겠다 생각했고,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 바로 코이카 봉사단지원해서 교육받는 걸 앞두고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코로나가 너무심하게 터져가지고 제가 못 갔어요. 딱 가려고 하던 그 바로 전 주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뭐를 할까 하다가 어차피 코로나 금방 끝날 거니까, 나 이제 갈 거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단기근로를 찾아봤거든요. 군청에 청년 단기근로가 있고 장기로 할 수 있는 근로가 있는데 그니까 제가 장기로 근로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제가원래 청소년 교육에서 관심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6개월짜리 딱그 사업이 있길래 그럼 여기를 지원을 해서 해봐야겠다. 그때 하다가이제 그게 행복 교육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저는 행복 교육지구 사업이 되게 지역사회와 엄청 밀착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을 하면

서 알게 된 거예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거를 알면서 나도 이런 수혜를 입고 살았구나 감사함이 좀 커서 보답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뭔가 너무 여기가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가려고 이제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장학사님이 이제 얘기하면서 "너도 그렇게 힘드냐. 지역사회 아는 사 람들. 곁다리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게 네 자본이 되는데 왜 그 거를 활용을 안 하냐"이제 그 얘기를 하시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까도 잠 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CI에서 자라면서 CI에서 어떻게 살 아야 될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청년 세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 뭔가 지역에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삶의 다양 하게 다양성을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정착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 는데 오히려 이제 행복교육지구서 일을 하면서 비슷한 동기나 혹은 선배들이 이렇게도 정착을 하는구나라는 걸 오히려 좀 가능성을 보 고 좀 더 정착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연구자 1: 진짜 진솔하네. 코이카 어디를 가려고 그랬어요?

참가자 28: 남미 에콰도르로 청소년 봉사하러 가려고 했어요.

연구자 2: 여전히 기회만 되면 가고 싶죠?

참가자 28 : 그래서 다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CI에 아는 분 들도 많이 많아지고 그래서 좀 더 있어야겠다.

연구자 2: 코이카 활동을 CI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참가자 31 : 그쪽 가시려면 언어도 하셨을 거고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 깝다거나 그런 생각을 잘 안 드세요?

- 참가자 28 : 아까우 마음이 있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아예 그 삶을 못 사 는 건 아니니까 나름의 재미를 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 연구자 1: 저도 하여간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그랬거든요. 제가 농업 교육 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ODA사업 하면서 남미는 파라과이, 아프리카는 모잠비크 이렇게 다니는데 국제 기부 활동하는 그게 되게 생명이 짧더 라고. 짧아서 그런 경험은 좋은데 나중에 그런 경험하더라도 다시 와서 학생들한테 스페인어 가르치고 좋잖아요. 국제 개발하는 사람,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농촌에 외국만큼 힘든 농촌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 근데 하여간 그 경험하더라도 한번 해서 갔다 오시면 또 아마 시각이 또 달라지실 거예요.
- 참가자 29 : 저도 고향이 경북인데 안동이 고향인데 예안이라고 이게 시골이에 요. 이게 시골인데 저희 제가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대구에서 태어났 다가 아버지가 일을, 그때 이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 고 그게 유행할 때였어요. 직장을 때려치우시고 귀촌을 하신 거예 요.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편하게 살겠다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그 런데 본인도 시골 출신이셨거든요. 그런데 시골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를 정확히 모르셨죠. 그래서 가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래서 두 분 계속 일하시고 정말 잠자는 거 빼고 일만 하셨거든요. 그 런데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이렇게 좌절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어릴 때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절대로 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갔는데 그때 이제 이 명박 정부 때인데 이명박 정부 때 행정 인턴이라는 걸 대규모로 뽑았 어요. 청년 실업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제가 세무 서에서 이렇게 행정 인턴을 하다가 이게 좀 잘 돼가지고 지금 공무직

이죠. 무기계약직 전화이 딱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시험쳐서 세무직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도 있었어 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서울에서 제가 한 3년 살았 거든요. 3년 살았는데 안 맞는 게 어떤 곳에서 안 맞았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직 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하는데 서로 농구도 하고 재미있게 살았어요. 술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이상 얘기 진전이 안 돼요. 더 이상 나가 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은 당시에 이제 안동에서 도 있었고 주로 대구에 많이 있었는데 다들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했 었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비슷했거든요. 근데 사실 상황이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서 일을 했지만 저도 신문 기자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풀뿌리 운동이라고 대학 다닐 때 그런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CI신문이라는 거를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정리해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도 시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시골,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을 생각했는데 여기는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마트도 있 어요. 이건 도시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와보고는 여기 도시네? 그 렇게 그래서 저는 농촌에 산다는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처음에 저 동 네에서 살고 지금도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시골에 산다는 느 낌을 잘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하는 일이 제가 이제 지금은 취재 일선에서 조금 물러나 있지만 하는 일이 이제 농촌 농업 문제 이런 거 이제 다루고 지역 신문이다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내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면 지역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교감하면서 교 류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라서 나는 농촌에 살고 있기는 한데 농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

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앞으로 저도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농촌에서 열심히 사시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을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언론계 쪽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취재에서 조금 물러나 있어서 조금 더 열린 맘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접근을 해보려고 저도 사 회단체에서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해봤어요. 근데 걸리는 게 제 보수 수준으로는 그 사회단체 활동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가입비도 있고 연회비도 있고 사회단체인데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나는 어렵겠다. 우리 신문사 보수가 많은 편도 아니고. 여기보면 200만~30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해서 청년 모 임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기존에 이제 사회단체 에 속하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가보면 저는 올해 제 나이가 이제 마흔인데 완전 어 립니다.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청년으로 활동을 하시는 데 이게 도시 같으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상 청년 자원 자체가 적고요. 그래서 스펙트럼도 엄청 넓어요. 50 넘으 신 분들도 그런 분들까지 다양하고 근데 그분들도 본인 동네 가면은 막내거든요. 60도 막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청년들 그리고 농 촌이 어떻게 지속가능할 거냐. 그리고 자꾸 고령화되는 부분을 어떻 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당장 답도 없습니다. 사실 뭐 여기랑 어떻게 기업 유치하

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저희 CI에 큰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엄청 큰 기업 위치가 있어요. 자랑을 CI이 엄청 했습니 다. 근데 거의 고용 2명이에요. 전 자동화가 되어서. 요즘 다 그렇더 라고. 기존에 있는 식품 기업들도 자동화, CI에서 식품 기업이 고용 을 많이 하는, 이제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공장을 증축을 최근에 하는데 다 전 자동화로 사람이 별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쉽지는 않구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상 황이긴 해요. 힘든 상황이긴 한데 저는 지역에서 희망을 뭔가 희망을 찾으려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분들은 지역을 일종의 여가수단 이나 내가 도시의 그런 치열함을 벗어나서 농촌에서 살고 싶다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사실 치열하게 살고 있고 치열하 게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본질적으로 도저히 다르 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계속 고민하고..

연구자 1: 저희가 연구 결과 나오면 잘 보도해서 지역에 또 알려주시지요.

참가자 30 :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던 청년들의 평균적 삶에 대해서 좀 안 내를 드리고 싶은 게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저는 서울에서 왔고 서울에서 자랐거든요. 자라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하다가 농업 관련 된 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창업을 하면서 로컬 에 들어온 이유가 제가 책에서 봤던. 공부할 때 책에서 봤던 문제들이 이거 왜 해결이 안 되지? 왜 90년대 나왔던 내용이랑 지금 나온 내용 은 똑같지?라는 내용을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창업이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왜 진짜 내려가서 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연구원도 다니고 컨설팅 회사 다니면서 농촌에서 활동을 해 봤을 때 안 된다는 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촌이어서 안 돼. 이거는 못해. 청년들이 없어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같이 팀원들 이랑 같이 뭔가 프로젝트 상으로 들어가서 했을 때 됐는데라는 경우 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의 그 경험을 토대로 나도 그러면 내가 교과서 에서 봤던 문제를, 저는 유통 문제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하면 되 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을 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 위한테 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창업할 겁니다. 그리고 저 SH 내려갑 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 빼고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똑같이 한 말이 저희 또래 친구들은 "야, 너 내려가서 농사짓게? 너 내려가서 똥 푸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어른 세대는 저한테 "농촌은 나중에 일하 다가 퇴직해서 내려가라. 그때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왜 해보지 않지 않았나. 나 해보 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려오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스타트업, 사무실은 시내에 있지만 다들 저를 되게 신기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 넥스트로컬 사업으로 바로 SH에 내려온 건데 총 140팀이 처음에 전국에 뿌려졌어요. 140팀이 뿌려지고 서바이벌 형식으로 이제 최종 20팀 정도가 남는 건데 제가 저는 앞으로도 내려 가서 SH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140팀 중에 거의 유일했 고 그거를 운영진에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연구자 1: 대부분은 시험적으로 한 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지

참가자 30: 네. 내려가서 자원을 찾아서 다시 올라오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려가서 저는 사업비가 2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처음에 그걸로 나 는 숙소를 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숙소를 구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 20팀 을 봤을 때도 나주에도 한 팀이 있었고 저희도 한 팀이 있지만 대부분 의 사업가들이 이렇게 아이템을 발굴해서 서울 테헤란로에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저희의 네트워크 스타 트업 이렇게 투자자도 찾아가고 하는데 거기서 그게 돼요?라는 걸 되 게 많이 듣고 있고 근데 저는 그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 서 농촌에서도 충분히 좋은 부가가치를 내는 좋은 사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역 곳 곳에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곳에 뭔가를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사 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내려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상이나 시 선을 깨보고 싶은, 그래서 농촌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달 라서 조금은 여유를 찾아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앞 으로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유만 추구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공 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생력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충분 히 도시와 다른 결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그런 분 들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여야만 농촌이라는 공간에 존재를 생각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연구자 1: 지금 전체 농촌 거주자 중에서 농업 종사자가 한 25% 정도 돼요. 청년 들 하면 5%거든. 그만큼 이제 청년 내에서 직업적인 스펙트럼도 다양 하고 앞으로도 5% 이상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농가 인구가 5%나 까 아마 농촌이라는 공간이 농업 농촌에 농자가 붙은 게 이제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런 마을이라는 뜻에서 농촌인데 그 개념이 이제 좀 희박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 이외에 다양한 그렇지만 농업도 여전히 중 요한, 왜냐하면 인구 희소 지역에서 그렇게 생산성 있는 활동이 전 세 계적으로도 농업, 지역에서 가장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는 산업들이 대부분 이제 농업이거든요. 외국에서도 보면은 그런 시도, 지역에 공 장이 탁 들어갔다가 공장이든 뭐든 이렇게 그게 그때를 잘못 만나면 그 사람들이 다 일자리 잃으면 거기가 완전 폐허가 돼버리는 데 농촌은 농 사를 지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인구수,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업은 결국 농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사자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니까 좀 다양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처럼 어떤 사람은 미용실을 차리고 어떤 사람은 카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슈퍼도 하고 누구는 뭐 어떤 취미 동호회에 관련된 활동 여가 하기도하고 그런 공간으로 농촌이 있는 건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일을 통해서 뭔가 성공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지 농촌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가자 31: 저도 경북 김천, 아무래도 시골에서 이렇게 나고 자라다 보니까 그냥 그 영향 때문에 계속 시골에 있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이랑 환경이 좀 어렵고 그니까 좀 열악한 환경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 농촌에 들어가서 지역을 좀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자 1: 사업적 계기가 있었나요.

참가자 31: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농촌이라는 환경이 좀 너무 어렵다는, 어릴 때 농촌이 너무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이렇게 농촌은 어렵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농촌을 좀 살기 좋게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연구자 1: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단체가 눈에 들어왔던 건가요?

참가자 31: 원래는 이런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계기가 돼서 여기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농촌이라는 게 되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해서 농촌에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참가자 32 : 저는 PZ에서 태어나서 어쨌든 가에 PZ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워래는 이제 중학교 때 청주로 갔다가 청주에서 이제 쭉 살다가

연구자 1 : 부모님이 아예 이사를?

참가자 32 : 어머님만 이사를 한 거죠. 어머니가 이제 학구열이 또 이제 뛰어나셨 어요. 이제 중3 때 갑자기 이사를 가셔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살짝 트러블이 있어서 방황하다가 대전으로 이제 학교를 자취를 하 면서 이제 살게 됐었고요. 이제 아버지께서. PZ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된 계기가 이제 아버지 덕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느 날 통장 을 그냥 딱 보여주면서 이제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보여주셔서

연구자 1 : 몇 살 때

참가자 32 : 스무 살 때. 21살 때

연구자 1: 통 크시다.

참가자 32 : 그데 이제 내막은 모르고. 저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 부모 님이 고구마 농사도 하셔서 주말 되면 이제 끌려가는 게 너무 싫었었 거든요. 문지방 잡고 버티기까지도 하고 이제 해도 결국에는 끌려가 서 일하는 게 너무 싫었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어머니도 너무 싫어하 셨어요.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반대가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 서 저도 이제 안 하려고 했다가 통장을 이렇게 딱 보고 이제 들어온 것 만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들어온 것만 보여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 요. 들어왔다가 5분 뒤면 다 나가는 거를 그걸 못 보고 들어온 돈이 이 제 1천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들어온 걸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닌데. 통장이 어차피 내가 그냥 은행원이구나,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인 거잖 아요.

연구자 1 : 보여주신 거, 이번에 돼지 팔아서 이 정도 내가 수입을 올린다 이런 걸 보여주셨구나.

참가자 32 :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저런 분이셨구나.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돼지 키우는 것도 몰랐고 돼지 키우는 건 알았는데 관심 깊게 보지를 않아서 그냥 하시는 거구 나라고만 알지. 지원만 받다가

연구자 1: 부모님은 언제부터 돼지를 키우셨어요?

참가자 32: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저 한 2살 3살 때 원래 방앗간을, 고추 일을 하시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집안 어떤 계기로 인해서 돼지를 키우게 되셨는데

연구자 2: 통장 보는 순간 그냥 농사가 아니네. 이거 사업이네 하셨겠네요.

참가자 32: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돼지 쪽 전문으로 천안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후계자가 돼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지금은 독립을 했는데, 중간에이제 모든 후계자들이 다 겪는 일인데 저희가 이제 엄청난 갈등이 생기거든요. 저도 이제 계속 갈등을 겪다가 순천에도 이제 아는 형네 집에 이제 가서 일도 하고 이러다가 우연치 않게 아시는 분이 이제 월세라는 걸 통해서 이제 니가 한번 독립적으로 해봐라 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월세 식으로 하다가 지금 사료회사 투자받아서 이제 조그 망게

연구자 1 : 그런 게 있어요 월세?

참가자 32 : 임대업이죠. 시설을, 돼지를 임대해서

- 연구자 2: 관리해 주는 역할인가요?
- 참가자 32 : 농장을 임대로 얻었고 그 농장에서 돼지를 암퇘지를, 아버지랑 엮이 기 싫어서 이제 돼지를 키워주는 조건으로 이제 얼마를 돈을 받고 그 러고 나서 이제 임대료를 지불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한 3년을 그런 식으로 돌리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사료 회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돈을 빌려 농장을 구입하게 된 거죠.
- 연구자 1: 학교 도움을 받았나요? 그걸 어떻게 20대 초반 청년에게 해 줄 생각을 했을까요?
- 참가자 32 :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자식 이라는 도움을 받은 거죠.
- 연구자 2: 아버지 자원.
- 참가자 32: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아버지 농장에서 한 4, 5년을 그래도 같이 일 했던 게 있으니까 그쪽 사료회사 직원분들이 보시고 돼지는 키울 수 있는 애구나라는 걸 이제 그쪽에서 알게 돼서 그리고 제가 돼지를 그 렇게 해서 임대업으로 키우고 있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사료회사에 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 사료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 연구자 1: 양돈이라는 거가 농사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걸로 뭐가 인식이 전화되 는 순간 마인드가 바뀐 거네요.
- 연구자 2: 아버님이 대단한 경영자시네.
- 연구자 1: 그런 집이 많아요. 이게 그냥 농사인 줄 알았는데, 주로 이제 부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장부를 딱 보는 순간 그렇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뀐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

이구나, 농사가 아니라 경영이라는 거를 아는 순간 이게 생각이 바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꼭 후계자 저거 하려면 꼭 장부 작성 하라

참가자 32: 저희는 아버지가 장부 작성한 통장 내역, 그것 때문에 요즘에 많이 농 업 분야에서 제가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의 거의 한 80%는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가는 수준인데.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제 가 한 5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했을 때에는 300에 서 500 정도 번다고 했을 때에는 제 식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했을 때 그럼 걔네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들이 약간 올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도 가정을 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걸 나눠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 면 저 또한 이제 내 식솔들을 챙겨야 되는 과정 속에 있고 그 자식 또 한 그 자식의 식솔을 챙겨야 되는데 이거를 나눠 먹기에는 적다고 하 면 결론적으로는 하지 마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두 가 정,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이 가능한 형편이 돼야지 들어와 이렇게 되 는데 내가 나만 간신히 먹는데, 100만 원밖에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솔직히 들어오지 말고 차라리 남 집사를 하더라도 그래도 300~400을 벌 수 있는 환경으로 가서 일을 해라. 내 집으로 들어왔 는데 100만 원밖에 못 주는 그거는 내 자식한테는 못 시킬 것 같아요.

연구자 1 : 본인은 자식이 농사짓겠다 하면 찬성하시나요?

참가자 32: 저는 찬성은 하기는 하는데 저는 지금 농장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지금 제가 농장 아까 말했듯이 임대 넣었던 거를 지금 내년이면 이제 헐리거든요. 근데 돼지 쪽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른 쪽을 생각하다가 이제 가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니까 부모님 거는 이제 물려받는 거는 거부 를 했고

연구자 1: 장기적으로 보면 받으실 거 아니에요?

참가자 32 : 안 줄 것 같아요. 얘기가 좀 달라져가지고 사회에 화워하신다고 열심 히 쓰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저도 먹고 살 수 있는 뭐가를 찾 아야 되겠어서 농사도 한 7천 평 짓고 소도 키워보고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배운 게 농업이라 주변 관계자분들 딱 주변 인들 다 농업에 있는 사람들이라 농업으로 조금 해보고는 싶은데 정 말 힘들어요.

연구자 1: 부업은 어느 정도. 전체 소득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참가자 32 : 지금 농사는 계속 망했고요. 7천 평 했는데 지금 3년째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돼지하고 농업은 솔직히 같은 농업이라고 하니까 결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소는 비슷할 수 있는데 농작물을 키 우는 건 완전 다르더라고요. 결 자체가 달라요. 일하는 패턴도 다르 고 다 다르더라고요. 소는 재미를 봤는데 지금 소값이 너무 많이 비싸 서 못 느끼는 실정이고 근데 부업으로는.. 농작물은 망했어요. 농작 물은 이제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연구자 2: 부업으로 생활비를 감당하시는 수준은 돼요?

참가자 32: 지금 그 홀덤펍이라고 하는 그쪽이 오히려 지금은 생활비로

역구자 2 : 안정적인 소득처.. 제가 전공이 사회학이어서 사실은 지방의 중소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곳의 청년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도시와 청년을 굳이 구 별하는 것이 너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지 않냐 의도적이지 않냐 이 런 말씀을 초반에 던져주셨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시 이하에 사는 청년들은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로도 못 가요. 근데 이 중소도시에 사는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나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지극히 자기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되게 개인적인 거 그다음에 자기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만. 근데 지금여러분들은 그게 명확하게 정의되기는 어렵지만 지역이든 관계든 활동이든 뭔가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공공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엮어서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저는 도시 청년과 농촌이라고 불리는읍면에 사는 청년들의 감각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소득이 됐든 어떤 활동이 됐건 미래의 삶에 대한 비전이 다르거나 다양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차이를 만든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조금 부각하고 강조해서 이야기와 스토리를 보고서로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연구자 1: 여러분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역사회 참여 이 부분을 하여간 계층을 나눠서, 얘기하신 대로 보통 지역 참여 뭔가 사회 운동적인 이런 참여 랑 지극히 개인적인 거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까지 농촌 청년정책 같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의견을 그때그때 좀 주시고요.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나오면 같이 한번 또 선생님 기삿거리, 농촌 청년에 대해서 특히 도시하고 비교해서 의미 있는 자료로 밝혀보겠고 하여간 연구 결과 같이 공유할 때 드릴 테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7장 청년 여성 조사

## 청년 여성 조사

연구자 2: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과제는 지난번에 지역별 오프라인 간담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때 미처 못 오신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생각들을 좀 나누는 자리를 계속 돌아가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모였을때는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적 특징에 주안점을 둬서 얘기가 이루어졌다면 오늘은 농촌의 성별 구조적인 환경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쭉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할게요. 제가 보이는 화면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농촌과 청년이라고하는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순미라고 합니다.

참가자 33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W에 살고 있고요. 원래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JW로 귀농 귀촌한 지 한 5년 차 돼 가고 있고요.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있고 지금 현재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 갑습니다.

참가자 3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가자 34이라고 하고 지금 SH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남편이랑 젤라또 가게 같이 운영하고 있고 SH에 온 지는 한4년 좀 넘었어요.

참가자 35 :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SE에 지금 살고 있고요. 원래는 서울 출신이었는데 요새 농촌 살아보기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거 통해서 작년에 이제 귀촌을 결정했고 지금 중간지원 조직 지원센터에서 도 농 연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36 : 네 안녕하세요. 참가자 36입니다. 저는 지금 JW에 살고 있고 귀촌한 지 이제 4년 차 됐습니다. 저는 지금 JW에 있는 청년 거점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 뒤에 보이는 곳이 저희 공간입니다.

연구자 2: 아직 퇴근을 못 하셨네요.

참가자 36: 네 퇴근 못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37: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HB에 살고 있고 저는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HB로 귀농해서 같이 왔다가 대학교 서울로 가게 돼서 대학생활 서울에서 하고 직장생활하다가 이제 HB로 다시 또 내려와서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통주 관련해서 창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참가자 38: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YM에서 태어나서 농업에 계속 종사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해서 신랑을 만나가 지고 지금 충남 SS에서 낙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아이 3명 키우고 있습니다.

참가자 39 : 저는 경상북도 JS로 귀농해서 살고 있고요. 39살이고 지금 딸아이 한 명이랑 남편이랑 이렇게 같이 귀농한 지 2년이 돼가고요. 그리고 샤

인머스캣 농사를 남편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같이 농사를 하면서 저는 재택으로 근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원래 서울에서 했던 사무직 일을 가지고 와서 일을 같이 하면서 농사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40: 네 안녕하세요. 저는 CO에 살고 있는 참가자 40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CO fm 공동체 라디오라고 지난해 12월 21일에 개국한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 라디오는 지상파 방송국 허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주파수의 범위의 차이가 있어요. CO에서만 송출이 된다는 점. 그리고 참여하신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그런 라디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라디오의 기획부터 제작에 전반적으로 참여를 해서 청소년 어르신 등 연령도 다양하고 분야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CO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가 대학만 딴데 갔다가다시 CO에 왔습니다.

## [연구결과 발표]

연구자 2: 이 정도로 일단 제 얘기는 마치고요. 지금 혹시 의견 정리가 좀 되셨을 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경제와 소득 그다음에 가족과 성과 재생산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와 정치 참여 이렇게 주제를 나눴는데.

참가자 35 : 세 가지로 나눠진 주제가 있기는 한데 너무 주제가..

연구자 2 : 커요?

참가자 35 : 네 커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잘 감이..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뭔가 주제가 더 분명하면 이야기하기가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게 느껴져서.

연구자 2: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한 바퀴 돌아보죠. 한 바퀴 돌아서 하고 싶은 얘

기가 있으시면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세부 주제 이야깃거리도 좀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먼저 손든 참가자 34 선생님부터

- 참가자 34: 저 자료도 대충 좀 읽고 얘기해 주신 것도 들었을 때 약간 좀 동의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원래 농촌에서 쭉 삶을 이어왔던 사람하고 또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과의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통계들을 봤을 때 저는 제가 느끼는 거랑은 좀 반대인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통계가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쭉 거주했는데 이 농촌에서의 삶을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길 원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 연구자 2: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보고서다 보니까 약간 선명성을 위해서 차이가 부각되는지점들을 보다 더 강조한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상황을 부정적으로 그린 내용들을 봤을 때 쭉 농촌에서 산 청년과 그다음에 좀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난 언제든지 도시로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 간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 참가자 34: 단적으로 직업적인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게 만드는 보통의 요소들이 약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 같았어요. 공무원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직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한 반면에,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뭔가를 찾아서 떠나거나 다시 들어오거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우선 저는 여기까지.

- 연구자 2: 참가자 34 선생님은 안정성을 경제활동의 요소로 지금 꼽기보다 내가하고 싶은 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참가자 34: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했던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고용의 형태였지만 그냥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삶을 원했기 때문에 이주를 해서이곳에서 불안정적인 고용 형태에 놓여 있어도 그 삶의 만족도는 좀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예요.
- 연구자 2 : 또 다른 분. 뭔가 메일을 회신 주셨을 때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러 셨으면서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 참가자 38 :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하는 게, 사실 저는 처음에 소개할 때 다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직업이 굉 장히 다양해서 조금 의외다 싶긴 했어요. 그리고 농촌 설문조사를 했 을 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따지고도 저희가 되게 분류가 많다 고 이렇게 하거든요. 귀농한 친구들도 있고 어렸을 적부터 농업에 종 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기반을 자리 잡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기반이 너무 약해서 힘든 청년이 있어요. 청년 농업인 중에서도 이렇게 다양한데 항상 이제 농촌 청년 농업인을 바라볼 때는 한 가지 의 주제로 바라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농촌 청년들이 정 치 효능감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들이 되게 소수고 그중 에서도 청년 농업인들이 되게 소수다 보니까 우리가 의견을 말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라는 반감이 되게 큰 것 같고요. 끊임없이 농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농산물의 시세나 이 런 것들이 비싸지거나 농업에 관련 이슈가 생기면은 당장 정부에서 일단 제도적으로 농산물의 시세를 제지를 하고 오히려 수입을 해온 다든지 이런, 농업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반감이 많지 않나 싶고요. 그에 반해 또 시골에서 보

면은 오히려 도의원이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청년 농업인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이게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 뿐이지. 지역사회에서 그런 시의원, 군의원, 시장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농업인의 비중이 작 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또 청년 농업인들이 시골에 서 빨리 더 결혼을 하고 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더 사회 참여도가 빨리 이제 끊어진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도 26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농사짓는 신랑을 만나서 결 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력 단절이라고 볼 수도 있 지만 저의 긴 삶을 봤을 때는 이게 잠깐 쉬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농업은 다른 직업과 다르게 경력 단절이 아쉽고 힘들긴 하지만 복직 이라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단점으로만 봐야 할까라 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자 2 : 보고서 내용에 굳이 국한해서 말씀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참가자 33 : 저희 남편은 회사원을 하다가 농사를 짓고 싶어서 여기 지금 JW로 내 려왔거든요. 저는 이제 스페인어 강사로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여기로 내려왔어야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경력 단절 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아이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내려와서 사 실은 저는 이제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일을 이렇게 다른 어떤 특정 회 사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구하기 쉽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IW에 있다면 근교에 있는 전주나 군산이나 이런 큰 도시로 나갔을 때 스페인어 강사 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거 든요. 그리고 남편이 아마 농사를 처음에 짓다 보면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커버해 줄 수 있 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흔쾌히 승낙해 서 이제 JW로 내려왔는데 이제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100일이었었 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있다보니까 제가 제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 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라는 건 어쨌건 시간을 정해놓고 수업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쨌건 저도 몇 년의 공백이 있 었었죠. 그런데 이제 소규모로 시골에서 이렇게 제가 공동육아를 하 고 있고 또 이제 그 안에서 만난 미리 귀농 귀촌을 하신 분들의 어떤 정보를 듣고 그리고 제가 또 스페인어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알음알음 소개시켜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나씩 일을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시간당 급 여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지금 여기 농촌에 머무시는 분들의 인식 도 어떻게 보면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금액 차이가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을 일한다고 봤을 때 서울에서 받는 급여와 이제 시골에서 받는 급여가 좀 많이 확 연히 차이 나는 거를 느꼈고 또 이제 스페인어가 생각보다 여기에서 는 서울처럼 활발하게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없다 라고 많이 느 껴졌어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스페인어 하시는 군요. 그런데 막상 그거를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사업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무 료로 강의를 한다든지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많이 참여를 해주 시는 것 같은데 이제 돈을 지불해서 수업을 실제로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금액적인 차이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서울하고는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여성이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해도 되는지 아닌지는 모 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페인 어 강사를 했을 때 소득이 조금 서울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직 업을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의 종류 자체도 서울은 조금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농촌은 직업적 인 카테고리가 좀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들었고 여기 보고서에도 본 것처럼 아이 들 돌봄에 있어서 어쨌건 엄마가 그거를 좀 많이 담당하고 있는 편이 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제가 제 직업을 찾아봤을 때 그게 조금 어 려웠지 않았나. 그래도 저는 이제 공동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사시는 이모 친구들 집이나 이렇게 좀 맡겨서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어떤 돌봄센터 같은 게 부족하기도 하죠.

연구자 2: 지금 혹시 그러면 강사 말고 복수 일자리를 하고 계세요?

참가자 33: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틀은 프리랜서로 스페인어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는 이제 제가 지금 공동육아를 여기 오면 서 계속 했기 때문에 공동육아하는 곳에서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공동육아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엄마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치원 교사 자 격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이제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 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루는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연구자 2 : 공동육아가 교사 인건비를 부모들이 십시일반 지금 내서 감당하고 있 는 건가요?

참가자 33 : 네. 절반은 부모들이 회비로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절반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아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구 하고 있죠.

연구자 2: 네.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참가자 39 선생님 손을 예쁘게 들어주셨습 니다.

참가자 39: 네. 저도 그 경제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제 직장 회사를 다니다가 농사를 짓고 싶어 서 이제 귀농을 준비하고 내려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때 제 일 걱정인 게 경제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회사를 다 니고 있었고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제가 육아휴직 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복귀일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할 예정 으로 이제 육아휴직을 계속 받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좀 운이 좋 게 돼서 다시 회사에서 불러줘서 코로나나 이런 게 겹쳐가지고 재택 근무를 이제 했거든요. 귀농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되게 운 좋은 케이스로 회사에서 재택을 계속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재택근무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 재택근무를 하기 전 에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재택근무가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제가 이 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마을이 귀농 귀촌 우수 마을이거든요. 이장님께서 20년 전에 귀농을 미리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장님을 보고 귀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을에 계시는 언니들 이렇게 보면은 그 분들이 농사를 짓기는 하시지만은 부수적으로 일을 또 하시기는 하 세요. 근데 그 일이 굉장히 단기성이고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이 제 어떤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 어떤 분은 이제 면사무소에서 알바를 하신다든가 또 어떤 분은 이 장님께서 또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거를 이제 면에 유치하셔서 거기 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주말 돌봄 같은 걸 하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선 생님들은 마을에 귀농하신 분들 여성분들을 두세 분 해서 사업을 끌 어오셔서 그걸로 이제 월급을 한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초등 학교에 일시적인 그런 알바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시기도 하고 그

러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단기성으로 있고 이렇 게 지속적으로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베트남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는데 베트남 분들께서는 이제 저희는 포도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포도 철에 이렇게 샤인머스캣이나 포도 알 솎기, 봉지 싸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막 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농촌에서는 여성들이 어떤 안정적 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농 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2년 동안 살면서 본 거 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회사를 만약에 그만두게 되 면 저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 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회사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인식들이 좀 그래도 돼 있어서 육아휴직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 데 이제 농촌 일뿐만 아니라 모든 프리랜서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 지만 아이를 낳아서 여성이 이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농촌 만약에 농사 일을 같이 하는데 아이가 이제 육아를 해야돼서 일을 같이 하지 못한다면 그 중간에 일을 하지 못하는 어떤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라도 좀 보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출산율 이 좀 올라갈까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지금 첫째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째를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농사도 해야 되고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일을 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의 경우에는 조 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 2: 지금 얘기 나누는 중에 채팅을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채팅방에다가 그냥 막 아무거나 키워드도 좋고 질문도 좋고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올

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가자 39 선생님 일 공백 시기에 대한 대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애를 봐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애는 내가 돌볼 테니 그거에 따르는 약간의 보상. 육아에 따르는 어떤 분배와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일까요?

참가자 39: 저는 후자요.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거에 맞게 이제 어떤 일정 월급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일정 수준의 어떤 그런 육아 휴직비처럼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면 그래도 좀 빠듯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2: 또 누가 말씀을 하실까요. 예예 참가자 37 선생님.

참가자 37: 저는 창업했던 계기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처음 HB 와서 저도 일자리 가져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수소문해서 일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런 일자리들이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청년 일자리 지원해줘서 기업한테 한 80%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월급이 높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서는 아무리 일 해도 제가 전문직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한 200만 원도 못 받는 돈을 계속 살다가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지원 사업을 받아서 22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막상 들어가서 제가 느꼈던 게 지원받는 기업에서는 약간 저희 지역 사람들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저희를 한 60만 원 정도를 주고 저희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60만 원짜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이 60만 원짜리 일을 받지만 어쨌든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걸 알고 있으니까 되게 그 사람들이 이중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엄청 좀 질투한다고 해야 되나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들었던 말이 '얘가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서울까지 갔다가 여기 시골에 와서 이렇게 일하냐. 근데 쟤네는 돈도 많이 받지 않냐.' 라고 하면서도 이제 우리를 그냥 되게 저임금에 막 쓰듯이 대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업무에 투입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좀 해주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어느 날에는 여기 가서 이 일 해라. 어느날에는 저기 가서 이 일 해라. 이러면서 그냥 도구처럼 막 갖다 쓰는그런 느낌 때문에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여기 HB에서는 더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창업 결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이제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 같이 이제 상생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약간 청년을 위한 정책일까 라는 이제청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연구자 2: 되게 실상이 참 어렵네요. 저임금에 막 쓰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막 다루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교차돼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청년이되게 귀한 존재인 것처럼 떠받들려지지만 그건 되게 상징적 구호 수준이고 실제로 막들어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역할 요구가 되게 많고 특히 어떤 마을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구학적 구조가 있으니 못하시는 것들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근데 진짜 이렇게 전구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에 홍 반장처럼 그런 기대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기대할 거면 존중하면서 해주면 참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상한 혐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책 사업들이 선정이 되면 되게 많은 청년이라고 하는 집단 전체가 그걸로 인해 엄청나게 혜택 보는 것 같은 게

있어서 고깝게 보거나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기류들이 최근에 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자 37 선생님의 경험이되게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내 사업하고 만다 이렇게 된 거죠.

- 참가자 37: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막 그러고 나니까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속 감을 느끼거나 이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모임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엄청 꺼려지고 그래서 조금 지역에서도 많이 활동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좀 세지고 나가면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안하게 되고 조금 저한테는 그게 좀 많이 상처였던 것 같아요.
- 연구자 2: 제가 농촌에 있는 그런 사업체 이런 데서 일한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어 요. 어쨌든 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조직 문화가 되게 남성 중심적이어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사실 있다고는 노동 이슈에서 말을 하거든요.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나요?
- 참가자 37: 아무래도 좀 여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약간 꺼리는 게 있죠. 왜냐하면 힘쓸 일이 많은데 못 쓰고 또 약간 좀 땍땍거릴 거다, 여자 들어오면 시끄러울 거다는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연을 하는데 이제 제가 흡연을 하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다 전화 걸어서 왜 여자 담배 피고 앉아 있냐고 막 이러면서
- 연구자 2 : 진짜요? 참가자 37 선생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전화로 다른 사람한 데 얘기한다고요?
- 참가자 37: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민원처럼 왜 저런 여자를 쓰냐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진짜 힘을 못 써서 약간 좀 귀찮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연구자 2: 지금 혹시 계신 데가 지금 영업 사업하시는 데예요. 가게?

참가자 37: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공장. 네.

연구자 2 : 그냥 젤라또 판매 가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다 젤라또는 다른 분이고 양조장?

참가자 37 : 네. 양조장. 저는 여기 엄마가 이제 운영하시는 조그마한 공장인데 이제 그냥 저 여기서 구석에서 살고 있고 저도 이제 작업장에서도 같이 양조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연구자 2: 그것도 진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결혼해서 가족을 형성해 버리면 독립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지금 연고지로 내려오셨잖아요. 따로 거주하세요. 부모님하고?

참가자 37 : 네네.

연구자 2: 그 과정이 순탄하거나 어려웠거나 어떠셨어요?

참가자 37 : 일단 저는 따로 살지 않았더라면 내려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연구자 2 : 네. 또 얘기해 볼 거리가 있을까요? 네 참가자 40님.

참가자 40: 네 저는 이거 분석한 자료를 읽을 때 농촌 청년 여성이라는 단위로 아무래도 분석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농촌 안에서 사실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하고 청년의 층위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화되니까 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던 것 같아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제 연령으로만 묶었을 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 결혼 위주의 형태로 오신 건지 아니면 애초에 농촌에 살다가 직장을 찾는 과정을 겪고 있는 형태인지 등등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통계 데이터로만 딱 이렇게

나타나면 정책화할 때 좀 오류가 생길 것 같아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 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직이나 무급가족 종사자라는 틀이라든가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게 그렇게 딱 틀로 규정을 했을 때 농업 종사자 처럼 또 다른 형태의 일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 종사상의 지위가 낮은 것이 현실이긴 한데 저 는 그 현실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촌에서 사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익성이 분명히 있고 농촌에서 저는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공익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 삶에 대한 일자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했을 때 청년들도 더 농사를 짓고 싶어질 거고 또 농촌에서의 삶을 본인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데. 우리나라의 정책적 세팅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되지 않나라 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공공의료 얘기라든가 아니면 공공 대중 교통 분야 그리고 저는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의 료, 대중교통 분야, 농촌에서의 삶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뭔가 농촌이라는 틀로 묶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의료 서비스 자체가 안 되어 있 는 건 사실 사람이 거기서 생존을 하고 삶을 지속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앞서 산부인과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저도 CO 에 살고 있지만 CO에서도 산부인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리고 산부인과에 가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원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아니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농촌은 더 병원이 작잖 아요. 더 없고 가면 소문이 금방 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미혼 여성 청년이 산부인과의 검진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익명성이 보 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검진받으러 다 옆에 인근에 대전 이나 다른 도시로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또 대중교통 분야가 완성

이 안 돼 있는데, 대중교통이 안 돼 있다는 건 거기 깜깜한 길을 어둠 속에서 한참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여 성 청년으로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기 도 해요. 그리고 농촌에서 다양한 인프라들과 연결이 되려면 대중교 통이 필수적인데 그게 의료나 대중교통은 어디나 있어야겠지만 농촌 일수록 또 청년일수록, 여성일수록 혹은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일수 록,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런 지점들이 결합될 때마다 점점 체감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참여 같은 부분에서는 아무래 도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자체도 없고 또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또 '도시에서 잘 되고 있었나?'하고 생각하면 저 는 대학은 도시에서 다녔는데 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래가 사회적 영역이나 공공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가는 꼭 농촌이라서라기보다는 뭔가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크게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사는 청년은 기 초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또 저희도 월세나 전세 자체도 주거 화경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나왔던 정책 중에선 농촌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정책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농촌의 공익 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향후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 각했습니다.

연구자 2: 아직 말씀 안 해주신 분 누가 있죠. 네 참가자 36 선생님.

참가자 36: 네.안녕하세요. JW에 거주 중인 참가자 36입니다. 제가 아마 그냥 나이로는 참가자 37 선생님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도 미혼 여성이고아까 저는 그 자료에서 재미있었던 게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JW는 청년 셰어하우스가 있고 저는 그걸 통해서 JW를 좀 정착을 한 케이스인

데요. 그때 저희 집 앞에 가로등이 없어서 사실 되게 위험했어요. 도시 에 살 때는 그렇게 불이 없는 화경에서 산 적이 없어서 내가 처음 딱 농 촌 지역에 왔다고 느낀 게 불이 없다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무섭더라고 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하다가 행정복지 아나요? 동사무 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군청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해 서 군청에 처음 갔어요. 같이 사는 친구랑 그 앞에 가로등을 좀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몇 번은 했어요.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 통해서 도 여성들 셰어하우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시골에 할 머니들이 너무 어두워서 밤에 못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긴 과정을 거쳐서 설치가 됐는데 설치되고 한 2주도 못 가서 다시 그게 전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왜 끊겼지 찾다 보니까 저희 바로 건물 맞은 편에 살던 마을 이장님이 전원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작물이 자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가 논, 밭은 아니었고 이장님 댁 앞에 좀 텃밭 치고는 조금 큰 그런 작물을 키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장님 입장 에서는 싫은 거예요. 그 빛이 작물이 많이 못 자라게 하니까. 그래서 그 렇게 끊겼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복지쪽에 다시 전 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장님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본인이 전화해 서 이장님이랑 딜하라고 해서 이장님이랑 전화를 했어요. 일단 이장님 이 이장님은 반대를 하고 저는 좀 그 정도는 봐주시면 안 되겠냐 얘기 를 하다가 이장님이 마지 못해서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를 겨우 키게 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오래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셰어하우스에서 이제 독립을 해야 겠다 싶어서 독립하고 나와서 지금은 거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 는데 진짜 무서움이라 해야 되나 하면서 그런 걸 농촌에서 느꼈어요. 그리고 또 저도 처음에 JW에서 청년 일자리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가자 37 선생님이 얘기하신 고민되는 지점이나 그런 것도 되

게 잘 알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운이 좋아서 중간지원 조직에 서 일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제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해주 셨고 이제 저 말고 이제 JW에 그렇게 청년 일자리로 일하는 친구들 중 에는 그렇게 그냥 알바처럼 본다고 해야 되나요. 싼 값에 너를 쓴다라 는 그런 시선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하는 친구들 중에 필 수로 교육을 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하면 군 지역 친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좀 소통하는 자리도 일부러 교육 차원에서 JW군 을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왜 보내야 되냐 그런 것도 많아서 좀 흐지부지되기도 했고 청년 일자리 자체가 청년들의 일자리 를 많이 증가시켰다는 그 수치로 정량적으로는 높아졌겠지만은 전 정 책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진짜 많 이 주변에 얼만큼 정책 했냐 이걸로도 따질 수 없긴 한데 그렇게 도움 이 됐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해요. 저한테는 도움이 됐지만 상처 받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 연구자 2: 어려운 문제네요. 본인이 중장기적으로 좀 뭔가의 거리를 찾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월 소득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는 연결해 주는 그런 것 들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벤치마 킹한 지자체 자체 사업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체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정착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참가자 40 선생님.
- 참가자 40: 뭔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일 경험 일자리처럼 실 제 청년이 일하는 것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연결됐을 때 가지 고 올 수 있는 가치는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CO의 경우 에는 이제 그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청년 정착으로 이

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꽤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O에서 계속 살았지만 CO에서 계속 살아야지는 아니었고 떠나야지도 아닌 상태에서 CO에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일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활동을 경험하면서 이런 재미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여기서 살게 된 케이스고요. 저 랑 같이 일하는 PD님도 그렇고 주변에 여기서 어쨌든 남아서 일하겠 다는 제 또래 청년들은 다 그런 케이스예요. 다만 이제 군청에서 진행 하는 단기형 일자리의 형태거나 진짜 그냥 매칭만 해주는 형태에서 는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특히 청년 일자리라고 해놓고 코로나 열 체크만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일자리랑 연결을 해놓고 청년들이 거 기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 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없다보니까 그냥 시간 만 보내다가 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자체에서 청 년을 그냥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형태로 좀 하 지 말고 청년이 이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 민을 해서 실질적인 형태의 그런 일자리 매칭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 었으면 좋겠어요. 노동 문제도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랑 연결을 해서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배워야 할 점들은 뭐가 있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들 처음 오셨는데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업무에 대한 걸 익혀야 되는데 익힐 수 있는 그런 건 또 농촌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위들 의 일자리 형태를 좀 더 좀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단순하게 일자리 수치 늘린다거나 단기형 일자리 로 주는 거는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2: 지금 이게 사실은 도시 농촌 구분 없이 청년정책에서 많이 요구하는 지점이거든요. 청년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일자리로 만들어

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참가자 40 선생님의 활동이 일자리로서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참가자 40 : 저는 처음에 일자리 형태는 아니었고. 삼성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연구자 2 : 들어봤어요.

참가자 40 : 네 거기서 이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는 단체 가 있으면 거기 이름을 보고 월 활동비 50만 원을 주셨어요. 월 활동 비 50만 원을 받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 일정 부분, 제가 하고 싶 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놔요. 그러면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 배워요. 근데 월에 5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원을 받다 보 니까 예를 들어 알바할 시간에 그거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 지역에서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또 농촌 기본소득 이랑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농촌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런데 그 공익적 기능이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다보니까 청년들 이 저도 다시 오니까 어른들이 그 얘기부터 하셨어요. '너 왜 다시 왔 니. 서울 다시 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부터 했을 때 저 는 좀 주관이 뚜렷한 편이라 '저 그냥 여기가 재미있어요.' 이러고 웃 으면서 넘기는데 대부분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이 이제 또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보니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농촌 기본소득 같은 것, 그리고 그 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활동과 연계를 해주고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청년이 지역에서 자신의 자립 기반이 될 수 있 는 활동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그런 형

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자 2 : 얼마 동안 지원을 받았어요?

참가자 40: 저는 음 1년 반 정도 받았습니다.

연구자 2: 이게 본인이 뭔가 신청하거나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참가자 40: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처음에 내고 중간에 얼마 정도 활동했는지 좀 얘기를 듣고 마지막 최종 결과 공유에도 제약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자 2: 네 약간 지금 청년들한테 주는 수당이 대부분 구직을 전제한 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력서 내면서 기업들 쫓아다니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데, 말씀하신부분들은 그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수당인 거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보편복지로서 청년 수당 같은 개념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좀 정책제안 사항으로 좀 주제를 고려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농촌 기본소득까지 끌고 가면 얘기가 너무 큰데 청년의 이런 활동 수당을 주는 지자체가 있기는 해요. 전주시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을 줘요. 근데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1년 동안 50만 원을받으면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면접을 통해서잘 설득하고, 어필하고 활동 보고서를 마지막에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은 본인이 기간이 짧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서 내가 뭘 하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게 되게 선진적인 정책이라고 했었죠.

참가자 40 : 전주시가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는데 지역에 있는 활동

이라든가 기관 단체들과 연계를 하는 것 역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은 해요. 매칭을 통해서 선택해서 거기서 좀 그래도 조언도 듣고 지역 의 다양한 어른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그게 되지 청년 혼자서 그냥 면접 보고 계속 혼자서 그걸 해나가려면 그건 조금 어려 울 것 같습니다.

연구자 2: 어쨌든 그럼 약간의 조건을 두는 거네요. 지역 활동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지역의 조직이라든가 사람들과 연계하는 활동들을 좀 조건부로 두는 거는 의미가 있겠죠.

참가자 40: 멘토 같은 관계예요. 멘토 멘티.

연구자 2 : 아 선생님 옆에서 손을 번쩍 드네. 참가자 36 선생님이 있는 동네도 가 능하지..

참가자 36: IW도 사실 있어요. 저도 있는데 그게 뭐 중소기업이나 농업 거주하는 친구, 문화예술하는 친구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나뉘긴 했는데 저처 럼귀촌에서 중간지원 조직이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친구들은 그 카테고리에 전혀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제 그런 거는 생각은 못해봤는데 그 저도 CO을 몇 번 가보는데 CO이 물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JW도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제가 CO 를 갔을 때 느낀 건, 저는 몇 번 안 가봐서 사는 분의 그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좀 더 끈끈한 느낌이었어요. JW도 유명한 단체들이 좀 검색해 보면 솔직히 나올 거예요. 근데 CO만큼 긴밀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 어요. CO가 그런 게 워낙 잘 돼 있어서 지역사회랑 유기적으로 그렇 게 청년들 연결하는 것도 잘 되는 것 같고 여기 JW에 사는 친구도 얼 마 전에 CO에 2주 정도 그 기자 활동할 수 있게 그런 활동 많이 하시 더라고요. 그걸로 가서 옥상 라디오 녹음도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JW도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책으로 되게 할 수 없는 게 지역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어른들이라 해야 될까요. 귀농귀촌 1세대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시시하다고 하는 게 어렵죠. 굉장한 의지와 그런 본인들의 삶에서 그런 게 없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 연구자 2: 예 지금 채팅방에 지금 참가자 33, 38 선생님이 글을 되게 길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같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채팅방 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본인이 좀 말씀을 하시죠. 참가자 33 선생님. 대중교통 되게 중요하다고.
- 참가자 33 : 네 아까 대중교통 말씀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농 귀촌 할 때부터 운전을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이제 남편이 나가더라도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를 가거나 할 때 편하게 다닐 수가 있었 었는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보통 남편분이 운전을 하시면 아내분은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워낙 대중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운전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지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시골에 내 려오면은 일단 제가 있는 곳은 택시를 타기가 힘들고요. 콜택시도 부 르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뭔가 제가 있는 곳에서 그 완주의 어떤 도시 급의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세 번 정도는 해야 하니까 1 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화승도 서울처럼 바로바로 된다기 보다 많이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또 어딘가를 제가 다른 도시를 갔다 왔을 때 돌아오는 편이 일찍 끊긴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남 편을 불러서 이제 와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서울을 갔다 온다 면 돌아올 때 꼭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 그 럼 제가 남편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이 되게 불편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움직여서 이제 집에서만 육아하는 게 아니고 좀 어디 나가기도 하고 어디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밖에서 하고 싶은데 차를 운전하지 못하면은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진짜로 고립이 되는 거죠. 시골에서 육아를 하다 보면 그래서 꼭 그런 대중교통시설이나 대중교통이 좀 어렵다면은 어떤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놔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시골이나 농촌 같은 경우는.

- 연구자 2: 혹시 지금 자차 없으신 분? 자차 운행 안 하시는 분? 다 차로 다니시는 거죠. 차 없이는 못 사네요. 우리 그냥 아예 잠깐만요. 참가자 34, 38 선생님 혹시 교통 관련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어요?
- 참가자 34: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면허를 땄거든요. 대중교통은 솔직히 이용하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또 가정에 차가 한 대이면은 차 한 대로 모든 걸 다스 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출근하는데 누군가는 출근하지 않는 날 뭔가를 하고 싶은데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좀.. 서울에서는 불편함을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대중교통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한 시간에 한 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이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노선도 불편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솔직히 이용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골에서는.
- 연구자 2: 이게 이제 잘 모르겠긴 해요. 정책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대중교통 문제를 얘기하면 되게 이제 노년층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근데 청년 문제로 대중교통 문제 얘기를 하면

요새 차 없이 다니는 사람 어디 있냐 오히려 이제 거꾸로 그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이슈를 대중교통을 얘기를 할 때, 모든시기에 다 필요한가? 아니면 내려와서 차를 끄는 게 맞는데 차를 마련하기까지 필요한 건가? 이게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설득논리를 못 찾긴 해요.

참가자 34: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만약에 이곳에서 쭉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으면 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알지 못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항상 운전을 했고 모든 가족이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 이동이었을 텐데 서울이나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갖고 이곳에서 와보니까 여기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그때 오히려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여기서 쭉 생활하신 분들이 많은 경우다 보니까 자차 운영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가자 33 : 근데 대중교통을 정책적으로 해서 여기 농촌에 안착시키는 건 되게 저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버스, 지하철 이거는 아니어도 저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택시 정도는 이제 올 수 있고 제가 비용을 지불하면 갈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다는 게 저는 좀 되게 그랬어요. 그리고 노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택시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500원 택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택시를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냥 일반인한테는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는 거죠. 그니까 자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를 안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이동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어떤

대중교통으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실현이 돼야 되지 않나.

연구자 2: 사실 대안이 없는 건 아니죠. 참가자 40 선생님 사례가 있죠.

참가자 40 : 네 근데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는 읍면 순화버스 얘기랑 다람쥐 택시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저는 CO에서 계속 살았는데 제일 불편한 게 진짜 대중교통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읍에 사니까 그래도 읍에서는 집에까지 걸어라도 열심히 걸으면 한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면에 사는 친구들은 버스 시간에 자신의 일상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청소년 활동들 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옥천에 사는 청소년이 저희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나오는 버스 시간 제각각 다르고 거기서 또 거기 들어 가는 시간이 다 달라서 시간을 너무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가 아니고 자동차 없으면 못 다녀서 자 동차를 운전해야 되는 거고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농 격 차를 완화한다고 청년 인구 유입돼야 한다고 얘기해놓고 국가에서 탄소 중립한다면서요. 그러면 사실 대중교통은 진짜 필수적인 거라 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서울이 왜 청년들이 다니기가 좋 겠어요. 자동차가 없어도 어디서 지하철을 타면 갈 수 있으니까 인프 라들이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읍에서는 시설을 만들어도 다 각자 개별적으로 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 서 대중교통 문제는 청년, 청소년, 장애인, 비장애인, 어르신들 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는 저 상버스로 해서 읍은 읍대로 돌고 면은 면대로 돌고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버스들을 만든다거나 버스의 형태가 또 다 대형 버스일 필요는 없거든요. 면 안에 들어가서 읍 안을 도는 면 안을 도는 버스는 안남 면에 있는 배바우 도서관 버스처럼 작은 버스로 돌면 면 안을 계속 돌 수 있어요.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돌면 그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생기기 마련이고 어르신들도 버스를 안 타고 싶어서 안타시는 게 아니니까.

참가자 36 : 근거가 아무래도 뭘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의견을 덧대면 청 년층들한테 대중교통 문제를 이야기할 때 농촌에 와서 일자리 이야 기할 때 급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급여가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차 이가 있고 낮은 편이죠. 평균적으로 도시 친구들은 아무래도 대중교 통이 잘 돼 있어서 보험이나 자차나 이런 면에서 확실히 세이브 되는 게 있는데 자차를 끌면 저도 끌어보니까 생각보다 유지비가 진짜 많 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가 낮은 상태에서 또 그걸 위해서 꽤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족 보험이라서 그나마 여기 주변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친구들보다는 적 은 편이었는데 그런 것도 또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청년들이 결국에 유입하려면 길만 잘 되어 있어도 저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 같아요. 또 하나는 JW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으로 좀 독특하게 생겨서 약간 중심이라는 게 살짝 없는 느낌이거든 요. CO 읍내 같은 느낌의 그 동네가 잘 없어지고 어쨌든 젊은 친구들 은 나가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막 왁자지껄하게 놀고 술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차가 일단 없고요. 그럼 마시면 밖에서 자던가, 한 명은 안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의 커뮤니티가 뭔가 더 강화되기가 힘든 거죠. 저희도 여기서 술 한 잔이 라도 마시려고 하면 한 명이 안 마시거나 그냥 집에 모여서 마시거나 하는데 사실 자기 집을 늘 그런 식으로 오픈하기는 힘드니까 거의 안 마신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소통적인 측면이나 또 급여 생활을 할 때 자동차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산업 공단 그쪽에 다니는 청년들은 제가 교통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는

걸 아는데 사실 여기 있는 저희들은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으나 좀 폭이 좀 많이 좁게 설정이 되 어 있기도 하고요. 대중교통 문제가 늘 어려운 문제인 건 아는데 얼만 큼 그게 그러냐면 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JW 버스가 하나가 새 신식 버스로 바뀌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전주에서 다니는 버스가 JW로 오거든요. JW 버스가 없어가지고 전주-전주 버스들은 신식 버스 좋은 게 많아요. JW-JW, JW-전주 나가는 버스는 조금 안 좋은거 있잖아요. 타면 진짜 엉덩이 튕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버스회 사가 다니게 해요. 돈이 안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굉장히 불편했던 거 죠. 근데 이게 버스가 갑자기 새거가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약간 재밌었어요. 우리가 현실이 버스가 정말 그 렇게 다니기 힘들구나. 아마 다른 지역도 비슷하시지 않을까 생각됨 니다.

연구자 2 : 네 웃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참가자 38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 슈를 지금 언급을 하셨어요.

참가자 38 : 저는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요. 거기서 이제 보면 청년 여성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합해서 제가 이제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대부분이 청년 여 성 농업인이라서 이렇게 소외되고 힘든 점이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요. 글 읽어보시면은 너무 방대하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글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 문제도 대중교통이라는 좀 좁은 시각보다 이걸 이동수단이라고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자차 도 사실 이거를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듯이 대도시에서는 그런 것들 을 버스 이용 요금이라고 이렇게 버스 카드에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저희는 버스 카드에다 지원을 한다고 해서 받아서 쓸 수가 없기 때문 에 그거를 저희는 이제 지금 제가 SS에서 이 사업을 하나 제안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청년들이 중형, 소형차라도 살 수 있게끔 이자를 지원해달라는 사업을 발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삶에 필수더라고요. 저희도 집에 거의 시부모님과 저는 1인 1대의 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차가 크고 좋다는 문제가 아니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런 걸 좀 다르게 해석해서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연구자 2: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일단 정리를 하고 지금 마지막 주제가 되게 사실은 그냥 잠정적 가설로는 이거 되게 문제적이지 않을 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참가자 38 선생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저희가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속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그게 왜 문제인가를 얘기했고, 농촌에서는 청년들이 일 경험과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활동과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얘기를 좀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깜깜한 밤 안전 이슈 얘기하셨고 그다음 대중교통 얘기 세 번째로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에 네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농촌이 특별히 더 가부장적인가 이거 청년 그니까 20~30대 입장에서 봤을 때 농촌이 약간 가부장제의 온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상 진짜 그런가. 여성농민회나 여성 농업인들의 개인적 경험도 그렇고 객관적 수치들도 그렇고 확실히 가부장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20~30대 청년 여성의 삶과 경험에서 봤을 때 농촌 사회가 어떻다. 가부장성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참가자 38: 정말 신랑하고 둘이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이게 와 닿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농촌에 살다 보니까 가깝고 거기 마을이 다 시부모님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좁은 사회다 보니까 어디 가더라 오더라 지역 사회

라서 더 그런 게 있고요. 가부장 이게 사회 활동을 해도 이 지역사회 활동을 해도 누구 집 며느리더라 이렇게 해서 말을 못합니다. 의견 제 시를 못합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너네 집 며느리 왜 그러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 게 확실히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는 너무 어렵고 막연 하고 답이 없고 좀 나쁘게 말하면 그분들이 돌아가셔야 세대가 변할 것 같은데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연구자 2: 누구 집 며느리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면 안 되는... 네 말씀하 세요.

참가자 34: 저는 이제 아이가 없는 상태고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과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는 못 느꼈는데 처음 이거 지역으 로 이주했을 때 대부분 이곳에 와서 대부분 제가 남편을 따라서 왔다 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 고 그냥 당연히 남편이 먼저 제안했고 남편이 먼저 오길 바라서 왔다. 고 생각하는 거 딱 처음 느꼈어요. 지금도 여전히 오히려 저는 제가 먼저 제안했는데 그냥 대부분 제가 따라 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저희 부모 세대들과의 그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저희한테 저한테 특 히 남편의 밥을 차려줘야 되고 뭔가 이 지역을 떠났을 때 상대 부모들 이 모두 제가 밥을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그전에는 전혀 그런 태도 가 아니었는데 결혼 이후에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충격이었죠. 근데 반대로 저는 이곳에 남아 있고 남편이 다른 곳에 갈 때는 그 누구도 남편한테 이제 아내에게 밥을 해줬냐 이런 얘기를 전혀 묻지 않는 질 문이라는 걸 딱 처음 느꼈을 때 되게 부모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처음 느꼈어요.

연구자 2: 밥 때문에 이혼한 사람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마흔이 넘은 다 큰 성인을 밥 때문에 밥 차려주는 게. 예 또 손 들었습니다. 아까 인사도 사실 못 드렸어요. 어디 사시는 누구셔요?

참가자 41 : 안녕하세요. 저 CO에서 살고 있는 참가자 41이라고 합니다. 저는 되 게 재미있게 얘기 듣고 있다가 제가 꼭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꼭 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 분야 일을 하면서 저희 법인 자체가 시민사회 단체다 보니까 아무 래도 보고서에는 농촌 여성들이 조금 개별적인 활동에는 좀 집중하 는 반면 단체의 활동이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거랑 관련 을 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요즘 느낀 거는 조금 단 체가 아무리 진보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는 이 뤘지만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면 사실 도시에 있는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마치 서양에서 여성을 너무 추켜세우는 것과 반대로 동양은 오히려 너무 하대하는 것처럼 오히려 도시에서는 그 세련됨 속에 여전히 여성 혐 오가 들어가 있고 근데 시골에서는 그게 조금 더 적나라하고 아무래 도 관계적인 게 조금 더 끈끈하니까 더 많이 드러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양이 결정 적으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답답한 게 아무래 도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얘기하고 좀 같이 바꿔 나갈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 반면 개인적으로 조금 시골에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바꿀 수 있는 동료가 조금 부족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단체 안에서도 이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젊은 여성 청년이 없다는 게 조금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서 제가 느낄 때에는 도시랑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약간 그런 동료들의 그런 수가 조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자 2 : CO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활동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CO에서도 뭔가 청년 여성 커뮤니티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 참가자 33 : 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 살았고 서울에서 결혼했고 첫 아이는 서울에서 낳았고 둘째 아이는 이제 100일쯤 여기 내려왔는데요. 사 실 저는 여성 차별이라든지 여성 혐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서울에 있을 때는 크게 인식하지 못했고 왜 서로 그냥 이해하지 못하 는가에 대한 그냥 큰 생각만 갖고 있었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게 문 제야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아래로 귀 농 귀촌하면서 저는 귀농 귀촌 공동육아라든지 아니면 여기 참가자 36 선생님 계시는 청년 거점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페미니즘 공 부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페미니즘을 접하게 됐거 든요. 사실 서울에 살았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 혹은 친구들하 고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게 사 실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서 제가 조금 새로운 그거를 받아들이 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페미니즘 공부도 하고 페미 니즘 책도 읽고 같이 활동도 해보고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어 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예전에는 이건 당연히 여자가 맡아 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내려와서 오히려 이

제 귀농 귀촌 청년 인구도 좀 늘어나고 있고 의식 있는 청년들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된 것 같고요. 근데 제 의식은 변화가됐는데 아직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런 대화를 나누지는 사실은 못해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좋은 엄마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인식을 더 확실히 시켜주는 '이래야 더 좋은 엄마예요. 아이들 학원도 좋은데 보내고요. 키즈 카페도 좋은데 찾아가고요. 어떤 활동도 해야하고요.' 이런 거를 오히려 서울에서 정보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되게 그런 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건네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서울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지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아무튼 저는 되게 이쪽으로 내려와서 더 제 생각이 넓어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연구자 2: 좋은 사람을 만나셨네요. 연결해서 그러면 참가자 36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참가자 40 선생님도 손들었으니까 네.

참가자 36: 저는 그 정치 효능감이랑 이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해요. 농촌이 가부장적인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경험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저도 JW에 와서 뭔가 시골의 정치랄까요. 그게 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워낙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크게 좀 무관심을 했다면 시골에서는 그게 진짜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완전 그대로 반영이 돼버린다던가 그래서 지역마다 4일치라고 하나요. 농촌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입김이 굉장히 세고 그런 단체를 좀 처음 알긴 했어요. JW에

와서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여성들 인구 자체가 좀 적기도 하지만 남 성들 중심이기도 하고 남성들이 그런 단체에 속해 있을 때 굉장히 세 게 의견도 얘기하고 하죠.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사회 참여나 지역 참여에서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많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정 치 효능감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봐요. 내가 이야기했던 게 그게 정책 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런 경험들이 다라고는 제가 말은 못할 것 같은 데 어쨌거나 제가 느끼는 이 지역에서는 확실히 남자들의 그 경험치 가 더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효능감이 좀 여자분들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거는 참가자 33, 41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다른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다른 얘기하자면, 저는 도시에서 농촌으 로 온 남성 청년들이 생각보다 가부장적이라 놀랄 때가 더 많습니다. 농촌 자체가 가부장적인 것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온 남성 청년들 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경우가 많아서 더 놀라운 경우가 많고 다만 도 시와 농촌의 가부장적인 게 드러나는 건 참가자 41 선생님이 말씀하 신 것처럼 그냥 도시와 농촌의 문법이 달라서 좀 체감하는 정도가 다 른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연구자 2 : 지금 35번, 37번 선생님 손을 드셨는데, 농촌의 가부장성에 대한 얘기 도 좋고 앞서서 얘기했던 다른 얘기도 좋습니다.

참가자 35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처음부터 이제 좀 재미나게 듣기는 했는데 대중교통이나 청년 일자리 문제도 분명 농촌 생활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지만 오늘 주제가 젠더 이슈잖아요. 저희 간담회 주제 가 젠더 이슈인 만큼 이 주제로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주제로 초반부 터 좀 구성을 좀 세밀하게 짜서 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굉장히 좀 재미 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농촌의 청년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이런 토론

회 자리가 그 농촌 청년 중에서도 여성 그리고 젠더 이슈에 관한 간담 회는 처음 들어봐서 저 되게 재밌겠다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처음에 교통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를 조금 계 속 좀 초반에 한 1시간 40분 정도 얘기를 해서 그 시간들이 조금 아까 웠어요. 젠더 이슈 문제를 초반부터 조금 얘기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 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전 직장이 국회였어요. 국회여서 되게 정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역에 와서도 좀 선 거나 정치 단체나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부분이 많은데 저는 경북에 살고 있어요. 경상북 도에서 SE이라고 하면 저희는 거의 한 당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한 당 에서 거의 진짜 북한처럼 80%, 70%대 후반으로 이런 득표수가 나와 요. 그래서 같은 당에서 2명이 나와서 누가 그중에서 당선이 됐느냐 이거의 싸움이거든요. 다른 당은 아예 그냥 접근을 못하는 그런 좀 경 북만의 특별한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흥미 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또 더 생각을 해 보니까 경북의 정치 구조상 한 당에서 군수부터 군 의원까지 다 독점하는 형태인데 지역 정치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잖 아요. 그들만의 리그는 거의 다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어 떤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지역의 정치적 스피커 단체. ic,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등등의 임원진은 다 남자거든요. 여 성분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역에서 그래서 여성 그리고 특히 여성 청년이 그 공고한 조직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요새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연구자 2: 이어서 참가자 37 선생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건데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2017년 16년에 결성됐던가요? 16년

에 결성됐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여농이라고 줄여서도 얘기하는데 언론과 미디어에 엄청 많이 노출 이 됐고 웬만한 정책 의사결정권자나 정치권에서 많이 초대를 해요. 근데 이제 참가자 35 선생님 이야기와 결합해서 보자면 청여농은 과 연 스피커 단체로서 좀 의미 있는 비중과 활동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 시는지..

참가자 37 : 저희 단체가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촌 사회가 가부장적 인 게 너무 심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쁜만이 아니라 이 제 저희 같은 청년들조차도 그런 모습들이 다 학습이 되고 있기 때문 에 나아지고 있는 거는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식조차도 아직 까지는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여자가 커피를 타야 하고 밖 에 나가면은 어쨌든 저도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농업에 주로 주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남자가 하는 일은 따로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은 따로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맞아요.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힘이 약하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체형상 다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나눠져 있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걸 꼭 구분 지어서 여자이기 때문에 넌 이걸 해야 되고 난 남자이기 때문 에 이걸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계속된 이제 성교육이라는 거를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 이제 어른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저희 이 제 MZ 세대라고 제가 좀 우겨보기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조금 학습을 해서 좀 더 인식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 데 솔직히 쉽진 않죠.

연구자 2 : 이 얘기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농업 농촌이라고 하는 키워드 영 역 안에서 나름 그래도 스피커 기능을 할 만한 조직으로 지금 청여농이 그렇게 기대를 받으면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청여 농 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일부에서 소비하는가를 보면 되게 청년 여성에 대한 농촌 사회의 인식들을 좀 보여주는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여농에서 제안하는 이슈나 의제를 정말 진지하게 정치적 의제나 정책 이슈로 숙고하는 결과들은 내오질 않아요. 그런데 되게 활 용하고 동원은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깝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장과 이슈몰이를 하는 데 있어서 청여농만한 단체가 없 기도 해요. 그래서 참가자 35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여성주의 전 략에서 끼어들기를 할 거냐. 기성판에 끼어들기 위해서 물을 흐리고 구 멍을 내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만의 리 그를 다시 만들어 버릴 거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래서 여성 커뮤니 티나 여성 모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앞으로 또 옮겨보 면 남자들은 정치나 의견을 내는 제도화된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하기 나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만나요. 시장 군수도 만나 고 시군 의원들도 만나서 뭘 만들어내고 뭐 해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가 기성 단체 이외에 젊은 층의 여성 커뮤니티는 우리 끼리 공부하고 우리끼리 성토하고 이제 그런 모임으로 많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할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 는 게 좋을까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제도권 진입이나 제도화가 답은 아 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성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출할 수 있는 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굳이 들으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말할 거라고 하는 자리는 깔아야 될 텐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사실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사실은 이제 약속된 시간이 길어지고 거의 다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참가자 35 선생님의 뼈 아픈 지적을 받고 젠 더 이슈, 이 성별적인 존재로서의 경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뼈아프지 않 다는 거가 한편으로는 이게 또 긍정 사인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겪는 경험이 훨씬더 각인되어 있고 내가 20대 여자여서, 내가 기혼 여성이어서, 애 키우는 여자여서 이렇게 생겨서 만들어진 경험의 각인들은 생각보다 크지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가자 38 :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상 처받은 사람은 사실 이런 모임에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게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 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청여농이라는 단체가 스피커 단체가 되 고 싶으나 사실 여성 농업인이라는 구조 속에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어. 요. 여성인데 농업인이신데 나이가 많은 구성층들이 또 있습니다. 여 성 농업인에 대한 의제를 내면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그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절충안 이 없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너네는 나이 안 들 것 같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안 들어주시는 거죠. 또 그런 한계점이 저희한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시장을 만 나고 정치적으로 색을 드러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도 이게 정치적인 것을 드러내고 의견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장점이 있겠지만 저희 단체로 봤을 때 이 게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적인 단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큰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많이 논의를 하는 중이고요. 여성 농업인들이 되게 소수다 보니까 이런 단체들을 많이 만들 수는 없어요. 전국적인 단체들이 사실 이게 전국적인 단체들이 많아서 어떤 단체는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어느 당에 속해 있고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피력하면 참 좋겠지만 저희 한 단체를 가지고 이것 도 해주고 저것도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런 기대도 너무 하지 마시고 응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2: 알겠어요. 지금 우려하는 지점이 어떤 건지. 정체성을 정치 활동을 하 는 단체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구성원들과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서 로서로 돕는 그런 단체로 남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한 창 진행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 판 안에서도 기성의 여성농 업인단체들하고도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남성과의 문제뿐만 이 아니라 중노년 여성농업인 의제, 무게에 약간 눌려 있는 상황이기 도 한데 이게 접점을 찾긴 해야 할 텐데요. 근데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 요. 사람이 적으니까 여러 조직을 만들기 어렵다는 좀 아닌 것 같고 지 금은 협동조합도 세 사람만 모이면 만들 수 있기 한데 활동의 장들이 나 조직과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다양할수록 좋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농촌 사회에 사실은 성폭력 문제를 좀 진지하게 건드리고 싶은데 관련된 데이터도 없고 이게 매우 조심스 러운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고 사실 관련된 대응 체계를 만드는 거는 여가부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 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나이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여성 의 노동을 평가 절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성적인 존재로 간주를 하거나 되게 비하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문화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으려나 그런 고민들을 좀 하다가 보 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의 활동 이력들을 다 갖고 계시단 말이 에요. 근데 예를 들면 마을 성평등 교육 내지는 마을 성평등 규약 만들 기 이런 식의 활동과 사업들이 지금 소소하지만 좀 양적으로 많이 만 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적극적으로 같 이 결합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쨌든 참가자 35 선생님이 기존의 여성 조직에 대한 생각, 여성 세대 간 연대에 대한 생각, 외모에 대한 자기 검열 이 얘기는 아까 진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맺었던

친구들이 지금 모성 역할을 엄청 충실하게 하시는데 그 모성이라는 게 교육하는 엄마잖아요. 교육하는 엄마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를 이제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고 모성 역할에 더 충실하고 거기다 대고 모성은 이데올로기이고 넌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참가자 34: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집안일 관련 그다음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이 제 작년에 페미니즘 모임도 하고 그런 거를 집안일 리스트 엽서 만들 기 이런 걸로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집안일의 가치를 좀 알리고 돌봄 력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어떤 카드를 만든 적이 있어 요. 근데 그 카드를 저는 만들기 전에는 만약에 완성이 되면 제 친구 들한테도 보내고 저희 엄마한테도 혹은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보내서 여성들이 지금 하고있는 집안에서 하는 활동들 같은 것들이 매우 가 치 있는 일이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게 막상 제가 전달을 하 려고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엄마가 하 고 지금 일생동안 해왔던 어떤 일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보낸 카드 하 나로 깡그리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어떤 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소하게 조금씩 이렇게 잡아나가야 하는데 그 간극이 너무 커서 그 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까가 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여성 혐오, 페미니즘 안에서도 극과 극 으로 나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그 간극이 되게 커 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에 그런 모임을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저도 그전에는 제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 았어요. 나는 힘들지 않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걸 좀 내려놓고 서로의 좀 아주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여성 활동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제 안에서도 좀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농촌이건 도시건 꼭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만나

서 자기 이야기들을 좀 서로 나눌 수 있는 아주 소규모의 어떤 집단들이 아주 많이 산발적으로 생기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지금도 이제 예전에부터 미투 운동이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이제 우리 사회 안에서도 조금 더 드러나게 되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그 인식이 어느 정도 그 간극이 맞춰졌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여성들이 좀더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소소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학교에서 교육도 그런 젠더 이슈나 성평등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말을 해줘야 하고요.

- 연구자 2: 지금 부녀회나 학부모 단체에 가입해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참가자 34, 33 선생님, 다른 분들은 지금 이런 여기 조직하고는 다 거리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참가자 38 선생님이 아까 부녀회 얘기를 많이 하셨네. 예.
- 참가자 33: 근데 학부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주로 그래서 또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니 아빠들이 주로 운영위원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부모 회장을 한다든가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시각으로 생각했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닐수도 있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임에 참여하시는 아빠분들이 계시기는 한 것 같아요. 부녀회는 잘 모르겠어요.
- 참가자 36: 참가자 35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문자 채팅창 이거 봤는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셰어하우스 살 때 가로등 설치하는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사실 청년들도 청년인데 할머니들도 사실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때 그렇게 끊기고 나서 제가 옆집이랑 앞집에 할머니들을 알아가지고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여쭈러 갔어요.

이거 생기니까 불편하지 않냐 농작물을 많이 피해보시냐 근데 할머 니가 밝아서 되게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앞집에 이장 님이랑 그런 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바로 태도를 돌 변하셨어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장 건드리는 거 아니 라고 젊은 아가씨가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진짜 저희 랑 좀 친하게 지내고 떡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되게 순식간에 그 런 거 저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외형에 대한 거는 오 히려 고향을 떠나서는 크게 많이 못 느끼기는 했는데 참가자 35 선생 님은 이제 SE로 가신 거니까 저는 사실 GD에서 IW로 온 케이스라서 경상도에 그걸 문화에서 자라다가 전라도에 왔을 때 저한테 여기 분 들이 물어보시는 게 지역적인 그런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 별을 느껴본 적이 없냐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 면서 엄청 느껴보지는 않았는데 놀랐던 거는 저는 이제 GD도 사실 SE이랑 같아요. 한 당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제가 살아오면 서 되게 싫었거든요. 그냥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왔는데 이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거의 독점이죠. 저 희도 군수부터 의원까지 빨간 당에서는 후보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 래서 되게 이것도 저도 지역 살면서 살아보니 느끼는 그런 당은 다르 나 그 양상들이 굉장히 비슷하다 많이 느꼈습니다.

참가자 40: 저는 말씀하신 부분들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부녀회나 학부모 단체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들이 주로 부녀회나 학부모 단체에 많이 들어가 계셨거든요. 요새는 위원장으로 아버지가 많이들 하세요. 근데 목적이 조금다르신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고 제가 느낀 점을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농촌 안에서는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역할을 도시보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돌봄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비해서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여성이신데 돌봄 일자리 자체가 충분히 그 의미를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시고 대부분 학부모 회의 어머니들이 구축이 되어서 진행을 하시는데 인건비 자체가 충분하지 않고 앞서 이야기한 일자리 중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면서 본인이 유지하기 어려운 일자리 형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공공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일자리를 인정받지못하는 건 그 돌봄이라는 영역이 어쨌든 여성이 당연히 해야할 부분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들었습니다.

연구자 2: 자기 검열이 있다고 참가자 38 선생님은 고백을 하셨고요. 세대 가 연 대 얘기를 하니까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촌 여성 노인에 대 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제가 약간 눈물 나는 대목이 뭐였냐면 여성 노인들은 자기 삶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남편들 이 하게 하잖아요. 남편들이 했고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근데 그렇게 계 속 살다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손, 자녀가 그 결정을 하게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하고 너무 당연해요. 그 삶의 논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 존감과 자립감이 정말 낮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 36 선생님 경험했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 실은 지금 농촌 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 과정에 강사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양성된 강사님들이 시연하면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걸 이렇게 쭉 보면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전문 강사들이 뭘 하냐면 마을 회관에 가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교육받았 던 내용 중에 꼭지를 잡아서 한 30분짜리 마을 교육을 하게 한단 말이 에요. 그중에 전문 강사님들의 전문 분야나 지금 소속되어 있는 활동 분야들은 좀 다양한 편인데 여성 농민들이 한 절반 정도는 됐어요. 근

데 그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 야 돼요라고 권유하는 거랑 할머니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지점을 한두 가지라도 찾아내는 것이 좋은지를 잘 해요. 근 데 개인적 노력을 요구하는 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언어는 쓰지 마세요. 이런 언어는 차별 언어예요. 이게 들을 때는 그런 가 보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실천이나 어떤 걸로 만들어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을 단위에서의 조직이 나 집합적 노력을 끌어내는 약속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을 부녀회라는 단어가 되게 옛날 말이고 여성을 낮게 부르는 말이니 그냥 마을 여성회로 이름을 바꾸십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 올 수 있어요. 이름 바꾸는 거 그다음에 마을 여성회에서 어르 신의 밥을 하는데 젊은 남자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보기 안 좋지 않냐 그러니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남자들이 밥하는 날 같은 걸 한번 잡아서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다라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집합적 노력에서 수용가능한 지점들을 찾아내서 뭘 함께 하거나 제안해 보는 그런 활동들을 성평등 강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핵 심은 그런 지점들을 찾는 게 이 강사들의 역량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는 이게 막 전달력이나 피피티를 잘 만든 이게 아니라 강의 내용 안에 설명하는 것도 그래요. 여자가 얼마나 차별 받고 있고, 성평등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불편한 지점이 뭔지를 찾고 거기에서 해 결할 수 있는 실천 약속을 한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세대 간 연대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조금은 이쪽도 이동하고 저쪽도 이동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성의 일자 리, 일거리도 그렇고 서비스 돌봄, 생활 서비스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만들어지죠. 그게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농촌 특히 더 그런데 그 부분 들이 오랜 기간 동안 무급의 봉사 영역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유급화한다고 했을 때 정서적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행했던 본인들조차도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독거노인들이 김장을 담가서 배달을 해요. 이게 새마을 부녀회의 되게 큰 행사고 이게 자긍심의 원 천이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돌봄 노동, 무급 봉사 활동, 여성 노동 저평가 이러면서 사업비도 주고 거기에 참여하 는 사람 하루 일당도 줘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은 내가 뭔가 가치를 가지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 갑자기 돈을 들어 대는 게 되게 세속적이고 오히려 더 천박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 그런 정서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돌봄 노동의 저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 되 그게 도시와 농촌의 맥락이 좀 다르다는게.. 도시는 화폐 가치로 이 야기하는 게 참 익숙해요. 근데 농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돌고 도는 선물경제, 호혜경제라고, 오히려 직접적 거 래는 뭔가 차가운 거래 같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찾기는 찾아야 되 는데 쉽지 않은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례와 선례들을 만들 고 그거를 자꾸 전파해서 좀 본따서 하는 것들을 좀 찾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기성의 여성 조직들이 청년 세대 랑은 간극이 너무 큰 거는 맞고. 참가자 38 선생님 채팅에 지적하신대 로 기성 여성농업인단체에서도 세대 간 연대를 조직 안에서도 중요한 숙제로 안고는 있어요. 근데 이미 거기도 이제 고령화돼 있어가지고 정서적으로는 청년 여성농업인들과 함께 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청 년 여성들이 회원으로 결합을 하거나 뭔가 외곽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 는 것들이 필요하다 깊이 고민하고 있지만 몸이 안 따라주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문제시하기보다 이쪽에서 뭔가를 제안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오늘 오신 자리에서 사실 원색적 얘기들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 2년간은 청년 여성농업인. 농촌여성 연구 를 했었는데 되게 원색적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웃고 다니면 남자 꼬 시러 다닌다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거나 또 그다음 날 이장이 '야 너 어제 밤에 어디 남자랑 모텔 갔다 왔니' 갑자기 이렇게 와전된다거나 옷 입는 거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부장성이라 고 두리뭉실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젊은 여자에 대한 성적인 통제 가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관건이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건드려야 될 텐데, 그게 가장 큰 난제라기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어요. 주저리 주저리 얘기했습니다. 좀 많이 아쉽네.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할까요. 30초 내지는 1분 이내로 그냥 마무리한 멘트 한 마디씩 쭉 하시면서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할게 요. 이번엔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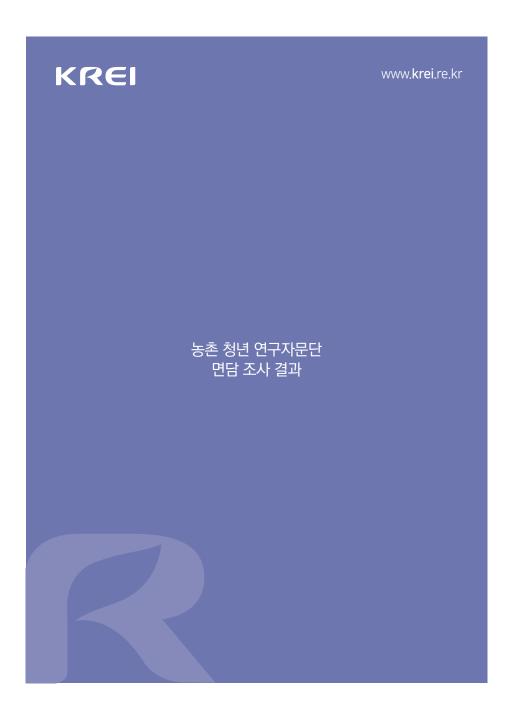
- 참가자 35 : 네. 제가 지금 퇴근을 아직 못 해가지고 지금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던 주제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조금 더 약간 젠더와 여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 가 한 번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약간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들어요. 오늘 되게 좋고 좋은 정보들 많이 얻게 돼서 저는 되게 좋 았어요. 감사합니다.
- 참가자 41 : 사실 오늘 들으면서 사실 마지막에 말씀해주셨던 게 너무 와 닿았거 든요. 저는 사실 농촌을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이제까지 농촌 공동체 가 단합을 위해서 여성들을 너무 많이 착취해 왔다는 입장도 같이 가 지고 있는 편이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가져가면서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는 중에 다른 부분

에서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신 동료분들을 좀 뵌 것 같아서 좀 즐거웠고 다음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가자 39: 네. 저는 지금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젠더 이슈를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느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떤 그냥 흘러가는 거에 그냥 맞춰져서 살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이것을 계기로 좀 여성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더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가자 34: 제가 오늘 이제 잠을 못 자고 회의를 간담회를 참여하는 바람에 솔직히 오늘 무슨 내용을 했는지 솔직히 제가 집중이 잘 안 됐거든요.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또 한 번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다시 그때는 컨디션을 잘 채워와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참가자 36: 네. 저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고 일하다보면 그리고 또 농촌에 살다 보면 동료랄까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비슷한 결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재밌기도 했고 저도 이야기 오늘 또 많이 나눈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참가자 35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에도 또 조금 더 심화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그때도 참여하겠습니다.

들었거든요. 저도 물론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청년이라서 그냥이거 안 해요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또 못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뭔가 그런 질문들을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다음에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즐거웠습니다.

- 참가자 38: 네. 저는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청년 여성 농업인이라고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사람들을 정착하게 만들지 못하는 게 배척하고 너는 언제 언제까지여기 있을 거냐라는 염려거든요. 그런 걸 좀 따뜻하고 안아줬으면은 저와 같은 청년 여성 농업인이 결혼하고 자리 잡는 게 많아지니까..
- 참가자 37 :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도 맨날 혼자서 있으니까 엄마 아빠 말고 되게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 얘기해서 너무 좋았고 또 젠더 문제 관련해서도 이제 한 번씩 서울 가면 친구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같은 농촌에 살고 있는 이렇게 여성들끼리 만나서 공감대 가족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즐겁고 진짜 또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참가자 33: 제가 마지막이라 짧게 할게요.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진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고 아무튼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만남이 어떤 사람한테는 특별한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JW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고 또이런 젠더 이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처럼 이 모임이 좀다음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이 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